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446 호

불교계 유치원 260곳서 132곳으로 반감

어린이 포교 '뒷걸음질'

시설 대부분이 부산 · 경남에 밀집
서울 경기지역은 25곳 불과

조계종 포교원 조사

260여개에 달했던 불교계 유치원이 132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포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포교원이 10월 29일 발표한 '불교계 유치원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찰이 운영하거나 사찰법인, 불교계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당초 조사대상 256곳의 절반 가량인 132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국 · 사립 유치원 8,292개(교육인적자원부 집계) 중 1.6%로, 개신교 3.7%(303개), 가톨릭 2.3%(192개)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처럼 불교계 유치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입학아동 감소로 인한 폐원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많은 유치원들이 어린이집 형식의 유아보호시설로의 전환됐기 때문이다. 종단이 아닌 재가자가 운영하는 경우 개인적 이유로 유치원을 내놓은 것도 한 이유다. 결국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불교계 유치원이 무관심과 정책부재 속에 문을 닫은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인구의 45% 가량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 경기지역 내 불교계 유치원의 수는 25개 밖에 되지 않아 지역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불교계 어린이단체들이 부산, 경남지역에 주본거지를 두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대부분의 불교유아교육지도자들은 △종단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지원확대 △불교유아교육협회의 조직력 강화 △지역별 인구비율에 맞는 유치원 설립 등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회장 정인스님은 "불교계는 체계적인 유아교육체제 확립은 물론 유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 유치원별 연대성과 활동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제6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5백여 3국 불교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9일 교토 청수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청수사에서 진행된 세계평화 합동기원법회 모습. 관련기사 3면 일본 교토=권형진 기자

10월23일 한 여성 노숙자가 낳은 아이가 버려진 채 사체로 발견됐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여성 노숙자와 같은 아픔을 안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참으로 고단한 삶이다. 땅으로 꺼져버린 절망감, 오죽하면 길에 나섰을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 하지만 사는 게 아니다. 희망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다.

고단한 삶…노숙자들 늘어 IMF때 수준

관련불교시설 전국 7~8곳뿐
무료 급식소 운영 전무한 상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전체노숙자는 4,317명으로 나타났다. IMF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쉼터이용자를 제외한 거리노숙자는 2000년 484명, 2001년 694명, 2002년 605명, 2003년 858명으로 3년 새 2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노숙자들이 시설수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쉼터, 쪽방, 상담센터 등은 단순한 보호시설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노숙자들의 자활의지를 키워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관련 시설 확충, 쪽방 화재방지 등의 미봉책들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불교계 노숙자 복지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국 137개 노숙자 쉼터 중 불교계 시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4곳의 보현의 집과 화엄동산, 자비의 쉼터 등 7~8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숙자 무료급식소 운영은 전무하다. 서울역에서 만난 한 40대 노숙자는 "노숙생활 7년 동안 절밥 먹은 것은 단 한번"이라고 말했다.

10월24~25일 이틀간 서울 · 수원 · 산본의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장을 취재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현실을 외면해왔다.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런 편견 없이 '낮은 마음' 그대로.

관련기사 7면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조계종, '북한산' 3단계 해법 제시

① 선행조건 이행
② 공론조사 객관성 담보
③노선설계 검토위 구성

조계종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론조사 제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 기본입장임을 밝히며 사회적 합의절차로서 3단계 해결절차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0월 27일 문화관광부 종무실로 보낸 회신공문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환경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통노선에 관한 일방적 주장만 있고 비교노선에 관한 합리적 비교평가 자료가 없다"며 "공정한 토론과 공론에 붙이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관통노선과 견주어 비교 가능한 비교(대안)노선을 시민환경단체가 주도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 합의절차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선행조건(1단계)과 실시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2단계), 실시 후 노선 선정을 위한 설계검토위원회 구성(3단계)을 제시했다. 남동우 기자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 · 인 수교 30년 기념, 12월 30일 봉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명단 영구복장

올해는 불교의 발생 성지인 인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최초로 설법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인도 불교지도자와 한국 참가단이 동참한 가운데 거룩한 성도절에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성지순례도 갖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수교30주년을 기리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수: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현대불교신문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 -일시: 2003년 12월30일(성도절)
  - -장소: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hi Samath Center)
  - -법주: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 성지순례
  - -인솔법사: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 -일정: 2003년 12월28일~1월7일(10박11일)
  - -코스: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룸비니)
  - -특전: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 부산에서 동시 출발

▶동참문의: (02)737-8881 **▶주최: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호남:(062)373-8813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우리에게 '기아체험 24시간'으로 알려진 월드비전. 한국전쟁 때 설립돼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독교 NGO다. 이 단체에서는 '사랑의 빵'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금통을 제작해 기독교 가정이나 상가, 학교 또는 은행 등에 비치한 뒤 모은 돈으로 국내외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한해 2억원 가량을 모은다고 한다.

불교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정토회.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통일돼지저금통(02-587-8746)'을 키우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5천여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도 '자비의 종(02-722-0108)'이란 저금통을 운영하고 있다. 모금액은 한달에 1백만 원 정도. 이 외에도 불교환경연대의 '환경저금통(02-720-1654)' 등이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배고픈 저금통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자비나눔의 모금함(02-2282-1100)',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나눔의 복돼지(02-739-3249)',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02-385-1351)' 등 불교계 복지관에서도 저금통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모금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JTS 이지현 사무국장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저금통을 운영하면 단체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뒤뜸 한다. 또 "저금통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 모금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저금통을 배포하는 단체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불자 가정이나 상가에서만이라도 불교계 단체 저금통을 비치한다면 불교 사회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남동우 · 이동혁(취재1부 기자)

갑신년(2004) 백두산천지 해맞이 행사안내

백두산 성지 봉행위원회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갑신년 첫날 해맞이 행사를 준비 하고 있읍니다.
백설로 가득한 백두산 천지에서 국내최초로 진행하는 대단위 해맞이 행사에 동참하시어,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여 참여 하신 모든 분들과 단체의 소원성취 하심을 바랍니다.


▲장백폭포


▲소천지


▲백두산 천지전경

<<선착순2004명>>
- 행 사 : 2004년 1월 1일 여명, 백두산 천지 해맞이
- 출 발 : 2003년 12월 29일, 30일
- 항공,숙박등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2003년11월 30일까지 접수마감합니다.

백두산 전통문화 행사 참가

윤2월(2004. 3.21)행사안내

매주, 매월 진행되는 백두산 내 각종 전통문화행사는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소천지, 천문봉, 두만강 등지에서 거행되며 연변, 길림지역의 백두산 관련부서와 제휴항공사의 협조와 후원 아래 출발부터 귀국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서 행사의 성취감을 통한 환희심까지도 만끽 하실 것입니다.

* 본회가 책임지고 성심성의껏 진행하여 최상의 만족감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의 행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종단 및 단체나 개인은 행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협찬 : 중국남방항공한국지점 • 한국화정항공

한국NGO총연합회등록사회단체 **백 두 산 성 지 봉 행 위 원 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호 테헤란오피스빌딩 1209호 TEL:02)6246-1002~3 FAX:02)6246-1008 E-Mail:backdu1002@hanmail.net

사 설

천성산 훼손하는 정책은 허울

천성산을 지키려는 지율스님의 단식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20일을 넘겼다. 지율스님은 지난봄 38일간의 단식과 부산시청에서 천성산까지의 3보1배, 3천배 정진을 해왔다.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동참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천성산 계곡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교사, 교수, 불교인들의 천성산 관통 저지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산을 지키려는, 산에 사는 생명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 한 수행자의 몸짓이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을 인간의 부속물쯤으로 여겼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함부로 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개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자연의 경고에는 귀를 막고 있다. 심지어는 현대의 발달된 기술로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며, 천성산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자료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뭇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참여와 정책은 허울뿐 아닌가.

무형문화재제도 개선을 주목하자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영 관리를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재청이 꾸린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가 10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데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10월 17일 막을 내린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의 개선 의욕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미 문화계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운영체계는 물론 전승 종목의 세분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해 왔다. 전통문화는 원형을 최대한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불어 넣어 발전시킬 때 생명을 얻는다. 무형문화재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기조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제도는 당국의 분명한 의지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들을 선정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

불교계도 이번 기회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지정 분야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주장해야 한다. 영산재의 경우 지정 분야의 세분화를 통한 원형 보존의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 전통 문화 가운데 무형문화재의 새 장르로 편성되어야 할 분야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과 태고종 등 범종단적인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호계원 위상 강화 '시동'

3기 체제 출범…관련법·규칙등 정비키로

종걸·대원·혜담·세영스님 특별위원 선출

사법부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계원이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호계원법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기능강화에 나섰다. 이는 호계원의 위상과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계종 호계원은 10월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초심·재심 합동회의를 갖고 3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3기 체제 출범은 초심 호계위원 7명중 6명이, 재심 호계위원 9명 중 5명이 임기만료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호계원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종걸·대원·혜담·세영 스님을 호계원법 검토 특별위원으로 선출하고 호계원법을 포함해 호계원 규칙 등 정비가 필요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호계원이 호계원법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포괄적인 규정만 명시돼 있는 현행 호계원법으로는 법적용의 기준이나 형평성에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3기 출범을 계기로 법적용의 세부적 기준 마련을 통해 호계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사실 호계원은 95년 3권 분립 체제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출범했으나, 총무원 집행부(행정부)나 종회(입법부)와 비교해 그 기능과 권능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주된 이유는 호계위원을 종회에서 선출하다보니 전문성보다는 종회 내 계파 간 안배가 우선시되면서 독자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심판 등 종도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스스로 기능을 축소시켜온 것도 한 이유다.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한 법규위원은 "호계원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호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심판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법적용을 공정하게 해야만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특별위원들이 제반 사항에 대해 연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호계원이 3권 분립 취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호계원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해 종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이날 제37차 회의를 열고 3기 초심호계원장에 종걸스님(2기 초심호계원장)을 재선출했다. 또 호법부가 승려법 위반으로 제소한 봉은사, 간월암, 범어사 건에 대해서는 심리 연기 및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간화선 수행체계 정립 본격화

조계종 수행지침서 내년말 발간

간화선 수행체계 정립작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과 수행체계추진위원회(위원장 혜국·제주 남국선원장)는 지난 10월 22~23일 법주사 선원에서 '(가칭)조계종 수행지침서' 발간을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계종 수행체계실무위원회(위원장 효창·불학연구소장)가 제출한 총 100여 문항의 간화선 수행체계 질문지를 잠정 확정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정리된 질문지는 △기초단계(간화선의 일반사항, 간화선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 △실참단계(화두 참구 등의 정진단계, 삼매단계, 점검과 인가, 깨달음을 위한 단계) △깨달음(공부)이후 단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편집위원회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3수행법과 관련, 간화선 수행과 사찰생활의 규범, 간화선과 제반수행법과의 관계 등 별도의 질문 항목을 삽입했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선원 수좌, 선학 전공학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가며, 빠르면 내년 말에 '조계종 수행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편집위원회에는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 축서사 조실 무여, 법주사 선원장 함주, 양평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등 4명의 주요 편집위원과 간사 설우, 강설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홍선스님 서류미비 해당
범어사주지후보 불인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3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107차 회의를 열고 범어사 주지 단일후보로 나선 홍선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벌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심사에서 홍선스님이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호적이 말소된 상태여서 호적을 제출해야 하는 선관위 법상 서류미비에 해당된다며 주지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

본사사령

이준엽

命 편집국 취재부 부장대우 (광주주재) 및 호남지사장

2003년 11월 3일

"대불련지원 신경쓰겠다"
법장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본지 445호 2면 '대불련 거리 나앉을 위기' 기사내용과 관련 10월 27일 대학생불교연합회 박종찬 회장 및 강지혜 서울지부장, 홍지연 지도위원을 총무원장실로 불러 "학생들로 구성된 대불련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대불련 지원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사서실장 청학스님은 이어 포교부장 일관스님과 논의를 해 대불련 사무실 임대료를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교원은 10월 28일 대불련 임원들을 만나 종회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임대료 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김은경 기자

고침 본지 445호 운불련 부산지역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내용 중, '운불련 부산지회'를 '개인택시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박평진)'로 바로 잡습니다. 또 본원종 개원법회 기사 가운데, 본원사 주지 명근을 명진 스님으로 고칩니다.

김태복장군, 현역육군소장 복직

국방부, 10월27일자로 제적처분 취소명령

군불사 시주금이 뇌물로 둔갑돼 지난 2월 군에서 제적된 김태복 장군이 현역육군소장으로 복직했다.

육군본부는 10월 27일 국방부의 제적처분취소명령에 따라 김 장군을 현역육군소장에 복직시킨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육본의 이 같은 결정은 9월 25일자 헌법재판소의 선거유예 군공무원 당연 퇴직규정의 위헌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장군은 제적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의 불명예를 씻고 현역육군소장으로 복직해 예비역 또는 만기전역의 명예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뢰혐의에 관한 재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받게 된다.

김 장군은 "무보직으로 3개월 근무한 후 전역 하는 것과 6개월 정도 한직이라도 보직을 받았다가 전역 할 것인지에 대해 육본 인사실무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현대'만평 심민섭



『불교사회사상 토론광장』

"혼돈과 해체의 시대,
정(바름:正) · 쟁(다툼:諍) · 화(조화:和)의 의미"

▶일 시 : 2003년 11월 7일(금) 오후 1:45 ~ 5시
▶장 소 : 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주관 : 大佛聯 총동문회 및 『불교 지식인연대』 모임
■ 주최 : 불교방송(BBS)

▶ 문의처
TEL : (02)705-5201 ~ 2(BBS불교방송)
E-mail : ses@bbsfm.co.kr

일정 및 순서

오후 1:30 등 록
(p.m.)
1:45 인사말씀 : 성기태 충주대 총장(大佛聯 총동문회장)
토론광장 진행 사회 : 김 규 칠(방송언론인)

제1부 토론광장

2:00 발제 1 : "포스트모던 사회와 불교사상"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사회학 교수)

2:30 발제 2 : "한국사회와 화쟁(和諍)사상의 현대적 조명"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 교수)

제2부 토론광장

3:00 토 론
토론자 : 이한구 성균관대학교 철학 교수
박세일 서울대학교 법경제학 교수
박광서 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양형진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
김종욱 동국대학교 불교철학 연구교수

4:30 질의응답
5:00 토론 마무리

초청의 말씀

탈근대(脫近代)와 근대와 전근대의 혼합, 그리고 동(東)과 서(西)의 동거속에서 이른바 '혼돈과 해체'의 시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한 채 정사(正 · 邪)를 구별하기 어렵고, 날로 번지는 다툼과 편가름에 삶은 피곤과 환멸에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법과 자비를 생명처럼 여기는 불교계 사회인들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여 얽힌 것은 풀어가며, 사회의 여러 요소들 사이에 역동적 좌표설정과 관계정립을 통하여 큰 기운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내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한 책임의 일단을 실천하는 일로서 우리는 『사회사상 토론광장』을 엽니다. 현대 한국사회의 맥락속에서 가능한 한 바른 길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툼과 편가름에도 원칙과 질서를 회복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절과 조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1일

토론광장 공동초청인

강신철 박세일 성태용 이용부
김광삼 박준영 심재룡 이한구
김규칠 배금자 양형진 진민자
명호근 서윤길 이각범 채태병
박광서 성기태 이수덕 황진호
(가나다順)

공론조사 수용반대 우회적 표현

조계종, 북한산 도로 3단계 해결방안 제시 배경

■3단계 해결절차란?

조계종이 정부측에 제안한 3단계는 크게 공론조사 실시 전(1단계)과 실시 시(2단계), 실시 후(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조계종은 1단계로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노선재검토위원회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사과할 것 △무단 발간한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 폐기 및 합의하에 정식으로 재발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국립공원 훼손과 무계획적인 환경훼손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선행 △국립공원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역사문화환경보전에 대한 사전영향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안노선 설계도면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변동분석 등에 대해 재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는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주관기관, 표본추출 방식, 토론자 선정, 방송사 선정, 절차, 기간, 정보제공 등에 대해 합의 등이 이뤄져야 하며, "환경사안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3단계로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대안노선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의 중립적인 기관이 노선을 설계 및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판 북한산' 사례 참고해야 여론

대통령 공약 이행 기본입장 변함없어

■배경과 전망

조계종이 공론조사를 실시 할 경우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장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인다.

조계종 사회부 김영주 과장이 10월 28일 사회부에서 열린 공론조사 설명회에서 "공론조사에 조계종이 답할 책임이 때문에 사회적 참여 절차를 밟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3단계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이라는 종단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3단계 절차가 사실상 거부인가 점정적 수용인가란 논란에 대해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3단계 절차를 정부 측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변동분석 등이 면밀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적어도 1~2년 이상은 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올해 말까지 북한산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정부 방침에서 보면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시간문제 때문에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10월 27일 회룡사에서 열린 '방생법회' 장면

■미국판 북한산에서 배우자

북한산 문제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미국판 북한산 관통도로인 블루 리지 파크웨이(Blue Ridge Parkway)에서 배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등록자명 '송추선인'은 최근 불교계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 주정부 및 환경단체, 주민과 건설사가 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해 10년 이상 대안을 검토해 우회한 사례"라며 북한산 해법에 응용하기를 권했다.

블루 리지 파크웨이는 1935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착공해 그랜드파더 마운틴(Grandfather Mountain) 구간 12km를 제외하고 1967년 740여km 대부분이 완공됐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마지막 구간을 완성하기 위해 20년 동안 인내와 기술개발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1989년 S자 형태의 교량이 완성됐다.

한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은 북한산국립공원을지키는사람들이 최근 펴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터널과 천성산 금정산 관통 경부고속전철 문제점 바로 알기'에 대해 "사업상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철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북한산국립공원을지키는사람들 관계자는 "북한산 문제를 여론에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맞고소 등 대응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단차원 지원·정책부재가 원인

불교계 운영 유치원 왜 급감했나

포교원이 사전 파악한 265개 불교계 유치원 중 132개만이 현존·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교원이 애초 추산한 265개의 불교계 유치원은 불교유아교육협회가 보유한 명단과 전화번호부상의 불교계 유치원의 합산 수치였다. 그 동안 포교원은 포교원의 유아전담부가 발표한 불교계 유치원 현황수치를 등록이 안됐거나 집계과정에서 누락된 사설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250여개의 불교계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왔었다. 그 동안 각 사찰이나 포교원별 자체조사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종단차원의 대대적인 유치원 현황파악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통계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교계 유치원의 극심한 감소현상은 이러한 수치적 오류뿐 아니라 종단차원의 지원과 정책부재가 가속화시킨 결과라는 게 불교어린이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물론 취학 전 아동의 급감현상에 따른 유치원 폐원을 전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교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불교계 현실에서 불교계 유치원의 폐원원인은 어린이들의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과 그것을 교육시킬 전문지도자 부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또한 상당수 불교계 유치원이 어린이집 형식의 사회보육기관형식으로 용도전환이 되거나 운영자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 명의전환 되는 것은 일선 담당자들의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 인식부족과 사명감 부족과 종단의 관리소홀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교계 유치원이 하나, 둘 문을 닫는 것은 종단의 어린이 포교에 관한 관심부족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과 지원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교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지속적인 추가 조사·분석 작업을 걸쳐 어린이 포교 지침서를 연구·발간할 방침이다. 또 불교유아교육협회를 중심으로 각 유치원간 네트워크와 종단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교구본사중심의 어린이 포교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오계는 인류공동의 생활규범

교토 한중일 불교교류 우호대회 폐막

"불살생(不殺生)의 생활화를 통해 인류 평화를 실현하자."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 지도자들이 삼국의 불교 교류를 통한 인류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9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한 제6차 한중일 불교교류우호대회가 "계율의 실천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교토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불교와 평화'를 주제로, '일상생활과 불교의 계율'을 부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법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12개 종단의 총무원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고, 고바야시 류쇼(小林隆彰)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성후이(聖輝)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등 한중일 삼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교토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 합동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이념갈등에 의한 전쟁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해갈등에 의한 전쟁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의 가슴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정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살생 생활화로 세계평화 이바지" 선언문

이어 인류 평화를 기원하며 기요미즈데라에서 정토종 총본산 지온인(知恩院)을 거쳐 릿쇼코세이카이(立正佼成會) 교토교회(京都敎會)까지 교토 시가지 평화행진을 벌인 삼국 대표단은 릿쇼코세이카이에서 국제학술강연회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측 단장인 고바야시 류쇼 스님은 '불교적 생활과 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불살생을 비롯한 오계는 인류 공동의 생활규범"이라며 "불자들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측 단장인 성후이 스님은 "불교가 제창하고 있는 비폭력 이념은 국제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 무아, 평등의 평화적 교의를 성심성의로 행양하고 실천한다면 인류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어김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불살생 계율은 인류평화를 위한 공동의 삶, 평등의 삶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며 "불살생 정신을 현대적 조명으로 해석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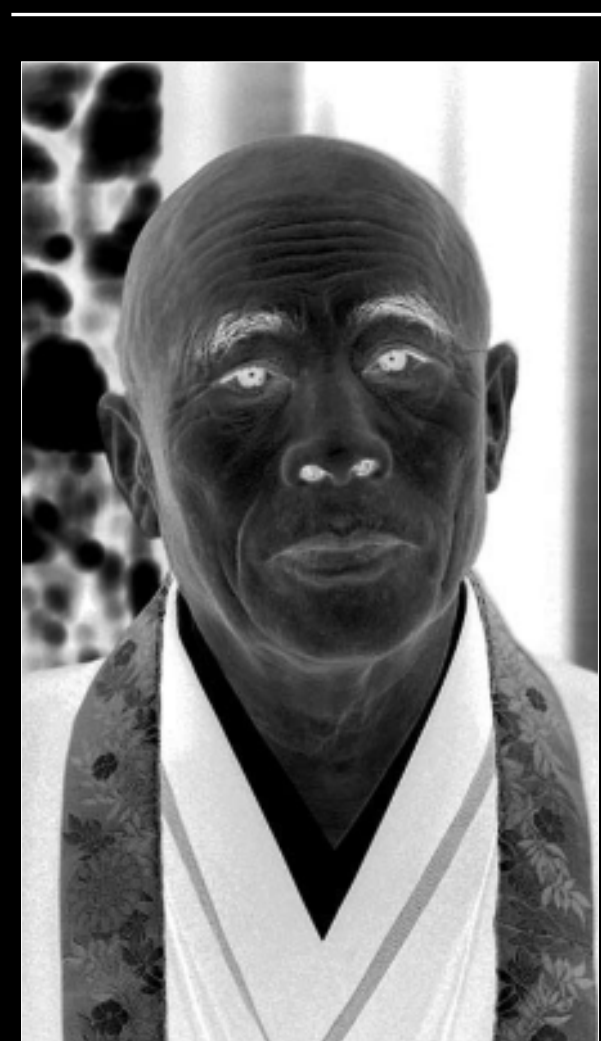
대회를 마치며 법장 스님은 "오늘 대회 참가한 전원의 점심 식비를 아껴 유니세프에 기금을 전달했는데 이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앞으로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내년 10월 예정인 베이징 대회로 이어진다. 대회에 앞서 10월 28일 열린 교류대표단 회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0주년을 맞는 내년 주제를 '한중일 불교 황금유대의 새로운 구상'으로 정하고 한국과 중국 외에 일본과도 수행 체험단을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교토=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나쁜 일 끊는데 불교가 앞장서자"

대회 일본측 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



10월 2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준비한 일본측 단장 고바야시 류쇼(小林隆彰)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은 불교의 역할에 대해 유난히 강조했다.

국제학술강연회 도중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고바야시 스님은 "일중한 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처음엔 잘 몰랐던 서로를 이해하면서 생명이나 환경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불교도는 앞으로 나서는 것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나쁜 일은 앞장서서 끊자고 담담하게 얘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 중엔 나쁜 일을 하지 말자는 부정이 먼저 오고 좋은 일을 하자는 그 다음"이라며 "현대 사회는 계율이 상당히 경박해지고 있는데 계율을 생활 속에서 지킴으로써 불교도가 소리 높여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95년 제1회 대회를 준비하며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었다"며 "불교우호교류대회를 동아시아 삼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넓혀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故 자오푸추(趙朴初) 전 중국불교협회장과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함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산파역을 한 나카무라 고오류(中村康隆, 정토종 문주)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고바야시 스님은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延曆寺)의 회문소장 직을 맡고 있다.

교토= 권형진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군자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입재법문 : 무암 광현 큰스님(봉선사 기획국장·흥룡사 주지)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큰스님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맛 지게 접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신명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홍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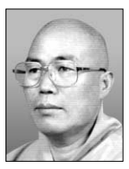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15~16일 이틀간 경주 동양호텔에서 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일주문



네팔 불교학교 설립차 출국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재일 회장은 네팔 내 불교학교 설립을 위해 11월 21일 네팔로 출국한다.



강원지역 수해사찰에 성금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10월 22일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사찰에 수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취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부관장 명궁 스님은 10월 15일 복지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신임 관장으로 취임했다.



성열 스님 초청 특강

우리는선우 박광서 이사장(서강대 교수)은 1일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강남포교원장 성열 스님 초청, 특강을 열었다.



'웃어요, 지리산!' 청소 캠페인

지리산생명연대 상임대표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은 9일 지리산 일대에서 '웃어요, 지리산!' 청소 캠페인을 벌인다. (063)636-1945



조성택 교수 초청 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은 5일 마포 불교방송 법당에서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조각전' 14일까지 연장

조각가 한기늠 씨는 서울 법련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구도'를 11월 14일까지 연장한다. (02)733-5322



순직경찰관 추모 위령재

부천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18일 경찰서 경승실에서 순직 경찰관 제13주기 추모 위령재를 봉행한다.



동국대서 추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종 동국대 교수는 1일 서울 동국대에서 '계룡산 갑사 성보의 불교문화사적 고찰'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사청년회장 이·취임법회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제19대, 제20대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평화통일 일구는 불사의 시작

북한 영통사 기와 지원 운덕 스님



"개성 영통사를 복원할 기와의 북한 지원은 평화통일을 일구는 진정한 불사의 시작입니다"

천태종은 10월 27일 고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열반 사찰인 개성 영통사 복원에 필요한 1차분 기와 10만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통일기와'로 명명된 이 기와는 18톤 트럭 20대에 실려 새로 개통된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영통사로 향했다.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 북송 기념행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사진)은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운덕스님은 '통일기와' 전달 직후 "오늘 행사는 남북불교 교류 확대는 물론 남한 국민들의 가슴에 통일의 씨앗을 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25동의 건물을 포함한 영통사를 온전히 복원하는 대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남북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11월 10일과 24일 각각 15만장의 '통일기와'를 북측에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내년 10월 열리는 낙성법회에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이 참석하는 문제와 향후 영통사와 인근 지역의 불교문화재 조사 및 발굴, 영통사 성지순례단 방북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향후 교류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0월 낙성… 한중일 천태종도 참석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어린이 위해 日서 모금했어요"

日 시민단체 '피스코트' 회원 금령하 씨



"98년 법륜 스님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했습니다. 그 때 스님의 강연을 듣고 북한어린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는 배의 이름이다. 이런 피스보트에서 올해 5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 일본 각지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을 했다. 170만엔(한화 1천8백만원 가량)을 모아 정토회에 기금을 전달하러 온 것이다.

"이라크 전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전쟁반대를 위해 몇십 년 만에 4~5만 명의 시민이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제공격 위험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 반이라크 전에 뜻을 같이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170만엔 모아 정토회 전달

10월 27일 정토회 사무실에서 만난 금령하(琴玲夏, 36·사진) 씨는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했다. 이유를 물으니 재일교포 3세란다.

금 씨는 피스보트(Peace Boat)란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스보트는 각국 활동가와 시민들을 모아 세계 각지를 다니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평화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본 시민단체이자 이들이 타고 다니

일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상상외로 어렵다고 한다.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필두로 북핵 위험 등 여전히 반북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민들레 홀씨처럼 일본 각지로 퍼져나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포교의 활력소 구실할 것"

부루나 전법봉사 단장 계성 스님



"전법을 수행의 제일 목표로 삼고, 여래의 사자가 되어 대중들에게 감로법을 전하겠습니다."

11월 1일 조계사에서 발대식을 가진 부루나 전법봉사단 단장 계성 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사진). 스님은 "깨달음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요, 전법교화는 불교 생명의 끈"이라며 "법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불교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계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희망의 단체가 되도록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부루나전법봉사단은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법문봉사를 서원한 법사들의 전법결사체"라고 밝힌 스님은 "전국 지역별 법사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를 모실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 직능단체와 군 법당, 대학교 불교학생회등을 찾아가 법보시에 나설 계획인 부루나전법봉사단은 앞으로 분기마다 법사모임을 갖고, 법문봉사 활동 내용 분석과 법회에 필요한 각종 자료 축적 및 설법교안 발간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이준범)는 10월 23일 동화작가 박춘희 씨와 어깨동무 편집국장 김영만 씨를 '제2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춘희 씨는 진주교대와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소년중앙>을 통해 아동문학계에 등단, 제16회 한국아동문학상을

2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박춘희·김영만 씨 공동 수상



◇박춘희 씨



◇김영만 씨

수상하고 <달맞이꽃> <가슴에 뜨는 별> 등의 창작 동화집을 출간했다. 김영만 씨는 또한 1990년에 단편 동화 '까만 눈동자'로 현대아동문학상 신인상을 수상, 제1회 불교아동문학상 신인작가상과 불교예절 장편동화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등을 통해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6일 한글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김은경 기자

독거·저소득노인 500명 경로잔치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혀)는 10월 26일 혜원정사 공양실에서 지역 독거 노인 및 저소득 세대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혜원정사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수재민돕기 원성 스님 초청 법회



통도사 해운대포교원 부처님마을(주지 효범)은 10월 24일 부산 해운대 신도시시장 내 부처님 마을 법당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성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태풍 매미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혼 예방센터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혼예방센터]에서는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예방센터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정토사회) 만들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예방센터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담전화 : 02)735-0407
이 메 일 : kwba@orgio.co.kr
요일및시간 : 월 ~ 금 10:00 ~ 16:00

이혼예방센터
소장 김묘주 합장

행복한 가정상담소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터전입니다.
주부여러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고민을 함께 나누어요.
남편으로 인한 고민
시댁 식구로 인한 고민,
자녀들로 인한 걱정 들을 함께 고민하면
마음의 짐이 줄어듭니다.
'행복한 가정 상담소'와 함께
가정문제를 의논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일동

상 담 방 법
상담전화 : 02)735-0406
상담면담 : 미리 예약함
이 메 일 : kwba@orgio.co.kr
시 간 : 월 ~ 토 10:00 ~ 17:00

불교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자치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가 심화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대 상 : 가족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관련 종사자
◆일 시 : 2003년 11월 10일 ~ 11월 11일 (2회 12시간=기본과정 : 5만원)
2003년 11월 13일 ~ 11월 14일, 15일 (3회 18시간=심화과정 : 7만원)
◆장 소 : 연꽃 교육장 (인사동사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인 원 : 30명(선착순) 11월 10일까지접수
◆수강료 :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 의 : 02-738-5586,5568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			
11월 10일 (월)	10:00 ~ 12:00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박애선 교수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이종호 원장
11월 11일 (화)	10:00 ~ 12:00	가정폭력의 원인과 배경	김현수 원장
	13:00 ~ 16:00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이명진 부원장
2. 가정 폭력의 가족 치료적 접근			
11월 13일 (목)	10:00 ~ 12:00	가족치료의 이론적 근거와 틀	김유숙 교수
	13:00 ~ 14:00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의 배경	김유숙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실제	안동현 교수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			
11월 14일 (금)	10:00 ~ 12:0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4.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의 실제III			
11월 15일 (토)	10:00 ~ 12:00	부부대화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13:00 ~ 14: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김화자 소장
	14:00 ~ 16:00	건강한 가족제도	박혜인 교수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심화과정)는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가해자 부분 12시간)을 면제받음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청년실업대책등 토론

청소년지도자 축제열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현성)가 새로운 청소년문화 선도를 위한 '차세대 청소년지도자 축제'를 10월 31일 국제청소년센터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 전국 16개 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 강화, 청소년관련대학과 청소년활동 헌장의 협동체제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청년실업대책의 정책방향 토론회와 학계와 현장의 만남인 '취업박람회'도 마련했다.

축제는 고등학생들의 길놀이와 전통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사 상찬, 문광부장관과 청소년지도자의 오찬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경 기자

"인터넷 도서관서 책 읽어요"

학교 '홈피' 접속 원하는 도서자료 검색
인터넷방송 통해 각종학습자료 얻어

청담정보통신고 전자도서관·인터넷 방송국 열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인터넷 방송국.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집이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읽는다. 학교 법당에서 열린 법회도 가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본다.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교장 이근우)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다. 10월 28일 디지털 전자도서관과 청담인터넷방송국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IT 인재 양성을 목표로 종립학교로는 유일하게 '특성화 고교' 기치를 들고 나선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디지털 전자도서관은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www.cheongdam.hs.kr)에 접속해 ID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도서자료를 검색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 마련된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사들의 학습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자도서관의 자랑거리. 전자도서관 관리를 맡은 김명환 교사는 "디지털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된 학습을 가능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와 학습정보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청담인터넷방송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인터넷 방송은 24시간 교과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학교 홍보와 법회, 동아리활동, 축제 등 각종 행사들을 동영상 자료로 축적하는 효과도 갖는다. 이근우 교장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자율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학교 측도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28일 행사에는 학교설립자인 혜성 스님과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 김선기 평택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담고가 10월 14일 실시한 제1회 전국중학생 컴퓨터 그래픽 정보검색 대회 입상자 34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평택=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화계사 청년회원들이 현각스님과 함께 불교교리와 수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모습.

"초발심은 첫사랑과 비슷 잊혀졌다 아련히 피어나죠"

화계사 청년회원들 현각스님과 티타임

자신에 대한 질문·믿음과 실천 중요

"저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에요." 화계사 청년회 40여명의 청년들을 이같이 말하며 환히 웃어 보였다. 10월 25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갖은 '현각스님과의 티타임'.

"젊은이들에게 생활 속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사찰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이곳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각스님은 이같이 말하며 탁자 앞에 놓여진 음료수를 들이켰다.

"어릴적부터 불교를 접했지만 간혹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초발심을 잃는다고 하나요?" 방현경 법우의 고민에 현각스님은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초발심은 첫사랑과 비슷해요. 시간이 흘러 잊혀졌다 생각해도 때때로 가슴 속에서 아련히 피어나는 감정이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그 초발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예불도 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스님, 수행은 어떻게 하지요? 전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다보면 떠오르는 잡생각을 물리치다 매번 어지럼증을 느끼거든요."(황인범)

"하지 말아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앉아 자연스럽게 호흡해 봐요."

삶과 죽음의 차이, 불교에서의 남녀평등,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등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현각스님은 손발짓을 총동원하며 설명하기에 열중이었다.

"생각이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와 아무리 힘을 겨루며 싸워봤자 자신만 아플 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 내쉬는 호흡 속에 그 번뇌스러운 생각이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생각은 삶도 때론 죽음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림자와 싸우는 듯한 스님의 제스처와 익살스러운 표정 앞에 모든 질문은 와해되어갔다.

이들의 대화는 어느덧 4시간을 훌쩍 넘고 있었다. 아직도 아쉬움이 많지만 청년들은 다음 달 티타임을 기약하며,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화계사 3천배 철야기도 정진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은경 기자

염주 한알 한알에 불심 가득히…

북서울중학 불교학생회 CA전시회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반운주 학생의 말에 김보영 학생이 고개를 휙 돌리며 한 마디를 한다. "아냐. 우리들 각각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했어."

강당 한편에 마련된 CA(특별활동) 전시회장에서 토닥토닥 말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도봉구에 위치한 북서울중학교 불교학생회 1학년 학생들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시회장을 찾은 학생들은 불교학생회 작품코너에 몰려 염주와 연꽃 등을 만져보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또래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가득 받고 있는 북서울중 불교학생회의 싹을 틔운 이는 김규진 지도교사와 희명화 법사이다. 김규진 지도교사는 작년 북서울중에 첫 부임해 불교학생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불교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포교사단에 도움을 요청해 희명화 법사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불교학생회를 이끌어왔다.

"많은 불자교사들이 마음을 내서 청소년포교의 최적 장소인 학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희명화 법사는 그 동안 활동하며 느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연등 앞에서 북적되는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또 다른 불(佛)씨를 퍼트리기 위해. 김은경 기자



◇북서울 중학교 학생들이 '불교학생회' 전시코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수련회 참석자들이 손을 잡으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정토회, 유수스님 초청
美뉴욕서 '깨달음의 장'

정토회(대표 유수 스님) 제254차 '깨달음의 장' 수련이 10월 22~27일 뉴욕주 스토니포인트 보리사(주지 원영스님)에서 개최됐다. 유수 스님은 '자유로운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자'는 주제 아래 수련회를 이끌었고 워싱턴, 뉴욕, 뉴저지 등지에 사는 교포들이 참석했다.

'깨달음의 장' 수련은 간화선을 현대식으로 응용한 자아찾기 프로그램이다.

수련회가 끝난 후 유수 스님은 27일 뉴욕시 퀸즈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이에 앞서 유수 스님은 LA 정토수련원에서 10월 10~12일 '일상에서 깨어있기' 수련, 19일 '깨달음의 장', 수련회를 열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삼각산·마이산·주왕계곡 문화재청 명승지로 지정

삼각산(명승 제10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명승 제11호), 진안 마이산(명승 제12호)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명승)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0월 31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이들 3곳을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정사유에서 "삼각산은 인수, 백운, 만경의 세봉우리가 지니는 신비로운 자태와 영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고 도를 닦던 민족사와 문화사적 가치가 큰 곳"이라고 밝혔다. 주왕산에 대해서는 "백악기 화산암류로 구성돼 자연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산봉우리마다 주왕의 전설이 얽혀 있는 등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진안 마이산의 경우 "탑처럼 우뚝 솟은 모양의 경관적 가치와 풍화표면에 수많은 풍화혈이 발달한 학술적 가치가 큰 산"이라며 지정사유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1月 둘째주, 넷째주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제 232 호
감 사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73-20
최 영 식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58주년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권 지 관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조계산 전통단풍 예술제

15일 선암사 경내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순천 선암사와 단풍으로 물든 조계산을 무대로 한 '제1회 조계산 단풍 전통예술제'가 11월 15일 오후 3시 선암사 경내에서 열린다.

순천시청과 태고종총무원이 후원하고 선암사가 주최하는 전통예술제는 구수한 입담가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이애주 교수(서울대)의 승무를 비롯해 동성 · 법성 스님의 회심곡, 광주무형문화재인 판소리강산제 보유자 이임례 명창의 심청가 등 전통문화 공연으로 진행된다. 불자는 물론 순천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061)754-6062

박봉영 기자

2003년 추경 3억3천만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10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3억3천380만원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를 거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은 인천 덕화노인요양원과 대구 보은노인요양원 시설의 증축과 기능 보강공사를 위해 조성됐다.

천태종, 환경 · 인권 등 시민운동 나선다

하나되기운동본부 곧 출범

이사회 · 4전문위원회 · 사무처로 구성

외국인노동자 · 탈북주민 · 해외불교 지원

그동안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천태종이 환경 · 인권 · 통일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11월 중순경 '(가칭)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하나되기운동본부)' 창립총회와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 운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보수적인 종단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과 함께 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천태종 사회부와 사회복지재단이 주도하게 될 하나되기운동본부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환경, 노동인권, 통일, 국제협력 등 4개 전문위원회, 사무처로 조직이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로 해당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 사회참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총무원장 운덕스님, 사회부장 무원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인사 외에도 일반 학계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하도록 해 불교에 국한하지 않는 범국민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에 활동영역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포교, 해외불교 지원, 대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벌여 나간다. 10월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개성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 40만장을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은 창립에 앞서 펼친 통일위원회의 첫 사업이다. 또한 국제협력위원회는 11월중 헌옷보내기 등 몽골 불교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12월에는 각 위원회의 활동과 조직 구성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하나되기운동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재정 · 인력도 지원한다. 자립기반이 없는 창립초기 운영 · 사업 추진비를 부담하고, 후원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전개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활동인력은 천태종 소속의 니르바나 자원봉사 교육 이수자 7백여명을 해당지역에서 각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천태종의 거대한 조직과 특유의 응집력을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나누며하나되기운동'이라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종단의 역량을 늘려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日 청수 · 약사 · 법륭사 성지순례

법상종(총무원장 학산)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법상종 성지인 교토 청수사, 나라 약사사, 법륭사 등을 순례했다. 일본 법상종의 본찰인 약사사에서 만남을 가진 양국 법상종은 학술 · 문화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상종 대표단은 총무원장 학산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도명스님, 총무원부원장 해월스님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선각종, 6사단 군장병 위문법회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군포교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육군 6사단 88포병대대 군장병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건강한 정신력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군생활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국장 진설스님, 경인스님, 경선스님, 선연스님 등 10여명이 동참했다. 선각종 위문단은 법회가 끝난 후 장병들의 내무실을 둘러보고 떡, 과일, 음료수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늦어질듯

교사용도변경 서류미비…신청서 반려

태고종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동방대학원대학의 개교인가 신청이 10월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반려됐다. 이에 따라 태고종의 종립 정규대학 개교는 당초 내년 3월에서 9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동방대학원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된 직접적인 이유는 학교 교사 용도변경에 관한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9월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교사 개축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데다가 태고종 총무원과 태고사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학교부지 및 교사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태고종은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 3월 개교는 어렵더라도 내년 9월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재점검, 최대한 개교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동방불교대학 등의 편입 등 학교기구 재편 등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학교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대로 서류보완 등을 거쳐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개교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태고종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도 계획대로 개교하지 못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추락 등의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이미 선발되어 있는 교수, 교직원 등의 확보를 위한 처리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봉영 기자

관음 · 총지종 종정추대법회 봉행

관음종 19일 묘각사

총지종 18일 총지사

관음종과 총지종은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종령)을 각각 추대한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1월 19일 오후 1시 총본산 서울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제6세 종정 죽산(竹山) 스님의 추대법회를 연다.

죽산스님은 63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67년 묘각사에서 관음종 중창조인 태허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수지한 이래 통도사, 범어사 등지에서 15안거를 성만하는 등 수행에 진력해 왔다.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18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제8대 종령 수성 종사의 추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는 총지사 서원당에 조성된 종조전의 헌공불사(낙성식)를 겸해 열린다.

수성 종사는 대구 · 경북 교구장, 중앙종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총지종의 종풍을 진작시키는데 헌신해 왔다.

종단소식

혜웅스님 열반3돌 다례

관음종은 제5세 종정 혜웅스님 열반 3주기를 맞아 11월 7일 오전 11시 천안 보열사에서 추모다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헌향을 시작으로 헌공다례, 추모사 낭독, 약력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혜웅스님은 59년 관음종 중흥조인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관음종 창종을 주도했으며, 호법원장, 원로원장, 종정 등을 지냈다. (041)576-2342

3일 불교교양대학 개교

태고종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설운)는 11월 13일 종무원 부설 불교교양대학을 개교한다. 양주시 남면 기원정사에 교사를 둔 부설 교양대학은 기초교리반과 전통의식반으로 나누어 전통불교 의식의 전수와 불교대중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초교리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금강경, 포교론, 서예 등의 수업으로 이뤄지며, 전통의식반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각단 예불, 재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031)864-0033

'효 실천' 야외법회

진각종 총금강회 서울지부(지부장 도성)는 10월 23~24일 논산 혜정심인당에서 '효 실천' 야외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신교도간의 화합과 신심을 다지고 어르신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법회에 이어 고창 선운사,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등을 참배했다.

게 시 판

행사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7일 오전 10~12시 복지관 강당에서 '지혜로운 부모 되기' 교육 강좌를 연다.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문지현 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되는 강좌는 구로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02)852-0525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1월 4~8일 4박5일간 자원봉사단 해외교류사업 일환으로 일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 오사카 볼런티어센터, 노인복지시설, 일본사찰 등을 견학하며 조계종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20명과 재단인솔자 2명이 참가한다. (02)723-5101

모집 ▲수원서호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영어회화(초급) 강의를 맡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월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0분간 진행된다. (02)291-0911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 · 정서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전문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월 2회 이상 활동하며 시간은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 (02)466-6242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중풍 ·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60세 이상 뇌졸중, 경증 치매 어르신으로 해당 질병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각 1통과 사진 2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오후 4시. 이용료 월 10만원. (02)804-4058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 특선 요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장피, 잡채 등 생활요리 108가지를 강의하며 개강은 11월 17일. 수업은 매주 월 · 화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수강료 3만원. (051)264-9033

구인 ▲통도사 자비원은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간호사, 위생원, 조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주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jabi3999@yahoo.co.kr) 접수. 마감 11월 30일. (055)381-3999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재활팀장, 정보직업재활팀장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마감 11월 8일. (055)763-6677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9114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 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술이랑 밥이 부처고 하나님이지”

노숙자의 삶 속으로

노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올해로 7년째. 오늘도 전국 4천3백여 명의 노숙자들이 지하철역과 공원 등에서 알콜에 몸을 내맡긴 채 잠을 청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복합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뒤섞인 이들은 ‘꼬지(앵벌이, 짤짤이, 빵빵이 등 노숙자들의 구걸을 총칭함)’와 공공 일용근로직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 나가고 있다.



◇24일 저녁10시 서울역 지하도. 꿈도 희망도 이들에게는 없었다.

신문지 보다 라면박스가 더 따뜻하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4백여 명의 노숙자들 틈에 끼어 저녁을 먹고 회현역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20여 명의 노숙자들이 제각각 잠을 청하고 있었다. 바람을 막으려 머리맡에 라면박스를 세워 놓은 사람, 아예 비닐로 온 몸을 휘감은 사람, 계단을 베개 삼아 누운 사람.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우리에게 최모씨(42)가 자리 한 켠을 내줬다.

신문지를 깔고 어색하게 웅크리고 있는 우리에게 최씨가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왔어?”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말이 더듬거려 졌다. “저기….” “중국서 왔어? 조선족이야?” 최씨 말에 잘됐다 싶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측은했는지 최씨가 깔고 있던 뭔가를 쏙 밀어줬다. 라면박스였다. “신문지 보다 이게 더 따뜻해.” 고맙다는 표시로 술을 대접하겠다고 하자 최씨는 흔쾌히 응했다. 소주 몇 잔이 오가자 얼큰하게 술이 오른 최씨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고아였던 최씨. 3살 때부터 길러준 양부모가 죽자 막노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난은 늘 그대로 였다. “돈 많이 벌어서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예상외로 최씨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밑바닥 삶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

■ 떨꺼둥이 24時
(떨꺼둥이란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맨손으로 쫓겨난 사람들로 노숙자와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말)

IMF, 신용불량 … 굶주림에 가슴이 시리다

최씨에게서 회현역과 서울역 노숙자들의 생활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 난장까는(노숙자들은 노숙하는 것을 ‘난장깐다’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술 마시고 싸움질만 해. 그나마 여기는 잠 잘만 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일 나가는 사람들 때문이지.” 이들은 자신들을 노숙자가 아닌 떨꺼둥이라고 부른다.

최씨는 회현역 노숙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박모(72)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육군 대위를 지내고 외국영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박 할아버지. 그가 노숙자로 내몰린 것은 바로 가정파탄 때문이었다. “저 영감, 큰 아들 죽고 나서 부인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했다는구만. 자식들 학대에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곳이 회현역이야.”

노숙자 서너 명이 술판에 합류했다. 젊은 노숙자 권모씨(25) 이야기는 가슴을 시리게 했다. 길거리 생활 7년을 맞는 권씨.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 돈이 없어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지방에서 K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업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97년 IMF는 권씨의 꿈을 송두리 채 꺾어 버렸다.

신용불량자 김모씨(38),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강모씨(46), 2급 신체장애인 서모씨(54),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하고 온 정모씨(47). 이들도 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저마다의 사연을 털어놨다.

밥거르면 안돼 … 술만 먹다가 죽었거든

한 두 시간 잤을까. 요란한 굉음을 내며 올라가는 지하철 개찰구 샷터 소리에 깨어보니 새벽 4시30분이다. 덮고 있던 신문지가 무겁게 느껴졌다.

일어나자마자 노숙자들이 달려간 곳은 화장실. 세면하기 위해서다. ‘좌장’ 박 할아버지가 세면을 마치자 기다리던 노숙자들이 씻기 시작했다. 씻는다기 보다 눈꼽만 때는 수준이다. 오랜 노숙생활의 찌든 때는 그대로 였다. 제일 먼저 최씨가 라면박스와 신문지를 주섬주섬 챙겼다. 오늘도 이들에 의지해 밤을 나야하기 때문이다.

아침 7시. 수원행 전동차에 올랐다. 최씨가 소개시켜준 박 할아버지를 따라 수원역 근처 교회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손톱 밑을 파고든 새까만 때, 찌든 때로 전동차 불빛에 반짝거리는 옷깃, 구멍 나고 찢어진 바지, 이곳저곳 아무렇게나 눌려버린 회색빛 머리. 승객들이 노약자석 근처에 모여 있는 우리를 보자 코를 막고 저만큼 물러선다.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할아버지는 노숙자들의 하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숙자들이 주로 아침 6시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을 먹거나 수원, 성남 야탑역 근처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꼬지를 하러나간다고 했다. “점심도 교회에서 무료급식으로 때워. 그리고 각자 흩어져 다시 구걸로 돈을 번 다음, 밤 8시에 서울역에 모여 술판을 벌이거나 자는 게 하루 일과야.”

박 할아버지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잘 먹어야 돼. 조금 멀다고 해서 밥 먹는거 게을리 하면 안돼. 올 겨울에 젊은 놈 하나가 밥 안 챙겨 먹고 술만 퍼먹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어. 시체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해부용으로 실려 갔지.”

수원 ○교회는 아침을 먹기 위해 찾아온 노숙자들로 붐볐다. 컵라면과 김밥. 얇고 가는 김밥은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만이 속을 채우고 있었다. 서울역, 을지로역, 시청역, 종묘공원, 영등포역 등에서 몰려온 2백여 노숙자들은 한끼 식사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연신 ‘아멘’을 외치는 박 할아버지에게 개신교 신자냐고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대뜸 “술이랑 밥이 부처고 하나님이지”라며 김밥을 입속에 우겨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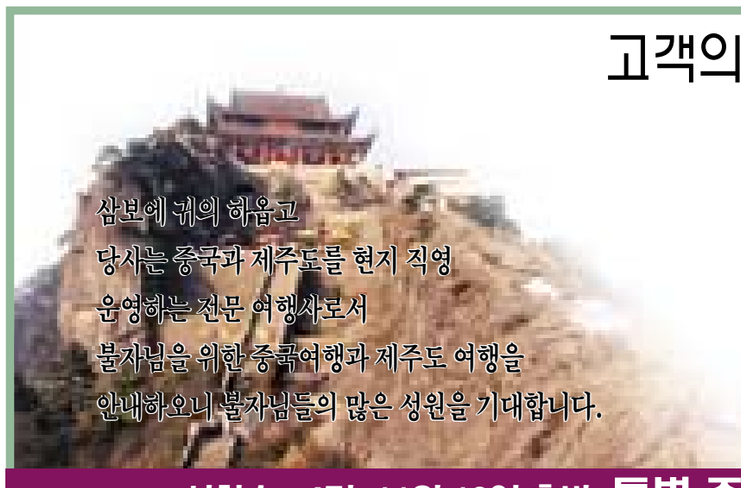
차 부서진 것만 속상하겠지

교회에서 끼니를 때운 노숙자들과 함께 간 곳은 금정역. ‘꼬지’를 위해서다. 교회와 성당들을 빨리 돌기 위해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8차선 대로를 그냥 가로질렀다. 보기에도 아찔하다. “위험한 거 알지. 이렇게 다니다 차에 받치면 그냥 죽는 거야. 가족이 없어서 보상도 못 받아. 우리 보다는 자기들 차가 부서진 것이 더 속상하겠지.” 서씨의 말이 서럽게 들렸다.

이들이 꼬지를 통해 하루에 버는 돈은 고작 4~5천원. 이나마도 오전 11시까지 역 주변 모든 교회와 성당을 돌아야 벌 수 있다. 교회는 대개 5백~1천 원을, 성당은 2백 원을 노숙자들 손에 쥐어줬다. 이들은 이 돈으로 소주를 마신다. 이젠 사회도, 떨꺼둥이 자신들도 무감각해진 ‘거리의 삶’. 그렇게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언제까지인지조차 모르면서.

글=김철우 · 이동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 (주) 행복만선 Tel.02) 720-8489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나만의 중국 자유여행 - 항공 + 호텔〉
1. 금요일에 출발하는 북경 3일 29만원 2. 목요일에 출발하는 북경 4일 34만원
3. 금요일에 출발하는 상해 3일 29만원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선착순 : 4명 11월 12일 출발 특별 중국 성지 순례 7일 – 파격가 99만원 소주 / 보타산 / 낙가산 / 황산 / 구화산 / 상해

"수능 스트레스 훌훌 털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보기, 평소 보고 싶던 책읽기, 친구들과 여행가기 등등. 한 여고생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있는 것들은 다름 아닌 '수능 후 해야 할 10가지'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수능이라는 혹독한 관문을 통과한 고3학생들. 비록 대학입학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잠시 학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청소년수련관과 종립학교, 청소년관련단체들이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고3수험생을 위한 수련캠프

내면의 세계를 찾아 고즈넉한 산사로 떠나보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마음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선무도, 명상, 소리체험 등의 심신수련활동과 다도예절학습, 낙산사 견학 및 문화재 탐방활동, 진로·성격검사 등 다양한 인성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낼게 아니라 명상, 참선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잠재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수련캠프는 11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낙산사와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02)723-6165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

영어나 일어의 구사가 가능한 학생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주목하자. 한국스카우트가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한·일의 꿈과 미래 'Dream&Future of Korea-Japan'은 한·일 양국의 고3학생들과 대학생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문화체험 행사이다.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국내에 있는 사찰, 고궁, 박물관 등지를 돌아다니며 우정도 쌓고 문화체험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02)6335-2000

●기타 프로그램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11월 16일 코스튬 플레이와 26일 락콘서트를 수련관 내 유스텍에서 진행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051-513-4306)는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11월 16일 동의공업대학에서 개최한다. 또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051-868-0750)은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터넷예방교육, 열린노래방, 자원봉사기본교육 등 7개 일일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02-2667-0876)는 일하며 여행하는 체험활동가를 위한 '제1회 워킹홀리데이 박람회를 11월 22일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밖에 일반학교들에서는 수험생들의 심신을 풀어주기 위한 가을 수련회와 단체영화관람 등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심신수련캠프 18일부터 낙산사서
경제관념 정립·메이크업 강좌 열어
한·일 고3 학생 한국문화 체험행사

●性, 미래직업, 경제학 등 다양한 강좌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한다던데…. 10년 후에는 생명공학직종이 유망하다? 신문을 펼치니 온통 모르는 것들 투성이다. 능인고등학교와 해동고등학교 등 종립학교들과 청소년수련관들이 고3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다. 능인고등학교는 건강관리 및 미래직업 안내 강좌를 마련 중이며, 해동고등학교는 인근지역 박물관 및 공연장 등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열린학교(02-806-1377)는 학생들의 경제관념 정립을 위한 신용불량자 예방 프로그램과 메이크업 강좌를 마련하고, 수성구청소년수련관(053-741-1441)은 고3 문화축제를 열 계획이다. 또 목동청소년수련관(02-2646-6815)은 학교단위의 신청을 받아 고3학생들을 위한 성교육강좌와 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전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全佛人세미나' 선후배 연결 고려



◇창립 40주년을 맞은 지난 2001년,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과 재학생들이 기념법회 및 연등제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천운스님·교수 등 30여명으로 법사단
문화답사·체육대회로 동문 참여 유도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만드는 불교공동체, 부처님오신날이면 교내를 연등 물결로 만드는 동아리. 아예 '우리는 부처님 가족'이라며 신행 연대감을 자랑하는 불교학생회. 지난 60년 창립이후, 광주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의 모토이다.

전남대 불교학생회의 자부심은 단연, 선후배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불인 합동 세미나'.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80년부터 재학생과 동문들이 불교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열띤 토론의 장을 벌어진다. 또 선배들의 구도 열정을 듣는 자리가 마련돼 재학생들의 신심을 다지는 기회도 갖는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역사는 2001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기수별 동기모임, 광주지역 재향 모임, 재경동문모임 등이 전국 단위 동문회로 결집되고, 총 700여 명의 동문 주소록 등이 작성되는 계기가 됐다. 또 연말에 있는 졸업생 환송회를 '가족의 밤'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동문회를 재조직하고 회장단을 구성해 2002년에는 광주 무각사에서 첫 동문법회를 봉행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내년부터 월별 동문법회를 꾸준히 열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문회는 이와 관련,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전남대 이중표 교수 등 총 30여 명을 법사로 위촉, 법사단을 결성한다. 또 법회도 프로그램도 문화답사, 보성차밭 체험, 체육대회 등 다양화해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비 자동납부를 추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재학생 장학금 및 행사지원, 동문회사업 추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조기정 회장은 "앞으로 졸업생 취업 알선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재계, 학계, 공직, 법조계 등에서 활동 중인 동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재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신행활동 여건을 마련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윤청하 前 종무실장·이중표 교수 등
43년 동안 불자 동문 700여명 배출


◇윤청하 동문


◇이중표 동문

지난 60년 창립한 전남대학교 불교학생회는 43년간 배출한 동문만 7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동문들은 공직·학계·불교계·재계·언론계·출판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직에는 박찬주(65학번·중앙정부청사 법제처), 윤청하(66학번·문화관광부 전 종무실장·사진), 김상준(74학번·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과) 등이, 학계에는 최인선(70학번·전남대 의대 교수), 임정식(71학번·원광대 의대 비뇨기학과 교수), 박병림(72학번·원광대 생리학과 교수), 배춘상(72학번·전남대 해부학과 교수), 이중표(73학번·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 최옥자(75학번·순천대 가정교육학과 교수) 등이 있다. 또 의료계에는 이순규(59학번·이신경정신과의원), 반승일(63학번·서민정형외과의원), 서치장(70학번·영광종합병원장) 등이, 불교계에는 박남철(79학번·광주능인불교문화원장), 강동훈(81학번·불교방송 보도국) 등이 있다.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유동선(현대불교신문사 편집위원), 한명우(〃 차장), 김재경(〃 차장), 최정근(〃 차장), 천미희, 박재완, 고영배, 김주일, 강지연, 김두식, 권형진, 남동우, 김철우, 여수령, 박원구, 이동혁, 김은경, 오유진, 정희숙, 김현실 이상 1구좌.

10월 30일 현재 총 2,829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바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고등역술 육임(六壬) 수강생 모집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효사숙」제 7기 ● 한국육임학회 홈페이지 : www.taotemple.net

●六壬학당 **「효사숙」 제 7기** 육임학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학습기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3개월 13주 52시간 이며 음양오행의 기초를 모르는 분들은 본 강의 전 2시간에 걸쳐 사전 교습 받게 됩니다.
●六壬은 사람의 일(人事)을 밝히는데는 따를 학문이 없다고 하여 옛부터 오술지중 제왕(五術之中帝王)이요, 신시(神示)라고 했습니다.
●오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했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기 일쑤 였습니다.
●**방문(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등 20여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주게 되는** 최고 제일의 고등한 오행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 운로(運路)를 따지는데는 **사주(四柱)**만한 학문이 없습니다만 **당장의 절박한 길흉성부(吉凶成否)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판단하는데는 六壬을 능가할 학문이 없습니다.** 사주는 농경사회의 정서에 부합되는 구조이고, **六壬은 치열한 이 시대의 다양한 의심사등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활인천역의 공부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먼 훗날의 일을 물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면사가 **될지 안될지 할지 말지** 등의 길흉을 물으러 온다는데 있습니다. 좀더 확실히 말하자면 사주공부 10년을 해도 갈급(渴急)한 목전사(目前事)를 딱 딱 부러트릴 수 있기가 힘듭니다. **사주명리학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임에서의 이런 것들은 기본차원이어서 쉽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또한,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누가 무엇 때문에 올것이며 그 일이 어떻게 전개 될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감지하여 미리 밝혀 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꼬이는 일과 질병에 관련하여** 지금 **어떤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지금 **무슨 부정빌미가 들었는지,**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 등을 정확히 먼저 지적하고 그 해소법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六壬史를 통해 검증되어 있는 六壬만의 영험입니다.六壬에서는 이를 **「형이상법」**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六壬을 공부하면 가히 오행(五行)을 완성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한문(漢文)을 몰라도 되고, 오행의 기초를 몰라도 오히려 六壬의 장점을 크게 습득·활용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육임학당「효사숙」강주 曉史선생께서는 **「육임래정비법」,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육임운명 판단법」, 「육임비요형이상법」, 「육임비디오강의」, 「육임래정비법CD」, 「육임신수비결」,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胎覓일·시선택 분만비법」, 「육임래정비법 日語版」**등 12권의 육임서를 저술하여 그동안 비선(秘線)으로만 전달, 우리 활인천역자들의 실력을 크게 고양시킨 분으로서 3년전부터 육임강의를 시작하여 전국에 육임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입니다.
●**이 시대는 六壬이 절실한 시대요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직설(直舌)하는 六壬家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대 전기를 위해 여러분을 「효사숙」제 7기로 초대합니다.**



● 강 사 : 鼓卜子 曉史
● 강의시작 : **11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기초 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 등록마감 : **10월 31까지 방문, 입금 하신 분**
● 정 원 : 30분
● 등 록 비 : **일백 오십만원**
● 교 재 : 효사육임강의록 上(학습서) · 下(활용서) 값 410,000, 무료증정(본회 학습교재)
● 장 소 : 수유리 강북구청 왼쪽 옆 일심건물 4층 「육임학당 효사숙」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 특 전 : 수료후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실기 강의」를 지속적으로 무료 수강하게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알려 드리오니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육임「지두법」과「길흉속지법」몇가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간판을 달게 해 준다고 사칭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있는 행위
2.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육임을 신통하게 가르쳐 주겠다며 수백만원에서 부터 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행위
3. 육임서적 구입자 명단을 갖고 신상 정보를 사전 파악한 후 찾아가 잘 맞추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출처불명의 책자를 파는 행위
4. 육임 단식법 몇가지를 알아 선생으로 자처하며 사람을 모으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효사숙」외 「부산숙」「대구숙」「광주숙」「전주숙」「진주숙」「인천숙」「강남숙」(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 외에는 제가 강의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육임래정비법 을 낸 3년전 초창기 뭣 모르고「책 설명 강의」를 좀 했었는데 저로인해 이처럼 큰 해악들이 있게 되버려 전국에 계시는 현인 기사 이인 각 위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 송구합니다. 늦게나마 사죄 드리오니 혜량 하시기 바랍니다.
효사 배상.

● 육임학당「효사숙」外 曉史선생 전국 육임 直講 일정 ●
■ 서울 매주 금요일「효사숙」02-993-8680 ■ 서울강남 매주 토요일「강남숙」02-996-3335 ■ 전주 매주 일요일「전주숙」063-284-7714 ■ 광주 매주 월 요일「광주숙」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진주숙」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부산숙」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대구숙」053- 624-8680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 회원 실기 지도강의」가 본 강의 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993-8680 / 02-998-8683 담당 : 정 주연 사무국장 ● 입금계좌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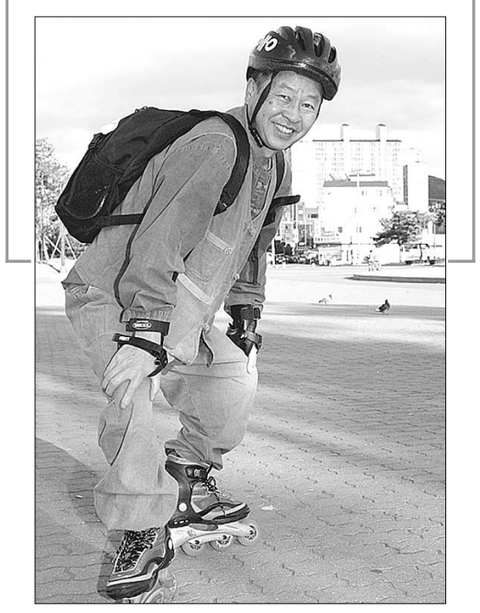
여가시간은 포교·수행의 또다른 기회

취미생활로 삶의 활력 찾는 일터불자들

젊음의 만끽. 고스란히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일터를 불국토로 일구는 직장인 불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일과 신행의 두 바퀴를 거뜬히 굴리는 것은 기본. 젊게 사는 직장인 불자들이 일러주는 비책은 다양하다. 인라인 스케이팅에서 스킨스쿠버에 이르기까지 직장불자회 터줏대감들이 털어놓는 발상의 전환이 신선하다. 여가 시간을 포교와 수행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불교가 좋아 일터 불자회를 가꾸고 이끄는 이대병, 정후시 불자가 멋지게 쉬는 현장을 찾아갔다.

이대병 포교사

운불련 안양지역회 고문



"운동 통해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불교 부담없이 알려요"

#1. 인라인 스케이팅에서 젊음을 배운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 고문 이대병 포교사(55·법명 진성). 10월 28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만난 이 포교사는 생활한복 차림에 인라인 스케이팅 장비를 착용하고 나왔다.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젊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란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인라인 스케이팅을 배운 지는 1년, 지난해 9월 수원 인라인 스케이팅 동호회 가입, 매일 오후 2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인라인은 젊은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자연스런 대화는 불교를 부담 없이 알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교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운불련 현역 최고참, 1994년 연합회 창립 주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조계종 포교사, 대승종·여래종 법사인 그가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는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2. 스킨스쿠버로 불교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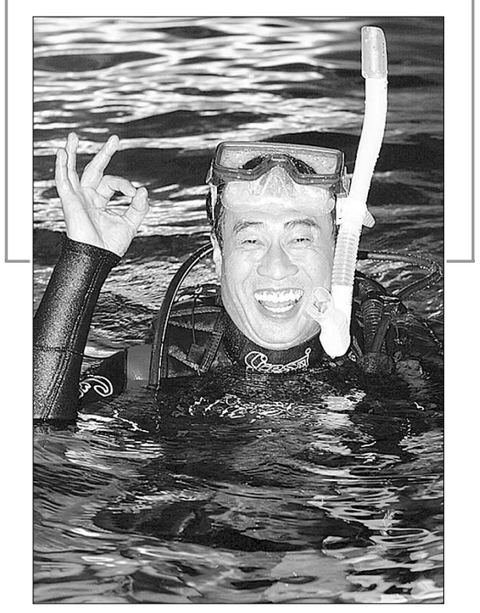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청 불교민원 담당관 정후시 불자(52·법명 혜법). 관내 스님이나 불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동료들이 제일 먼저 정 불자를 찾는다 해서 생긴 직함이다. 사실 구청에는 이런 직책은 없다. 정 불자가 불교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3년 전에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기획 간사를 맡으며 연합회 향후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10월 28일, 잠실롯데 수영장 스킨스쿠버 풀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궁금했다. 직장불자회의 활동도 모자라, 스킨스쿠버까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돌아온 말은 의외였다. 부처님이 좋아서란다. 스킨스쿠버가 부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물 속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고요함과 무중력 상태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그야말로 스킨스쿠버는 불교의 또 다른 수행이에요. 호흡 조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산소통으로만 호흡을 하니, 수식관이 절로 된다니까요."

정후시 불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기획간사



"물속의 고요함·평온함 불교수행에 훌륭한 환경 수식관 저절로 되지요"

정 불자가 스킨스쿠버를 배운 것은 지난해 4월. 계기는 이랬다. 구청업무와 신행생활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싶어서였다. 이제는 스킨스쿠버로 불교를 즐기게 됐다고 말한다.

글=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철도사랑 꽃꽂이 전시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조진규·사진)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북역에서 (사)보림예술꽃꽂이회 초청, 철도사랑 꽃꽂이 전시회를 열었다.



직장불자의 수행법 특강

우리은행불자회(회장 정진호·사진)는 1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직장불자의 수행법'에 대한 특강을 듣는다.



추계 야외법회·성지 순례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사진)는 9일 경북 봉화군 청량사로 추계 정기 야외법회 및 성지순례를 떠난다.



법우회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사진)는 20일 암사동 동명불원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법우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주 갑사 등 사찰 순례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불자회(회장 김기화·사진)는 10월 26일 공주 갑사, 신흥사 일대로 가을 정기 사찰 순례 법회를 봉행했다.



창립 21주년 기념법회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정철규·사진)는 14일 조폐창 자체법당 금강원에서 창립 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대구 보리사 주지 증악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우리불자회는요

농협중앙회 불자회

"하하. 농협에 근무하지 않는데…. 안녕들 하시죠. 주경스님입니다. 가입환영인사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메뉴얼이 있어서. 벌써 많은 회원이 가입했군요. 우리 불자님들의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넉넉한 카페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경 합장."

"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법회에서 스님의 팔정도에 대한 설법을 가슴깊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와 스님의 글을 접하니 무척 반가워서 얼른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카페 운영(http://cafe.daum.net/nacfbuda) 게시판에서>

최근 문을 연 우리 농협중앙회 불자회 카페에서 퍼 온 글입니다. 스님과 불자회원의 글에서 진한 법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나 늘 그렇듯이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처럼 살기를 서원합니다. 또 불심으로 신토불이(身土不二) 정신을 실천하려는 것도 우리 불자회의 원력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지난 1994년 2월에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기법회는 매주 한 차례 농협중앙회 내 회의실을 이용해 불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우리 불자회의 자랑입니다. 가끔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법사를 초청해 특별법회를 열어 감로법문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성지순례도 실시해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도 빠트릴 수 없는 우리 불자회의 신행활동들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신행과 더불어 포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행담, 생활과 밀접한 법문,



◇농협중앙회 불자회원들이 매주 회의실에서 불교경전 공부를 하고 있다.

불심 바탕 신토불이 정신 실현 위해 노력

농협불자련 구성 … 권역 불자회를 하나로

쉬운 불교교리 그리고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회보 <불이문>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농협 곳곳에 비치, 농협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현재 경남, 부산권의 농협불교회, 충청권의 농협불교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자들을 하나로 조직해 전국 농협불자연합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모아 직장불자회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신행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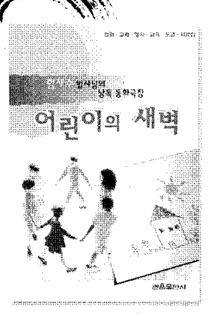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인과응보의 원리와 권선징악의 진수를 다룬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학가 함재수 법사님의 주옥같은 법회교재 결정판!

함재수 법사님의 낭독 동화극장
어린이의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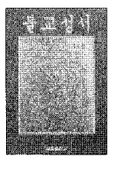
'어린이의 새벽'은 아동문학을 법회 교재용으로 접목시킨 고귀한 6바라밀 금자탑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우리나라 포교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줄기 등불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사바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곱고 밝고 맑게 일깨우는 함재수 법사님의 혼불입니다.

법회교재 한 권 없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이 한 권을 사바세계에 남기고 가련다. 그 나머지는 후세의 몫이다.
- 함재수 법사님의 책머리 전문-

함재수 법사님의 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어린이의 새벽'이 한국 불교계에 새 지평을 여는 시금석이 되기 바랍니다.
-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林松山-

함재수 지음 / 신국판/ 384쪽 / 정가 9,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제1편 : 부처의 생애, 제2편 : 부처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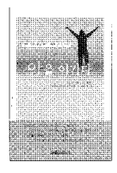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와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감쓤
· 불교란 「삶의 바른 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아키 감수, 미아나가 요시아키 지음 · 사륙판 · 190쪽 · 양장본 · 값 12,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경우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 선정과 종목의 세분화, 정부차원의 지원 등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영산재는 지난 5월 일응 스님이 입적함에 따라, 영산재 1세대라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2세대 기능보유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기능보유자의 선정은 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교육을 위해 가능한 지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유자 선정이 미뤄져 70~80년대의 이수자와 전수자가 지금도 이수자와 전수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송암 스님, 일운 스님 등 보유자가 열반할 때마다 문화재청에 보유자 선정을 요구해 왔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영산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선행 조사를 이유로 보유자 선정을 미뤄오고 있다.



◇지난 6월 봉원사에서 영산재 보존회가 영산재를 시현하는 모습. 영산재의 보존 · 전승을 위해서는 기능보유자 선정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시급

영산재 종목 세분화… 2세대 기능 보유자 선정
전승 위해 후계자 조속 지정 · 정부 지원 필요
문화재청 소위구성, 보존 · 전승 활성화 과제 검토

또 영산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정종목의 세분화다. 실제로 판소리의 경우에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에 기능보유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 영산재는 작법만 해도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로 나뉘고, 발우공양에 준비되는 반찬 등 사찰음식도 무형문화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영산재보존회 연수 부원장)은 "현재 범패, 장엄, 작법으로 나뉘어 있는 영산재는 범패만도 짓소리 · 홋소리 · 안채비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며 "영산재를 세분화해 기능보유자를 선정하면, 보다 원형에 가까운 영산재 보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정부차원의 불교무형문화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 육성이 요구된다. 무형문화재의 종목을 세분화할 경우 이를 평가할 전문위원과 문화재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내의 위원 · 전문위원들 가운데 불교의식 전문가는 박범훈(중앙대, 불교음악작곡가) 교수 한 명뿐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보유자에 선정되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복수보유자 선정으로 인한 계승형태 차이와 유파(流派)형성 문제, 전승 취약 종목의 발생 등이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영 · 관리를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꾸려진 소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내의 예능, 공예, 민속 관련 문화재위원과 외부 전문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발전적인 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 · 제도의 개정 · 보완이 필요한 장기적 개선과제와 운영방법의 변화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 등 장 · 단기 과제로 분류해 전승자와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이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분류체계 합리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 보유단체 지정 · 인정제의 효율적 운영 △복수보유자 인정에 따른 전승문제의 개선 △전승 취약 종목 등 종목 간 전승의 불균형 해소 △전승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주요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 ·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한국 전통 무형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줄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1년간의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2005년 이후, 어떤 무형문화재 제도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禪으로 알콜중독 치료한다
분노 불안 조절 · 인내력도 향상
한국선문화학회 월례회 … 김준홍 박사, 임상결과 발표

알코올 중독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 치료에 선(禪)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11월 1일 한국선문화학회 제2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준홍(대구정신병원 진료과장) 박사는 '알코올 중독치료와 선(禪)'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선의 의미와 활용을 AA12단계와 비교한 임상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집중력 배양, 충동 · 분노 조절, 인내력 배양, 불안감 감소, 자존심 증가 등을 목적으로 선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20분씩 아침마다 선을 실천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치료 가운데 자기반성, 성격적 결함의 인식, 타인에게 끼친 해를 보상,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등 네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AA12단계는 불교의 팔정도와 비교된다. 김 박사는 "AA12단계가 팔정도와 참선, 대승사상이 포함돼 불교의 수도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며 "예를 들어 AA12단계 가운데 1단계는 팔정도의 정견(正見)에 해당돼, 자신이 알코올에 무력하며 생활처리능력이 없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강원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팔정도는 수행 단계가 아닌 수행 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AA12단계의 각 단계에 팔정도를 대입하기 보다 팔정도를 기준으로 AA12단계를 비교 ·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 연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실험연구 설계를 통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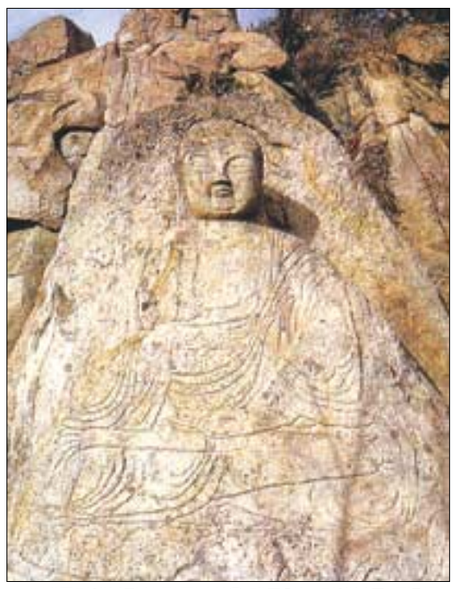
오유진 기자



불 상(13)

중대경소(重大輕小)

경주남산을 답사한다면, 삼릉계곡(냉골)의 코스가 핵심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불상을 보고 경주남산의 묘미를 맛보기에는 이 계곡이 그만이다. 이 곳에서는 바위만 보아도 부처님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곳곳의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아담한 크기의 마애관음보살상을 시작으로, 남산을 찾은 이들에게 경건함을 일깨워주는 목없는 석불좌상, 경주에서는 가장 영험하다는 선각 육존불, 팽팽한 긴장감의 관능미를 보여주는 코가 깨진 석불좌상, 그리고 옆집 아저씨와 같은 선각여래좌상으로 이어지다가 웅혼한 기상의 냉골마애불상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상선암에서 막을 내린다. 삼릉계곡의 불적은 다채로움과 박진감으로 가득한 '불상의 교향곡'이다.



◇냉골마애불좌상 경주남산을 대표하는 마애불로, 평면적인 몸에서 입체적인 얼굴이 강조되어 있다.

원만한 모습 · 눈매 시원한 냉골 마애불상
얼굴은 양각 · 몸체는 음각 … 불성 더 강렬

이들 가운데 삼릉계곡의 절정이자 꽃은 냉골마애불상이다. 앉은 키 5.21m의 큰 규모에 반쯤 하늘에 걸치고 있는 냉골마애불상은 그 위용이 장관이다. 높고 탁 트인 터에서 멀리 시선을 두고 있는 부처님의 자태를 보면, 경주의 시민만이 아니라 극락에서 온 세상을 제도하려는 큰 뜻을 품은 아미타부처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불상은 원만한 얼굴에 시원한 눈매를 갖고 있고 지그시 다문 입술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머금고 있어 한층 위엄이 넘친다.

그런데 그 표현기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얼굴은 돋을새김으로 입체감이 충만한데, 몸과 광배는 음각 선으로 새겨 평면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고 선각으로 표현된 평면적인 몸체가 결코 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조각과 회화의 만남이다. 조각적인 얼굴과 회화적인 몸, 서로 이질적인 조형요소가 부딪침으로써 오히려 불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거대한 마애불에서 몸체를 약화시키고 불성이 집약된 얼굴만을 강조하는 기법은 대중들을 교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과연 이러한 기법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신라불상에서 찾아보면,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굴불사지 사방불의 동쪽 약사불이 이러한 기법의 원조격이다. 그런데 이 기법을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조망하면,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 고구려 삼존불상을 보면 불상은 크게, 보살상을 작게 나타내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그렸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의 미술이나 종교미술에 나타난 중대경소(重大輕小)의 스케일 개념이다. 그리고 중대약소의 크기 인식이 볼륨으로 환원하면, 바로 중요한 것은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통일신라 말 마애불에서 나타난 이러한 기법은 고려시대에도 성행하여 마애불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스님! 승복 색상과 같이 신발도 품위있게 제작



남여공용 성불화



과학적인 개발기간 2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룸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메카인 (주)룸비니 신발공학센타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만든 성불화룸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층은 물론 골퍼들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도 않지만 어디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것이 안타까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라도 사드리려고 하던 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 사는 70대 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까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사용

천연방수가죽 뉴벅은 천연가죽중 최고급가죽으로 대단히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 미국, 일본, 유럽에서 최고급신발에만 사용하는 가죽으로 상류층에서 최고급신발로 통한다.

눈, 비올때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밑창을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완벽한 미끄럼방지 기능과 접지력과 착지력을 강화했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하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발에서 감격한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탄산하게 만든 것이 돋보인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싸이즈별로 제조됐으며 전화로 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 어디나 우체국택배로 정성껏 보내고 있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 (02)722-2890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살이 빠져요
한국특허 제 0239854호
미국특허 제 5974699호
일본특허 제 3027143호

스타필드 국내 첫 시판

1시간 걷거나 뛰어도
3시간 운동효과
월2kg 감량 OK!



▲착지시 착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평지걸어도 등산하는 효과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에만 수출하던 신발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스타필드 운동화가 국내시판에 들어가 시판 3개월도 안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비만의료신발로 우리돈 27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은 다이어트 조깅화로, 일본에서는 다이어트신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유종만」 교수는 스타필드 신발은 뒤축이 15°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평지를 걸어도 산에 등산하는 것과 같이 운동량이 배가 효과가 있으며 젊은 착용기간에도 충격 지구력 트레닝과 근력트레닝의 탁월한 운동효과를 나타내 운동할 시간이 없는분은 물론 일반인과 운동선수들에게도 필요한 제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트레칭 효과 각선미 살려

스타필드는 다이어트 보행자세로 알려진 발중심-발앞끝 코행이 가능하도록 뒤축을 15°정도 높게 설계해 몸의 균형과 허리를 반듯하게 잡는 효과가 있으며 신는 순간부터 운동효과를 배가시켜 다이어트는 물론, Z-선미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또, 발앞끝 착지 때에는 발바닥의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보행에도 피곤치 않고 회상의 컨디션과 뒤축에 심리는 체중을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입간화를 착용했을때 보다 35%까지 감소시켜 준다.

운동역학적 설계로 세계시장 석권

스타필드를 신어본 이들은 한결같이 스타필드의 운동효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필드는 운동부족고 영양과잉 섭취 등으로 비간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뒤축15° 없어 3cm 커보여

또한 뒤축이 3cm가 떠있어 키가 작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3cm 키가 커보여 키작은 고민도 해소된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제조회사인 삼덕봉삼(주)에서 제작된 스타필드는 국내판매는 (주)헬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225mm~300mm까지 제작되어 전화로 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어디나 우체국택배로 보내고 있다. 가격135,000원

문의전화 : (02)2271-1441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공양주 구함
월보시 100~120만원
몸이 불편한 사람 환영
가정집식 도량
신도없슴, 스님 3분
나이 : ~50세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02-384-5060

전통의식,각종행사, 천도재,점안식,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제의식,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효자사 혜성 합장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 주
011-744-1650

구병시식, 영가천도, 빙의천도 전문
구병시식, 천도재 및 불교의식 강의
봉천동 혜명정사
02-889-2456

유 명 침 구
♥ 저의 업계는 침구류 제조 업계로서 제 상품은 물론 사용하시던 제품을 보료, 방석, 이불, 요, 솜을 살균 소독 재생하여 맞춤,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998-1717. 011-702-2015
02)999-1717. 011-320-6296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용암사
02-387-3216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비구니(40대)스님 모십니다
단, 사찰은 개인사찰로써 스님이 연로하셔(69세 비구)장래사찰을 양도해줄 건실하고 성실한 비구니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찰 재정은 건실함
동양철학을 아시는 분이나 포교에 관심있는 분
041-337-6348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
목,어깨,허리,골반의 통증은 3~4일이면 잡을수 있다
모든 통증은 척추가 뒤틀리면서 평행이 깨어져 생겨나는 것이다
척추를 바로 잡아야 통증이 사라진다
특이 비방을 배우실분 환영
한국활법대구교육원
02)982-3658/011-804-3658

암자, 포교당 같이 운영할 스님, 법사, 보살님 모심
(단, 적립금 2천5백만원 보관 필요)
암자, 포교당은 서울과 의정부에 있음. 10억 들었음
02-3436-0797
019)9108-090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전북 부안
www.hewonsa.or.kr
daum까페→혜원사
063-584-5710

스님을 찾습니다
· 법명 : 유용호 · 속명 : 유동우
· 고향 : 강원도 황지로 알고 있슴
찾는분 허남옥
· 헤어진지 26년됐슴.
이 글을 보시면 스님 꼭 연락주세요
02)494-5527

時間易法
사주없이 시간만으로 간편하고 쉽게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 할수 있는 時間易法을 개인지도합니다
016-366-9182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기맑고 숲이 있는 정법 도량입니다
▷대 구
011)9317-9181

아파트룸에 입주하실 평생회원님을 모십니다
동안거 결재대중 모십니다
출가하실 (남 · 여) 행자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취운선원
055)383-6479
055)382-8348

창건사찰에서 주지 소임 보실 스님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259-5989

九星學
신비의점술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
저자 직강
011)340-1472

진흥 단식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산좋고 물좋은 곳 요양할 수 있음
사찰에서 운영하는 곳
054-874-4670
011-534-4670

체력보강제와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위장,설사,하복통,구역질,소화계통일절,오래된위장병,체력이약하신분자신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각 의식 행사에 임시 스님 필요한곳(전화요망)
- 천도재, 49재, 각종 시식, 점안의식, 상가 염불, 각종 불공, 민속학 등
- 범음 범패, 바라춤, 나비춤, 각의식, 염불 배우실 스님 모집中
02-939-3327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콕 !
찝어내는 오방철학관
☎ 02)763-5678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한새올 – 생활법복, 승복
생활법복과 승복전문
제조사 한새올에서
전국대리점 및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www.hansaeol.com
051)644-6624
017-544-6020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전통 침 · 뜸 세미나
◆ 중국연수(요녕성 중의연구원) 입학자는 무료로 수강
◆ 개강 : 11월 19일 (수) 오전 11시(공개강좌)
◆ 의료 봉사를 원하는 단체에게는 무료로 봉사합니다
★ 중의 침구학 연수를 위한 세미나★
-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과, 중의과 결업(졸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슴
★ 과목 : 체침(전통침),구법,부항요법, 이침, 양도락기,특수특종침,활법,피부관리,대체의학,마사지 등
★수업기간 : 매주 1회 오전 11시~오후 5시
관광포럼 · 중국문화원 02)456-4248~9. 016-221-4516

봉은 불교 미술원 – 탱화전문
▶전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감로탱 관음(천수천안)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
▶먹탱화 옹탱화 ▶무속증압탱(각종 즉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1구 493번지
041)541-3545,3547. 016-751-3545
www.bongen.pe.kr/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택

사찰 옥(玉) 불교용품 (제작.시공) 귄
◆ 옥불상제작 - 삼존불, 만불전, 산신상
◆ 사찰시공전문 - 옥석탑 및 옥구조물 제작
◆ 설계조경시공 전문 - 옥 · 석 납골함, 황옥석재
하나무역(주) 전화 : 053-962-3986
하나석재상사 휴대폰: 016-808-3986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상담하세요
02-826-5067(명리학 사주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은
몸은 아픈데 병명이 없고 하는일에 침체가 많다
부부간에 정이없고 다투기를 잘한다
자녀가 시험볼때마다 실수를 잘하고
아는 문제를 잘 틀린다
자녀의 결혼운이 안좋으며
자녀와의 의견충돌이 심하다
이상은 명리학으로 판단하므로
굿이나 부적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매 화 역 수 강 좌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으로 운명을 관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느분이나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명리학 수준이 최고위 과정까지 업그레이드 됩니다
▶ 개강 일정 : 2003. 11. 7 주1회 금요일 (1개월 완성) - 09:30~12:00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 장소 : 화암빌딩 402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사암침술학회 011-307-2975. 02)2267-9136

정 통 풍 수 지 리
▶ 강좌 : 매주 수요일
주간반 : 오후 3~5시
야간반 : 오후 7~9시
[현장지리풍수] 저자 직강
▶ 관산 : 매월 1, 3째주 일요일
▶ 업무안내
전국 유명 명당(穴) 상담
풍수컨설팅및음,양택감정
저희 학회에 오시면 많은 혈처를 관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www.poongsoo.net. www.jiripoongsoo.com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눈물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 강화
다른 질병관련 시력 저하된 분
경전을 많이 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눈밝은세상 (02)2237-8004
전국지사 대리점모집 – 홈쇼핑 홍보준비중
제품정보:http://eye88.hihome.com 한글주소 : 눈밝은세상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화상방지용 전통 氣항아리 부황
■ 실용실안출원등록 (03-21028) ■
⊙ 제품 특징 ⊙
▶ 본제품은 전통항아리 부황의 단점인 화상의 문제점을보완, 화상방지용 특수관지로제작 되어 부항시술시 화상을 입지않고안전함
▶ 氣 제품으로 특수 제작되어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몸 안에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과 내장기능 운동을 활성화 시켜 진정 이완 · 반사 · 교정 · 효과를 극대화 시킴
▶ 현재 전국 유명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성황리 판매 영업중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하여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전문샵을 운영할 분 에게는 통증완화 알콜숙성 방법등 부항요법 무료교육



⊙ 화상방지 부황단면도 ⊙



⊙ 부황관자 SET ⊙

카히로힐링아카데미 cdhk0514@hanmail.net
031)792-8444. 011-9954-9534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사찰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70-2
● 용문사 포교원
● 전세 3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4층에 4층. 32평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1)9548-8667

산사의 포교당
● 위치 : 서울구로구 오류동
● 법당 : 20평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산신동불
● 요사채 30평 1동, 20평 1동
● 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등산로에 위치. 법회 즉시 가능
● 시유지 500평 점유
● 전세 4천(계약기간 5년이상), 시설비 3천
011)327-58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입구)
● 평수 : 39평
● 법당, 방2, 주방,욕실,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300만원
011)9238-6626
011)9399-8673

포교당 안내
● 부산 수영구 민락동 4층
● 크기 : 55평, 법당, 방 4개
● 주방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2500만원,월 70만원
● 도심속의 포교지
●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1)595-1522
051)759-9058

사찰 안내
● 대지 : 375평
● 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밀양,창원,김해에서 40분거리
● 가액 : 1억7천만원
055)521-1286
055)521-1236
011)9528-4026

사찰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70-2
● 용문사 포교원
● 전세 3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4층에 4층. 32평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1)9548-8667

춘천옥매트 홍삼메딕스



판매품
◆ 옥매트(진품)
◆ 홍삼원액
◆ 홍삼제조기

기氣 흐름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구증구포 전통홍삼 제조비법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옥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증숙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선기획
저렴한 경비로 인도성지를...
인도성지 배낭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1,2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5일(129만원), 1월 9일(139만원), 2월 12일
▶조건 : 항공료, 전용버스, 보험료, 숙식비 포함(10명 이상 출발) ▶불포함 : 비자대, 입장료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7일, 1월 7일,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12월 4일, 1월 3일,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1월 6일, 2월 12일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역사 깊은 도심 사찰임

- 위치 : 경북 청송 소재
- 부지 : 25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양도가 : 3억5천
※ 산세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밀양근교 사찰(백년 역사)
- 부지 1만4천평.대형버스 진입가능
- 납골당 사찰로 최적지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가까움
- 조계종 스님 승계 원함
- 가액 : 4억 5천만원

011)9318-323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매여동 팔공산 근처
- 4만2천평. 절터 있음
- 소나무, 밤나무 울창. 계곡 물 좋음
- 대구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4억2천만원

017)513-6544
053)564-6375

사찰(급)안내

- 조립식 건물
- 법당 28평, 산신각 4평, 창고 8평, 요사채 28평
- 가액 : 4천5백만원
- 건물보지 말고 도량만 보고 오십시오
- 1급수 물

031)531-5328

사찰 안내

- 위치 : 충주시 부근
- 법당 17평, 요사채 20평
- 신축사찰
- 가액 : 1억2천(절충가능)

019)9274-550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에서 10분거리임
- 대지 : 164평
- 건물 : 법당15평, 삼성각5평, 요사채 30평 (손볼것 없고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54)252-7749
017)803-7890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부 지 : 22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3억
※회동댐 상류

<토굴>
- 위 치 : 의령 군북
- 대 지 : 100평
- 인법당 : 25평
- 가 액 : 6천
※ 의령 IC에서 10분거리

<토굴>
- 위 치 : 남덕유산
- 부 지 : 약 2,000평
- 인법당 : 50평
- 가 액 : 2억2천
※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상계2동 시장 입구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삼존불, 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 일체
- 가액 : 1천 5백만원

011)202-8288
02)938-3567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음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불교용품점 안내

- 법복, 승복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물건모두합해서 4천5백만원
- 건평 18평
- 방1, 부엌, 살림 가능

018)570-12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안양전철역에서 2분거리
- 상가 4층중 3층
- 법당,삼존불,신중탱화,산신탱화
- 평수 : 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 시설비 :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31)448-5611
011)380-5611

인가된 교육기관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평수 : 약 375평
- 건물 : 강의실2, 사무실 1
- 특징 : 인가된3개학과 9개 전공설치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인가. 92년도 불교대학원과정 교육기관
- 가액 : 매매 2억

011)412-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김천
- 법당 : 13평
- 요사 : 30평
- 부지 : 335평
- 가액 : 1억7천

- 위치 : 강원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980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충남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13평
- 가액 : 3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011)713-5634

사찰 안내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산수가 수려함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하고 국도 1호선 4차선 도로에서 500m 지점 호남고속도로 옆
- 면적 : 25,195평
- 용도 : 사찰, 종중납골당, 가족묘지,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정신요양병원, 연수원으로 적합
- 특징 : 계곡이흐름, 전설에 나오는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 전면에 저수지가 있음, 정남향
- 가액 : 평당 11,000원

011)647-3500

종교시설 최적지

- 자연 녹지 9,300평
- 위치 : 경주 위덕대학교(진각종)와 접하고 국도 7호선(우회도로)상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가액 : 평당 2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소백산하. 소수서원 관광개발지 50m. 대로변 풍기에서 7~8분거리. 영주는 15분거리. 위치 좋음
- 대지 295평, 요사 24평(슬라브)
- 임법당 10평(기와). 산신각 2.5평
- 모텔이나 식당터로 아주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54)632-8177
016)675-232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여수시돌산읍내 105번종점바닷가옆
- 대지 : 507평
- 법당(2층), 28평(1층), 방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1억8천만원(전,월세 가능)

011)609-1106
011)9611-2717.062)529-2717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근교 사찰
- 부 지 : 840평
- 법 당 : 60평
- 건 물 : 200평
- 납골당 가능. 15억

- 위 치 : 서울 요지 포교당
- 면 적 : 35평
- 보증금 : 2천
- 월 세 : 50만원
- 시설비 : 300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동
- 전철 10분거리
- 상가건물 2층 독채 30평
- 건물새로단장. 신축건물
- 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몸만오시면됨. 현재 법회중

032)612-6917
016)290-6699

사찰(급)안내

- 후덕사
- 대지 : 전 200평
- 법당, 요사, 신축건물, 급매
- 앞에 1급수 냇가
- 절이 옛도량과 같이 좋음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사찰 안내

- 대전시. 현 계룡시
- 조계종스님에 한함
- 가액 : 3천만원

042)841-2195

토굴 안내

- 대지 150평, 밭 250평
- 임법당1, 요사채 2채
- 가액 : 1억2천만원 (시설비 포함)

011)9554-567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진주간 소재
- 대지 : 25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1동, 20평 1동
- 가액 : 1억 6천 500만원
- 산신각, 용왕단(자연수)

016)421-9154

사찰터 · 암자터 · 휴양지 · 별장터

- 장소 : 충북 단양 향산석탑 인근
- 임야 : 만평(준농림), 전 230평, 전래샘물 有
- 남한강 : 300m, 도로 : 150m 진입로 有
- 적송 : 만주이상(50년생이상), 낙엽송 : 5천주이상(37년생)
- 송이버섯 매년 입찰 들어옴
- 가액 : 5억 5천만원. 주인 직접.

032)553-8835

사찰임법당 안내

- 포항 근교 조용한 바닷가
- 내용 : 현대식 2층건물. 1층 22평, 2층 32평, 조립식 15평, 심야전기. 용왕기도 휴양처로 최고. 주차 무한대
- 가액 : 2억 2천만원

011)9372-5977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용왕단
- 가액 : 3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226-288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신행정수도부근
- 특징 : 현시대에 찾기힘든 명당 기도 도량
- 산속이면서 고속도로에서 5분, 국도에서 3분거리에 있음
- 부도설치 가능
- 부처님 모시는 불사 가능
- 가액 : 12억

011)568-44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IC근교 4km지점
- 종교용지 600평, 임야 16000평
- 법당 40평, 요사채 60평
- 천년 고찰지. 문화재(마애불)있음
- 복지시설 환영.분할 매매 가능
- 가액 절충 가능

02)394-1870
011)9691-4941

양도 및 교환(급)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 답사후 가격 절충

02)478-4334
011)9410-003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남쪽 금강산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건물 현식, 교구본사, 사찰, 연수원, 수련원, 기도터, 기타 종교 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016)838-9394

사찰터 안내

- 명당포교당 본산지터
- 영천 중앙 시내에 있슴
- 평수 : 240평
- 가액 : 4억5천만원

054)337-6127
016)898-454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청옆
- 대지 300평
- 법당 30평(기와법당)
- 요사채 : 100평(방 7개)
- 주지실 : 5평
- 지장보살 5불(청동)
- 주차장 완비

051)941-0195
011)9114-7710

사찰 안내

- 위치 : 7호선전철 신대방삼거리 6번 출구 버스정류장 바로앞
- 가액 : 1500만원, 월40만원 (시설, 보증금포함)
- 3층건물 중 3층
- 옥상 사용하고 있슴
- 포교원 적당

019)9264-7000

사찰 안내

- 부산광역시 소재
- 법당 : 50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채 : 80평
- 산신각, 용왕각
- 가액 : 4억5천만원
- 뒤는산이고 앞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정통사찰임

02)352-0692
053)782-5504
018)689-0455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청옥산
- 부지 450평, 대지 100평
- 주위 1천여평 하천부지사용가능(방생법회)
- 요사 5평, 방3,주방,세탁실, 세면실
- 법당10평(비로자나,석가모니불,약사여래부처님)삼존, 최근 아미타삼존불 불사
- 지장 기도 도량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486-8133 / 054)673-8133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 임법당 30평, 목조 황토 기와
- 부지 약 1천평중 430평 등기
- 산세 계곡 좋고 청정지역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나들목 4 km지점
- 2006년 완공 예정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 가능)

041)841-1257
011)9823-484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 좋음)
- 법당 15평(불상탱화 5점),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7대)
- 가액 : 9천만원(위치 좋음)

011)9802-3136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임법당, 큰방1(가로25자,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041)934-851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15분거리
- 대지 201평, 전 33평
- 법당 : 20평(기와), 최고 시설
- 삼존불, 후불, 신중, 용왕, 칠성, 지장, 산신탱화 요사채 1동 40평, 방3개, 화장실 2개, 현대식건물, 옥외 화장실 2개, 창고1개, 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
- 장난전화 사절합니다

011)817-4027

절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딱실못 주변
- 대지 : 약 300평
- 평당 10만원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흥해읍 양백2리 대원사
- 월세 10만원
- 법당내 시설비 일체: 2천만원
- 법당 15평, 건평 약 40평

017)706-630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연기 고려대7분거리
- 부지 : 5900평
- 법당, 요사채2, 산신각1, 화장실
- 평당 3만원
- 정남향. 개울. 전망 좋음

02)420-3227
041)863-1489
011)451-1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부지200평중 88평 등기
- 건평 30평
- 목조입법당1, 방2, 주방, 욕실,창고
- 교통 요지. 마을 인접
- 8,500만원(집기일체포함)

055)852-4130
011)879-4791

암자포교당최적지

- 위치 : 전주 시내. 시장버스정류장
- 오거리 건널목.사람이 꾸준히 움직이는 밀집지역
- 단독 한옥 고가집
- 나무상태 80%, 대지 80평
- 큰방5, 전체 수리 즉시 입주
- 은행융자됨, 도로간판 설치됨
- 새로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법사님,보살님,재자님께서는 4시 이후 답사후에 가격 절충 바람

063)246-8481~2 / 011)650-8481

사찰및납골당부지안내

- 위치 : 전주 근교(20분거리)
- 부지 : 37000평(종교부지)
- 특징 : 확실하게 자신한 천년 사찰터 및 납골당
- 건축 허가필
- 가액 : 3억5천만원

016)647-7100

사찰(급)안내

- 위치 : 목동사거리
- 60평
- 시내한복판. 시장입구
- 가액 : 5천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포함)

02)2645-2445
011)9947-4458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지하철역
- 5층건물 중 5층. 6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금 4천. 합 6천(절충없슴)
- 부처님-주불, 약사, 관음, 지장(산신각)
- 스님 건강이 안좋아서 매매

011)750-542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인구밀집지역. 포교 적합
- 평수 : 50평. 오존불 봉안
- 법당, 종무소, 방3, 주방, 욕실
- 불구 및 주방 용품 일체 제공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가격 절충

011)9484-6333

사찰(임법당) 안내

- 위치 : 노완구불암산자락에자리잡은 도심포교또는야외10집, 전세투자전망좋음
- 부지 : 약100평 가량 활용가능(인평당 임야1집)
- 건물1 : 평수 45평중 법당 15평, 스님방 1, 공양방1,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건물2 : 요사채 40평, 방6개, 목욕, 실내화장실, 실외 화장실
- 무허가 40년된 건물로써 건물등기 구청에 등기되어 있음(평은 타 개인평임)
- 가액 : 건물1 - 1억5천만원(1년안된건물임) 건물2 - 1억1천만원(1년6개월된건물)
- 각각 매매도 됨, 가격 절충가.

011)709-7659

신축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금산에서 5분거리
- 405평 부지
- 목조한옥 21평(임법당)
- 가액 : 2억 3천만원
- 터 경관 좋음.수행포교의 적지
- 사정상 급매

041)753-8137
016)249-3393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점곡면 명고리
- 대지 : 110평
- 사리3과, 상단, 중단, 칠성 탱화, 산신탱화
- 삼존불, 용왕, 산신 불상
- 매칸 총집(임법당)
- 가액 : 2천500만원

016)290-66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점곡면 명고리
- 대지 : 110평
- 사리3과, 상단, 중단, 칠성 탱화, 산신탱화
- 삼존불, 용왕, 산신 불상
- 매칸 총집(임법당)
- 가액 : 2천500만원

016)290-6699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목어

동물재판



김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두더지를 추방하되 그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을 물색, 그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행권을 주며 유예기간은 14일로 한다.'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정식 동물재판 판결내용의 하나다.

재판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 부근 한 마을 농부들이 두더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며 두더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데서 시작 됐다.

재판은 정식으로 진행돼 두더지 퇴치명령이 내려질 뻔 했으나 판사는 "두더지는 해충을 없애는 이로운 동물로 그들에게도 적당한 땅을 마련해주고 개나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통행권을 주어야 한다"는 두더지를 대리한 변호사의 요구를 수용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르네상스 태동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세속이나 종교 재판소에서 동물재판은 흔하게 진행돼 왔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동물과 메뚜기 파리 벌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동물이 피고로 등장, 파문과 화형 교수형 생매장 등의 극형을 받았지만 두더지 재판처럼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 받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를 두고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 변화, 동물과 인간관계의 재정립, 법정의(法正義)의 혁명적 전환점으로 보기도 한다.

이번 한국에선 피고가 아닌 원고로서 도룡뇽이 법정에 서는 모양이다. 피고는 환경부장관.

경부고속철 대구 부산간 노선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룡뇽을 비롯한 동식물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16세기 동물재판에서 이미 존재가치를 인정받아 보호 받을 수 있었던 두더지 재판을 기억하며 21세기 한국에선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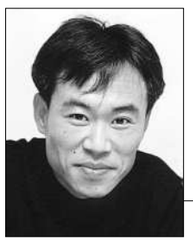
농촌도 살리고 환경도 소중히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0월 26일 횡성 삽교1리에서 산나물 씨를 뿌리는 행사를 열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사라져가는 산나물을 심어 우리 식탁에 자연의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또 불자련은 삽교1리 산채마을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도 · 농간의 협력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길 기대한다.

장군죽비

불우이웃, 겨울이 무섭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불교계 복지시설들이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태풍 피해와 경제불황으로 도움의 손길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 김장김치 보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일일찻집' 등을 통해 성금을 모으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불자 세상보기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외모지상주의, 정신적 허기

지금 한국 사회엔 '허공꽃(幻化)'이 만발했다. 이미지가 실재를, 허상이 실상을 압도하고 있다. 이른바 '외모지상주의'라는 집단적인 눈병에 걸린 것이다. 천민자본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와 같은 고질적 병폐에 또 하나의 병증이 도진 것이다.

깔끔한 용모와 상대에 호감을 주는 자기 연출이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쁘고 잘 생긴 것을 능력과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다. 다름을 틀림으로, 차이를 차별로 연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가 문제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키가 작다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연시할 정도였다. 취업 시즌만 되면 대중 매체에서는 비장한 목소리로 이런 현상을 질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구색 갖추기나 어르고 뺨 때리는 일과 다름없다. 언제 그런 발언을 했냐는 듯, 외모를 앞세운 연예인들을 대중들의 우상으로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이런 한국 사회의 이중성과 위선, 그리고 자기기만은 병적인 외모지상주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한때 한국인은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의 외모 집착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 지난 달 19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한국 남자들 파워 위해 치장"이라는 제하의 흥밋거리 기사를 실었다. '꽃미남' 안정환을 모델로 내세운 남성용 컬러 로션의 첫 6개월 매출액이 400만 달러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기사였지만, 다분히 조롱투다. 일정 부분 사실이라 치더라도 아직은 일부에 국한된 현상임을 한국인인 내가 더 잘 안다. 하지만 기사는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작성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사가 국내 신문에 인용 보도된 다음이다. 한국인들은 그런 보도를 접한 다음 최면이라도 걸린 듯 신념화하고 행동화한다. 환각제로 오용되는 약물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보도가 나가면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익히 봐 오지 않았던가.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눈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문구용 칼로 눈을 찢는 따위의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한 논문에 의하면 고교생의 40%가 성형 수술을 원한다고 한다. 또 '얼짱' 열풍이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다.

얼짱이라는 말은 중고생들 사이에서 학교나 반에서 얼굴이 가장 예쁜 혹은 잘 생긴 친구를 일컫는 은어였다. 그러나 인터넷에 얼짱이 얼굴을 내밀고부터는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10대들의 우상이 되었다.

'얼짱 신드롬'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그라질 10대들의 문화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선망하는 가치가 결국 '돈과 명성'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은 미래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왜곡됐을까. '은근과 끈기'는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만 것일까.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 '바람 든 사회'다. '육체적 허영에 정신적 허기'.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중심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패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다.

"환을 여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離幻卽覺)." 원각경의 가르침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육체라는 헛것에 집착한 나머지 실속은 쪽정이가 돼 가고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군승특별교구 설치

'군인이기 전에 수행자' 명시해야

군포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군불교위원회는 교구 설치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명칭과 교구장의 권한, 분담금 등 세부내용에 있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10월22일 포교원이 개최한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했다.

〈정리=이동혁 기자〉

명칭보다 군법사 체질 개선이 시급



정범 스님
조계사 재무국장

군포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군승교구가 반드시 '특별'교구로 설치돼야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군승특별교구가 설치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불교위원회와 별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불교위원회든 군승특별교구든 군포교가 잘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문제를 비롯해 순조롭게 군포교가 진행될 수 있다면 '위원회'라는 협의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가톨릭의 경우도 군포교를 담당하는 교구를 '군종교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굳이 군승 '특별'교구를 설치해 많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방부측에서 보더라도 천주교의 군종교구나 불교의 군불교위원회는 창구일원화의 의미 밖에는 없다.

종회에서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헌 · 종법령에 '특별교구'라는 예외조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종헌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가톨릭 군종법령과 유사하고 필요에 의해 요소요소 꿰맞춘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교구장과 관련해 가톨릭 군종교구처럼 '교구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군승교구본사 주지스님'이란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군법사는 군내 불교 업무를 관장하면서 동시에 소속부대의 군종장교로서 정신전력강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임무가 충돌할 경우 어떤 임무를 우선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다.

군법사는 또 스님으로서 종단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소속 부대의 위계질서에 따라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이원화 된 체계에 대해서도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군인이기 보다 수행자임을 강조하는 규정이 군승교구 설치법안에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군법사들이 스님들과 동등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군법사들의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점이다.

군내 종단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



전창응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사무국장

군불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군포교 일선에 서 있는 군법사들의 위상강화와 종단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군승 특별교구 설치는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군법사들은 스님의 신분과 군인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군의 특성상 이동이 잦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반교구본사로 설치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일반교구본사로 설치되려면 교구본사의 재산을 종단으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군내 4백여 개의 군법당들을 종단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위원회'라는 명칭은 협의체라는 성격이 강하다. 단순한 협의체로 군포교에 임한다는 것은 종단의 군내 위상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교구로서 일관성 있는 명칭과 권위를 부여했을 경우 군법사와 교구장의 권익 증진, 군내 종단 위상강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군불교를 위한 종단의 인사지원과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군승특별교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교구로 군승교구가 설치될 경우 이에 따르는 종헌 · 종법령 제 ·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군불교위원회는 인식하고 있다. 교구설치가 급선무이므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구장 상근직 문제는 종단 현실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산적한 군포교 관련문제를 해결하고 군포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상근직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군불교가 군승교구 설치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개신교와 가톨릭은 일사천리로 군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은 서울, 대구 등의 대교구에 필적할 만한 비중을 가지고 군종교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포교 활성화 · 효율화를 놓고 군승특별교구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이 10년이 넘었다. 군승특별교구가 하루 빨리 설치돼 군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봉 양주시 앵무봉 지장기도 도량 대원정사 '산신님 철야정진 기도' 찬



양주시 장흥 계명산 자락 앵무봉에 위치한 대원정사는 예로부터 산신님이 계시던 깊은 산골로 큰 산 호랑이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산신님 영험 도량인 대원정사에서 원을 세우고 기도 정진하여 불보살님들의 가내(家內)에 만복이 깃들고 업장소멸과 사업 성취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원 합니다.

[주지 해련 합장]

점안법회 기념 산신님 21일간 철야정진 기도 안내

▶ 입 재 : 2003년 11월 2일(아기부처님 탄신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 회 향 : 2003년 11월 22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산신각 불사 시주 동참
- 불사시주 : 산신각, 코끼리 삼존각, 석등 2, 연등기둥 8
- 이름을 올리신 분은 1인 10만원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시주 공덕 바랍니다.

▶계좌번호
- 농 협 : 201058-52-003260(예금주 박경자) - 국민은행 : 267-24-0016-901(예금주 박경자)
※ 입금 후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산신기도 방법 대웅전 부처님을 친견한 후 산신님께 원을 세워 기도 하십시오.

◆차량 안내 (철야정진 기도 기간 매일 운행)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환승 주차장 앞 밤 10시 10분 출발
- 장흥 농협 앞 밤 10시 30분 출발

기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산 126번지 전화 031)855-5501,3

교송 정명주 스님의 佛氣 달마도

시방삼세에 늘 나투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여한 모습
- 세계 최초로 교송 정명주 스님께서 친견한 시무상주 시방불 사진입니다.

佛心天地海風
가정에도 사무실에도 사업장에도 喬松 · 鄭 · 銘 · 主 스님의 견여래 사진과 男 · 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액운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운이 펑펑 솟는 답니다.
● 佛 心 : 부처님 가르침이란
● 天 : 높거라 ● 地 : 깊거라 ● 海 : 넓거라 ● 風 : 바람이려니



장소 : 청송주왕산
시간 :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66㎝
가격 : 100,000 원



규격 : 가로 51㎝ x 세로 73㎝
가격 : 100,000 원

귀의 삼보하옵고
교송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접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짝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창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 협 821146-52-038830 [예금주 : 정지완]
■연 락 처 : 055-275-1372 / 055-262-0928 ■휴대폰 : 019-574-0928 교송 합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 주 사 한글홈페이지 : 명주사

"10만명 동참하면 단식 풀겠다"

지율스님 31일 현재 단식 28일째 … 묵언 돌입
조계종, 종단차원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서
영남지역 교수 60여명 불자 108명 지지선언



◇부산시청 앞 단식 28일째(10월 31일 현재)인 지율 스님은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결코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10월 31일 현재 단식 28일째인 지율 스님은 6일째 묵언중이다.

지율 스님의 묵언은 정부에서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기 전에는 결코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속에서도 시청 옆에 세워진 봉고차를 숙소로 삼고 있는 스님은 조계종 종단 관계자에게 "불자 10만 명이 도롱뇽을 살리는 방생운동에 동참하면 단식을 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단은 지율 스님과 도롱뇽을 살리는 것을 새로운 방생(放生) 운동으로 인식하고 종단차원에서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를 통한 모집과 교사, 교수, 환경단체, 불자 등을 중심으로 각계의 관심이 결집되고 있다. 24일에는 경남 지역 교사 108인이 도롱뇽 소송 지지 선언을 했다. 부산 교사 108인 선언에 이어 교사들의 두 번째 참여다. 이들 교사들은 도롱뇽 소송에 대한 공동수업안을 만들고 29일부터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도롱뇽이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수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청와대 엽서 보내기,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25일에는 영남대 김종철 교수, 부산대 김석준 교수, 밀양대 이병인 교수 등 교수 60여명이 교수 지지 선언과 천성산 도룡뇽 영상 상영,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11월 1일에는 불자 108인 선언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불자들은 "천성산의 생명들을 위해 목숨 걸고 묵연히 걸어가는 한 수행자를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다"며 "불자들이 함께 역사에 기록될 방생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관련 12월말 경 <환경과 생명> 주최로 자연의 권리(천성산 고속철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모의 환경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감로사, 10월 27~31일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제40회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700여명의 불자들이 계를 수지한 이번 수계산림 법회에는 전 해인사 주지 가산 지관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5일간 보살계를 설했다.

감로사 천화계단은 1951년도 6·25 피난시절 자운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큰스님들이 감로사에 모여 "보살계를 받아 실천함만이 국난퇴치와 자성성불의 지름길"이라며 계단을 세운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봉행해 왔다.

한편 11월 17일 삼천불 삼천배 참회 기도회관의 원만 신축을 염원하는 천일관음기도 중 제10차 관음백일기도를 봉행한다. (051)809-0926

천미희 기자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70여명의 사부대중이 지관스님의 보살계 입재법문을 경청하는 모습.

기장군 첫 수륙천도법회 봉행

8일 기장체육관 … 죽서 바닷가서
공옥진 선생 춤판·심청전 공연도

바닷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수륙천도법회가 11월 8일 기장 실내 체육관과 기장 죽성 바닷가에서 열린다.

무속인들에 의한 용왕대재가 마을마다 열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기장 나무정사 설곡 스님이 마을 주민들의 정서를 불교적인 의식으로 감싸 안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설곡 스님은 여법한 행사를 위해 수륙천도법회 봉행위원회를 꾸리고 봉행위원장은 남구, 수영구 사암연합회 회장인 지원 스님이 맡았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열리게 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시월상달 제 1회 기장군 수륙천도 법회'는 지역민들의 축제와 법회로 승화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지역 사찰인 나무정사가 수륙천도법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월전 마을 주민들은 행사 음식에 쓰일 된장과 고추장, 떡 등을 보시하는 등 마을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행사가 되고 있는 것.

이날 수륙천도 법회는 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1부 법회와 공옥진 선생의 공연에 이어 죽성 바닷가로 이동한 후 불교 범음범패 의식으로 열리는 영혼 천도 의식의 순서로 열린다. 특히 <심청전> 공연은 공옥진 선생의 춤과 창으로 지극한 효심의 심청을 되살려내며 지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051)722-3393 천미희 기자



◇6대 종교지도자들과 합창단원들이 종교음악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를 합창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시국안정 주체되자"

6대 종교지도자 기도회·부산종교음악제

깊어 가는 가을, 6대 종교인들이 함께 한 부산종교음악제가 열려 화제를 모았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스님)는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제1회 부산종교음악제와 함께 시국 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불교합창단의 찬불가와 기독교 중창단의 찬송가, 원불교 합창단의 성가가 한데 어우러진 이날 음악제는 6대 종교에서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영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음악제에 앞서 가진 시국안정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기독교 방영식 목사, 원불교 최신길 석포교당 교무, 천도교 박호권 북부산교구장이 '시국안정을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며 나라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 이어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대정부, 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하며 종교인과 국민모두는 시국안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2부 행사로 마련된 음악제에는 축시 낭송, 미룡사 바라밀다 합창단 시온중창단의 부산원음합창단의 공연이 선보였다. 특히 사찰 합창단 지휘자들인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가릉빈가 중찬단은 찬불가 <무지개>와 미국 민요 메들리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은 "내년에는 전국의 종교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음악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자폐아 국제심포지엄 열어
연꽃아이들, 부모상담도

불교계 최초의 자폐아 교육기관인 울산의 '연꽃 아이들'은 11월 8일 연꽃아이들에서 국제 석학 초청 자폐 관련 장애 국제 심포지엄 및 부모 상담회를 연다.

'자폐관련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내 조기통합지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발표 외에도 자폐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시간을 갖고 자폐아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052)268-6702 천미희 기자

가람소리 합창단 발족
동명불원, 창단법회 봉행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담은 노래로 사바세계를 장엄하겠다는 원력으로 가람소리합창단이 창단됐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도관) 가람소리합창단은 10월 27일 그랜드호텔에서 창단법회를 갖고 음성포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창단법회에서 38명의 가람소리합창단원들은 <바람 부는 산사> 등의 찬불가를 공양 올린 후 사부대중과 함께 <사랑으로>을 합창했다. 천미희 기자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리셉션

대구불교방송 개국 7주년 음악회도

대구불교방송은 11월 6일 오후 6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개국 7주년 및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 음악회와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개국 축하 음악회는 영남불교대학 오케스트라(지휘자 강주현)와 협연으로 소프라노 고선미, 테너 김형국 등과 대구불교계 연합합창단(동화사 봉황합창단, 대구사원연합회 합창단, 진각종 금강합창단)이 연주회를 펼칠 계획이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 스님은 "안동·포항 중계소의 개국을 대구불교방송의 제2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6년 11월 11일 개국한 대구불교방송은 FM94.5Mhz로 대구 및 인근지역에 방송을 송출해 왔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포항 FM105.5Mhz, 안동 FM97.7Mhz 주파수로 광역화 시대를 맞게 됐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대구음악박람회 열려
사찰음식 큰 호응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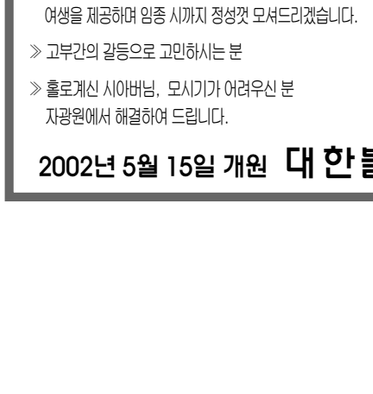
향토음식 발굴과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03년 대구음식박람회가 지난 10월 25, 26일 양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구시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우리음식, 우리문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출품작 중 자연식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 사찰음식을 출품한 청도군 수법사(주지 지수)는 고추장과 된장으로 버무린 감장아찌, 죽순간장, 양배추 물김치 등 50여 점을 출품했다. 박원구 기자

태풍 '매미' 피해 도성암
통도사, 복구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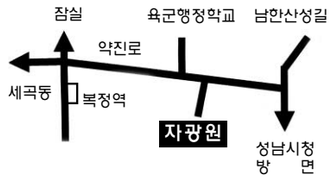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30일 창녕 도성암을 방문해 태풍 매미로 희생된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실된 요사채의 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도성암은 태풍 매미로 요사채 유실되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천미희 기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북부 교양대학 개설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 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할 불교 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과 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강의시간
불교전통 의식반	사물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재공의식	설운스님, 상진스님, 대원스님	화·목요일 15시~17시
기초불교 교리반	기초교리, 금강경, 포교론, 서예	운오스님, 신명스님 외	화요일 15시~17시

- 원서접수 : 2003년 11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03년 11월 13일(목) 오후 4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본 대학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경기북부종무원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TEL. 031)864-0033, FAX.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법정사지 항일운동 사적지 지정

서귀포시 2005년까지 43억 들여 성역화

안후상씨 '보천교도의 난 왜곡' 논문서 밝혀



◇제주도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지 전경.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무오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가 제주도 기념물(제61-1호)로 지정돼 성역화된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10월 27일 "지난 1918년 법정사에서 제주 항일운동이 처음 일어났으며,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일제에 항거했던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돼 사지를 사적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역화 계획만 세운채 제주도의 사적지지정 보류로 사업을 중단해 온 서귀포시는 11월부터 2005년까지 총 42억8천만원을 들여 위패 봉안소와 상징탑 건립, 사찰유적 보전 ·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무오년 10월 5일 우란분절법회에서 김연일(법정사 주지) 방동화(불교조계종 초대 종무총장) 강민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충 장림호 김상언 최태유 스님과 행자 김윤옥 등 승려 13인을 비롯 주역 33인과 주민 400여명이 '왜인들을 몰아내어 국권을 회복해야한다'는 격문을 발표한뒤, 서귀포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납치하며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봉기운동이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등에 '보천교도의 난'으로 알려졌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1996년 12월 안후상 씨(고창북중학교 교사)가 '무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을 서울대 <종교학연구>(제15집)에 수록해 왜곡된 역사를 규명한바 있다. (본지 41호 116호 298호 398호 참조)

안후상 씨는 논문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워낙 커 당시 '방스님 난리'로 불리워졌을 정도였음에도 일제는 전통불교가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몰고올 파급을 우려해 주역 33인중 한사람인 박명수 씨가 보천교 수사라는 이유로 '보천교도의 난'으로 비하시켰다"고 밝혔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외국 스님과 영어로 법회를!

대전 자광사 이달부터 매달 '영어법회' 개최

무진, 청고, 현각, 지광스님 등 법문 예정

대전 유성구 학하동 탄허문화재단 자광사(주지 청아)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진행하는 영어법회(Dharma Talks in English by Foreign Sunims)가 열린다.

매달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적광전 3층에서 열리는 영어법회에는 11월 9일 무진(MuJin), 12월 14일 청고(ChongGo) 스님이 법문한다. 이어 2004년 열리는 법회 법문은 무심(MuShim 2월 8일), 현각(Hyun Gak 3월 14일), 지광(ChiKwang 4월 11일) 스님이 맡는다. 이밖에도 일고, 여광, 무량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법문은 1시간 동안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곧바로 1시간동안 참석대중 질의응답이 열린다.

주지 청아 스님은 "영어법회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일조하고, 국내의 외국인 스님들에게 적극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영어권 외국인 불자들 뿐 아니라 국내의 지식층에 포교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광사는 내년 4월 이후 진행되는 2차 영어법회 법사추천을 받고 있다. 법사스님의 선정기준은 조계종과 외국의 청정계단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외국인 스님으로서 수행이 훌륭하고 능숙한 영어로 법문을 할 수 있는 스님이다. 문의 (042) 822-9220

김원우기자

'대각국사 가사' 민속자료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0월 28일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삼보명자수 가사(사진), 쌍룡문직은 가사, 용문자수 탁의등 3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유물은 조선후기 불교 복식사와 자수 및 직물 연구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 품계인 25조로 구성된 '삼보명자수 가사'는 가사 전면에 불보살의 존명과 경전 이름을 치밀하게 수놓은 수작으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의 네 모서리에는 '천' '왕'자가 수놓아져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절구 찧는 토끼가 꼼꼼하게 수놓여 있다.

'쌍룡문직은 가사'는 쌍룡문단을 바탕천으로 사용한 9조 가사로, 조선시대 불가와 궁에서 사용된 직물에서 볼 수 있으며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법상의 덮개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용문자수 탁의'는 전면에 용과 구름 문양 등이 장식되어 있으며, 가운데에는 성수만년의 글이 십자 형태로 새겨져 있다.

오유진기자

'제2회 한·일 찬불가 교류행사' 개최

한일 양국 불자들의 찬불가 합동공연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과 일본 북해도 양원사(주지 이즈모지)는 한 · 일 양국간의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제2회 한 · 일 찬불가 교류 행사'를 12월 11일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하유 스님의 법고와 청고북을 시작으로 동산불교대 아미타합창단의 합창, 동산풍물예술단의 사물놀이, 일본 오오다니대학교 음악전공 학생들의 피아노, 플룻 연주와 일본 양원사합창단의 합창, 한국중창단의 찬불가 공연, 한일연합합창단의 합창 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02) 723-1206 김은경기자

도갑사 도선국사 학술 심포지엄

영암 도갑사는 10월 31일 도갑사 사적비 제막식과 제1회 도선국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된 사적비에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도갑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막식에 이어 영암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도선국사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작년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가 출간한 도선국사 관련 문헌자료집 <예토에서 정토로>를 바탕으로 도선국사의 탄생에서 출가까지의 과정과 도선국사전설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는 '도선국사 출가 장소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선국사의 출가 장소로 알려진 월유산 화엄사는 지금의 구례 화엄사가 아니라 영암 월출산 월암사"라며 "경보가 돼 절의 도선국사의 출가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뭉치면 지역포교 문제 없어요

남양주 도법사 조양자·이수남·김동숙 보살

10월 25일 남양주 도법사의 초하루법회에 참석한 조양자(63) 이수남(58) 김동숙(52) 보살은 새로 부임한 지 채 6개월이 안된 주지 덕원 스님이 지역포교의 큰 원력을 펼 수 있도록 돕는 불자들이다. 법당 청소는 물론 공양간 일손을 돕거나 다른 불자들의 시중까지 책임진다. 부임 후 첫 법회 때 참석자가 2명 뿐이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덕원 스님에게는 이들의 도움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조양자 보살은 도법사에 나오는 불자들의 큰언니 역할을 하는 일꾼이다. 또한 주지스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신도들을 움직여 묵묵히 돕는 후원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 보살은 어렵게 꾸려진 신도회의 회장직을 맡았다. 그렇지만 신도회장이라는 권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신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다. 주지스님이 바뀔 때마다 신도들을 끌어가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겪는 신도들의 혼란이 그것이다. 조 보살은 "주지 스님은 때가 되면 바뀌더라도 신도들의 신행을 저해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털어놨다.

반면 이수남 보살은 자신이 겪은 영험을 들려주었다. 이 보살이 도법사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82년. 남편을 따라 절에 나오기는 했지만 시집오기 전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탓에 신심이 깊지 않았다. 지난 4월 갑자기 쓰러진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다.



◇조양자(왼쪽 두번째) 이수남(왼쪽 첫번째) 김동숙(왼쪽 세번째) 홍금분(오른쪽)보살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조양자-불자들의 큰언니

이수남-딸 병 호전 믿음 생겨

김동숙-삶의 희망 심어준 곳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한동안 발을 끊었던 도법사였다. 덕원스님은 이 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권했다. 스님의 말대로 기도 정진한 이후 딸의 병세가 빠르게 호전됐다. 이일로 이 보살은 도법사에 오지 말라고 말려도 찾아와 절 일을 돕는 불자가 됐다.

도법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김동숙 보살은 20여년전 남편이 추락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되고 난 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삶의 현장에 뛰어든 가장이다. 그런 그에게 도법사는 힘들게 살아온 삶에서 희망을 심어준 곳이다. 늘 그의 옆에는 많은 도반들이 있었고, 또한 부처님이 있었다. 자신이 받아 온 고마움을 도반들에게 회향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박봉영 기자



추천의 말

덕원스님 도법사 주지

처음 도법사에 왔을 때 신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수남 홍금분 조양자 보살 같은 불자들이 후원자가 되어준 거지요. 세 보살은 이전 신도들을 다독이고, 새로 온 신도들을 바른 부처님 법으로 안내해 줍니다. 지금 도법사가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은 세 보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찰, 신도들에 큰 힘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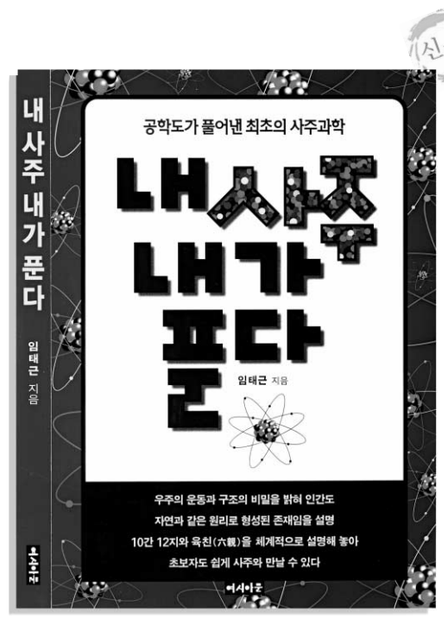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평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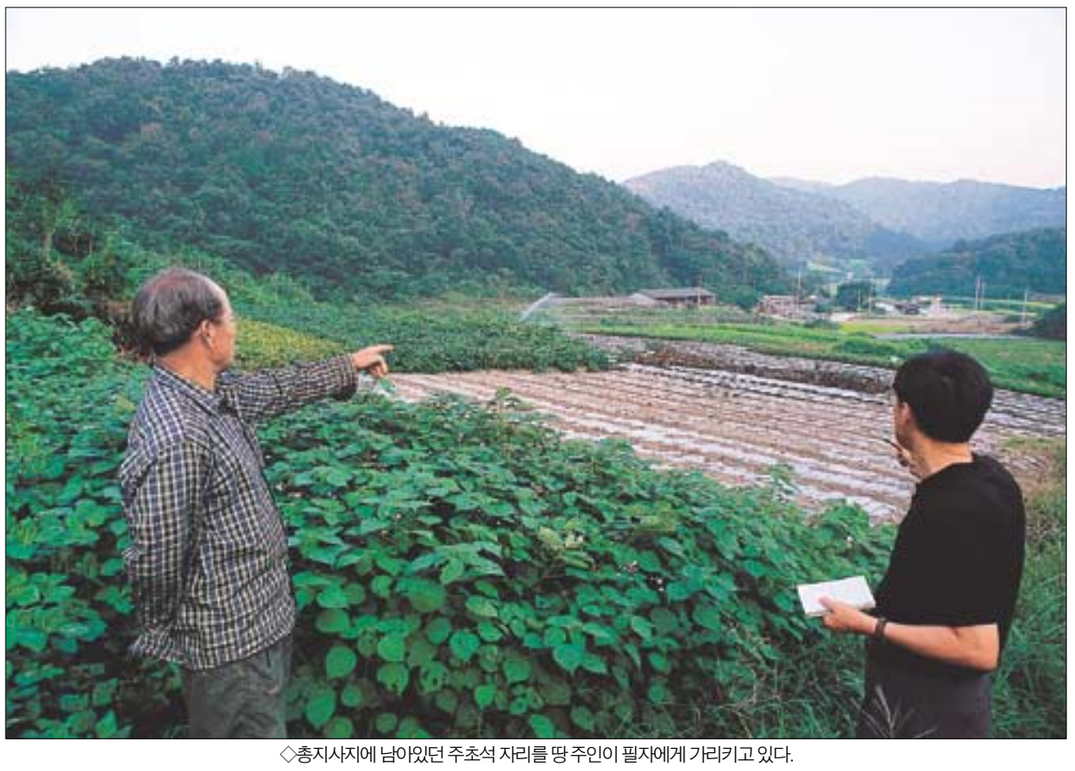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석장승만 쓸쓸한 절터 지켜

페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무안 총지사 터





◇총지사지에 남아있던 주초석 자리를 땅 주인이 필자에게 가리키고 있다.

법당 주초석 포크레인 동원 도굴

절흔적 한점없이 마늘·고추밭으로 변해

한때 승려800·승방200·암자 9개의 대찰

남도 땅은 멀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유달산 가까워지면 파도소리로 잦아드는 '목포의 설움' 귓전에 스미고, 월출산 신령스런 솔빛은 지친 가슴을 파고든다. 가던 길 에돌아 무안 땅 몽탄면 승달산 기슭에 이르면 '총지마을' 어귀엔 기다림에 지친 석장승(전남 민속자료 제23호) 노부부 여전히 안녕하시다. 해 어스름 비낀 절 터 안엔 상사화 꽃무리 오솔길까지 달려 나올 터이지만, 석장승 노부부 너스레를 떠는 사이, 마을 안 굴뚝 수도 세어볼 참이고, 산비탈에 감나무, 까치밥도 챙겨 볼 참이다.

무안은 '석장승'의 고장. 장승을 나무로 깎지 않고, 돌로 다듬어 마을이나 절 입구에 세워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일일이 곡절을 따지고, 오물오물 아쉬움을 곱씹는 것이 무안의 풍습이다.

장승은 되도록 못생겨야 하는 것. 나무로 깎은 목장승이든 돌로 깎은 석장승이든 눈은 밤톨처럼 튀어나오고, 콧방울은 실룩거려, 고집이 세거나 심술궂게 보여야 하는 것. 누구나 끌과 망치 하나면 한나절 땀방울로 장승하나쯤 거뜬히 일으켜 세운다. 일으켜 세우기 무섭게 금새 헛기침을 해대는 것이 장승이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 이정표이다. 악귀를 물리치고, 역병을 막기 위해 마을의 입구에 신상(神像)으로 서 있거나 길 잃은 길손들을 위해 노표로 서있는 것이다. 운흥사터 돌장승, 불회사 측백나무길 등 뒤에도 석장승들이 웅크리고 있다. 총지사터 길목의 노부부 석장승도 그저 장승이 아닌 불법을 수호하는 장승 중의 장승들이기에 만나면 시주도 하고 싶고, 등도 긁어주고 싶은 것이다.

무안은 또한 '품바'의 발상지이다. '품바'는 일로읍 의산리에 소재한 천사촌을 배경으로 밑바닥 인생의 한과 아픔을 풍자한 의성어이다. 본래는 각설이 타령의 후렴구로 사용되었으나, 걸인의 음악, 걸인의 대명사로 일반화되었다. 각설이 타령의 '각설(覺說)'과 석장승들의 익살과 심술로 남도의 하늘 밑은 언제나 편안하다. 무안이야말로 노령산 끝자락에서 아랫목처럼 퍼질러 앉고 싶은 편안한 곳이다.

총지사는 그 절 이름에서 보듯 밀교적인 냄새가 짙게 풍긴다.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안되어 그 사료적 전거나 증거로 내세울 유구조차 캄캄하지만 운주사의 그 수많은 비로자나불과 '옴마니반메훔' 숫막새. 총지사의 사명 '총지', 인근 법천사의 창건 유래로 보면 한때나마 이 지역에 밀법이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운주사의 비밀을 캐는 논서 가운데도 이즈음 밀교적인 연관성을 내세우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총지사지는 우리나라 불교사의 흐름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도 언젠가 한 번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사는 법천사와 함께 신라 성덕왕 때 서역 금지국(金地國, 간다라)의 승려인 정명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닷길로 들어온 서역의 전법자에 의해 창건된 절이라면 고구려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을 고쳐 써야 하는 귀중한 사적이 되는 것이다. 총지는 모든 것을 다 지녔다는 비장(秘藏)의 뜻이다. 밀교적 용어로써 다라니(진언)를 의미한다. 모든 것을 다 지녔어야 할 총지가 지금은 텅 빈 절터가 되어 마늘밭이 되고, 고추밭이 되었으니 비밀의 단서가 될 돌쩌귀 하나 남기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총지사는 신라의 밀교승으로 대당 구법 여행을 떠났던 혜통이 665년에 개산한 것으로 되어있다. 혜통은 혜일, 명랑과 함께 중국에 건너가 당밀(唐密)을 공부한 역사적 인물이고, 개산 시기인 665년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이므로 그의 총지사 개산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총지사는 처음 백운산에 창건되었으나 고려 현종 7년(1016)에 화재로 소실되어 이 곳 승달산 기슭으로 옮겨 중창했고,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된 것을 재차 중건하였다고 한다. 지금 총지마을로 불리는 몽탄면 대치리 일대가 모두 총지사의 사역으로 승려 800여명, 승방 200동에 암자가 9개에 이를 정도로 대찰이었다.

총지사의 폐사에 관하여는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 전한다. 총지사가 없어진 것은 순조 10년(1810) 무렵인데, 당시 충청도 현감을 지낸 임면수가 명당으로 소문난 총지사 뒤에 그의 아버지의 묘를 쓰자 승려들이 반대하여 묘에 참나무 말뚝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하여 승려들과 임씨 문중 사이에 싸움이 나고, 그 와중에 임씨들이 총지사를 불 질러버린 것이다. 지금도 절 뒤쪽 능선엔 그때의 무덤들이 남아 있다. 불교와 유교의 세 싸움에서 천년의 고찰은 없어졌으나, '바라이죄'를 범한 그 무덤들은 남아 여전히 무덤에 잔디를 기르고 있는 것이다.

법당 터에는 최근까지 주초석 18개가 가로 90m 세로 80m의 크기로 서로 연결된 채 남아 있었으나, 불교계와 관할부처가 눈감고 방심하는 사이 도굴범들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하여 들어가 버렸다. 주초가 놓였던 자리에는 땅을 파 뒤집은 흔적이 역력하고 땅 주인은 농사짓는데 방해되던 터라 말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폐사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지금의 우리 불교는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쏟고 있는지 막막할 따름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절 뒷편 대숲을 파고드니 풀을 뜯던 흑염소 한 마리가 놀란 듯 뒷걸음친다. 그 흑염소가 고삐를 걸친 자리도 '당골' 이요, '중샘' 이 있는 곳이며, 칡넝쿨 밑에는 깨진 기왓장과 청자 파편이 즐비한 것이다.

절터에 절이야 있건 없건, 상사화는 길목에 피어 길손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석장승 노부부는 아직도 금실이 좋은지 마주보는 자세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마을을 바라보며, 오른쪽에 있는 키 작은 장승이 할아버지 장승이고, 맞은편에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이 할머니 장승이다.

장승들 앞에는 판석이 있어 옛날에는 여기에도 공양물이 올려졌던 모양이다. 도로 양쪽에서 매연을 마시면서도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는 장승이야말로 짓밟힐수록 강해지는 우리네 민간신앙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절터가 엉망이니 다시 또 오라는 석장승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북상하는 저문 차창에는 상사화 잔영이 어른거린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김천 길항사 터



◇벼 익어가는 논을 뒤로한채 서 있는 할아버지 석장승.



◇100여m만이 남아있는 축대.

무너진 절터에 상사화 두엇 피었다. 어와디야 상사디야.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으니 잎은 꽃을 그리워하고,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 온 곳도 간 곳도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은 비밀스런 절터에 긴긴 사연 꼭꼭 묻어 둔 산각시의 숨결인가. 옴몸에 신열 든 댕기머리 귓불처럼 외줄기 꽃대 위에 헝클어진 가는 머리 상사화 두엇 피었다. 남도 땅은 어이하여 상사화가 지천인가. 함평 용천사, 고창 선운사. 풍경소리 은은한 산사의 오솔길엔 기러기 떼 오르내리듯 스님네들 발뒤꿈치 소리조차 없는데, 풀숲의 상사화들 어이 저리 목을 뽑고 천년의 기다림으로 숨바꼭질을 하는가. 무너진 절터에도 상사화가 피었다. 그리움 한데 모아 총지(摠持)인가. 기다림조차 무너져 버린 옛 가람 빈터에 오늘도 못미더운 약속이듯 상사화 두엇 그렇게 잎새도 다 지운 채 저희끼리 피었다.

무안 총지사 터 가는길

총지사지는 전남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에 소재한다. 나주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목포로 가다가 무안에서 811번 지방도로로 좌회전하여 달산저수지를 끼고 7㎞ 정도가면 몽탄역이 나오고 총지사지는 왼쪽 길 안 쪽 대치리에 있다. 총지마을 입구에 석장승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정작 사지는 안내 표식조차 없어 마을에서 길을 물어야 한다.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터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 지니컴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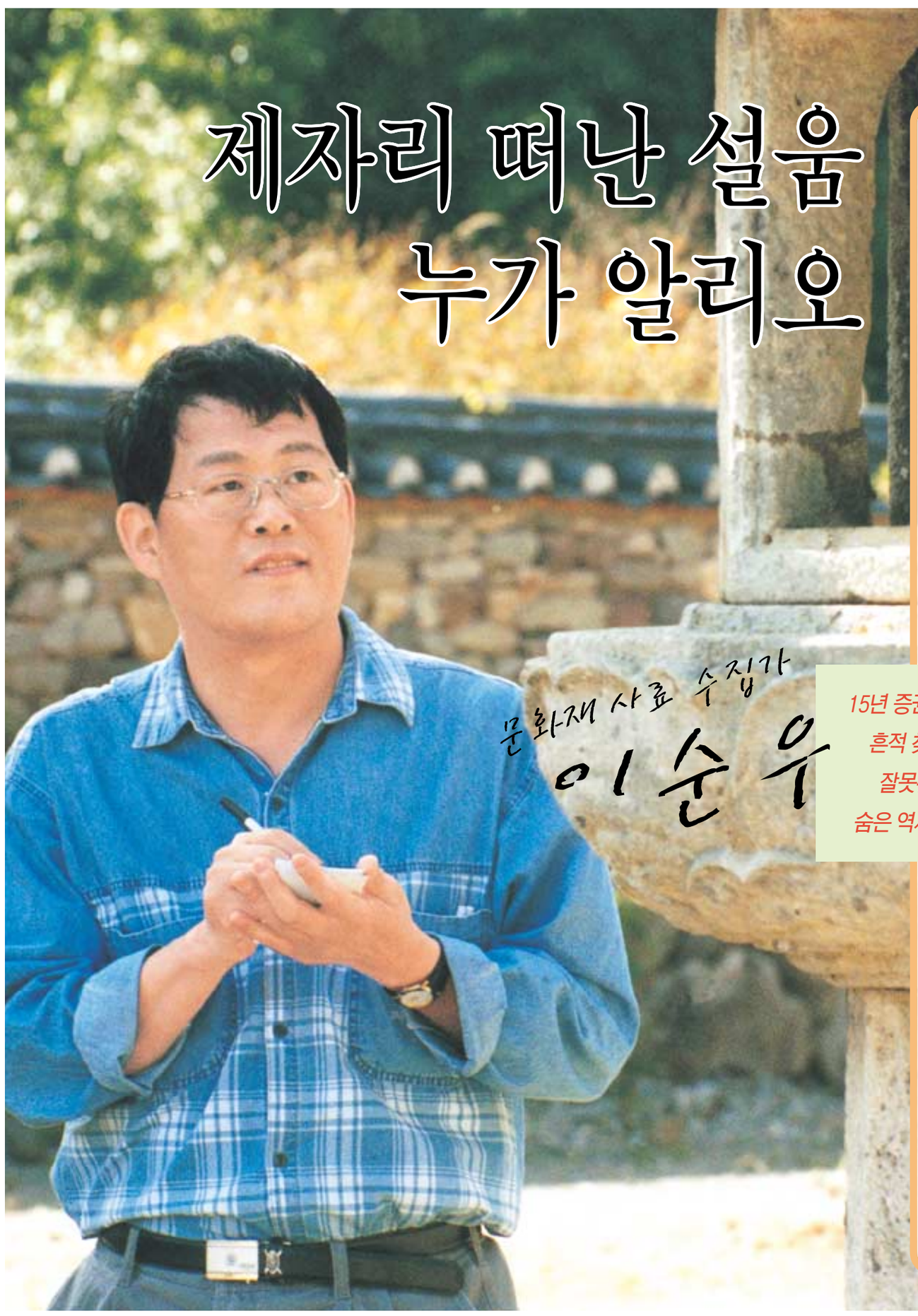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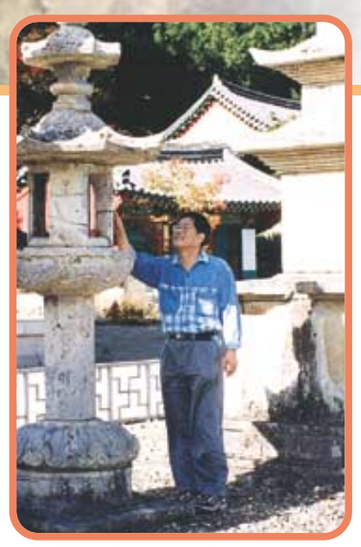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

제자리 떠난 설움 누가 알리오

문화재 사료 수집가 이순우

15년 증권계 떠나 문화사료수집가로 변신
흔적 찾아 주말이면 도서관서 자료조사
잘못된 기록 허다, 정리의 절박감 느껴
숨은 역사 알기 위해 분석 능력 바탕 돼야





◇장흥 보림사에서 만난 이순우 씨. 원주MBC방송이 제작하는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에 작가로 참여하는 이씨는 요즘 현장답사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순우(41) 씨에게 2003년 가을은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5년간 몸담았던 증권계를 떠나 '문화재 사료수집가'이자 '아마추어 문화재 연구가'로 인생의 2막을 연 해이기 때문이다.

1989년 대우증권에 입사한 후 투자자문회사 상무를 거치며 증권과 투자에 관한 5권의 책을 펴내기도 한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던 이순우 씨. 그런 그가 지난해와 올해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서보고서 1, 2권>을 펴낸 데 이어, 이제 본격적인 문화재 사료수집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증권계는 다른 직장에 비해 주5일 근무제가 일찍 시행됐습니다. 덕분에 주말이면 여행을 겸한 답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별다른 관념도 없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옛 절터를 기웃거리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안내책자마다 다르게 표기된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던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했다. 답사를 다닐수록 '이 유물이 왜 제자리를 떠나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문화재들의 '역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궁금증이 생기면 끝까지 해결해야 속이 풀리는 성격 탓에, 그의 발길은 자연스레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는 문화재들의 흔적과 이동경위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수시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들락거렸다. 점심 식사를 대충 해결하고 도서관을 찾기도 했고, 주말이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 나절을 자료조사와 복사로 보내기 일쑤였다.

"본디 제 있던 곳이 어디이고 또 어떻게 지금의 자리로 흘러온 것인지 그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겪어야 할 서러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이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단 한 줄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기를 기대하며 종일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적여야 하는 그의 애타는 심정을, 다음 연구자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기록 자체의 잘잘못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눈썰미'를 갖추게 됐다. 틈틈이 정리해 둔 원고를 책으로 묶어낸 것은 이런 자신감 외에도, 사실관계의 서술이 뒤죽박죽 되어 있거나 그 내용을 잘못 옮겨 적은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고 있는 것을 적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세월이 가고 또 사람도 가고 나면 모든 기억의 근도 더불어 사라지고 맙니다.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인과 기록이 남겨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에게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원래 만들었을 때 지녔던 의도에 맞는 쓰임새로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제작된 불상이나 탑이 제자리를 떠나 '물건'이나 '소장품'으로 취급받는 것은 슬픈 현실이죠. 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혹여 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단 한줄기의 희망만이라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찾아주기 위한 그의 노력이 두 권의 책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의 방 한켠에는 그가 전국을 다니며 캐낸 보물같은 자료들이 빛을 볼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숨어 있는 우량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석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에 숨은 역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비교 검토하면서 '흙 속의 진주'를 캐내기 위해 노력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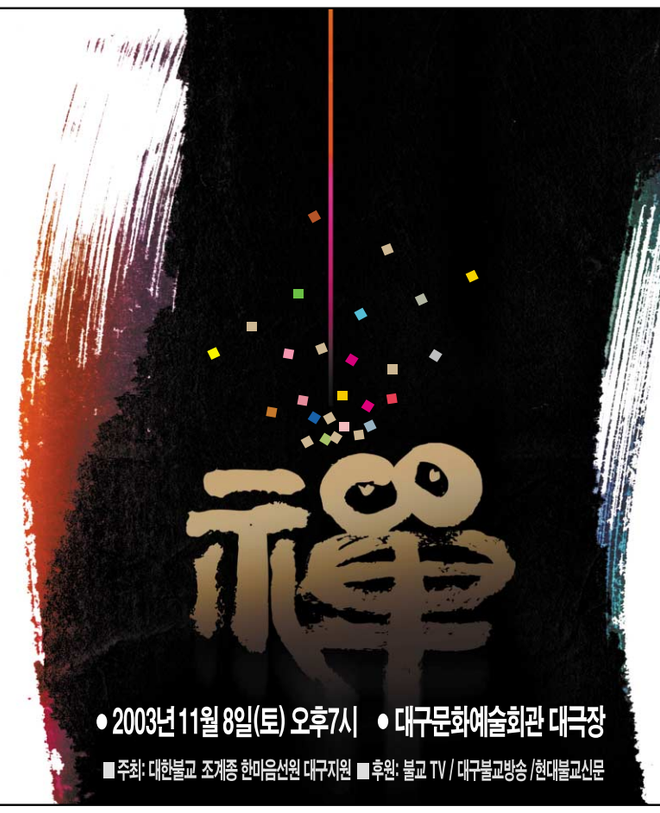
현재 원주MBC 방송이 준비 중인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의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전문가가 다 됐겠다"고 질문하자 얼른 손을 내젓는다.

"저는 끝까지 '문화재 아마추어'로 남을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일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나 미술사적 의의를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나 하는 단순한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새롭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www.hanmaum.org

재해민돕기
수행 禪法歌의 밤
제3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송언(頌言)합창단
창작 교성곡"심우도" 외 7곡
지 휘 : 김 해 경
피아노 : 허 재 현
영남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소프라노 Solo : 이 화 영
찬조출연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 합창단



● 2003년 11월 8일(토) 오후7시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 후원: 불교 TV / 대구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함께 갑시다!
하늘이 높아 갈수록 마음도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던 나뭇잎들이
어느 새 하나 둘 땅으로 돌아가는 겸허한 계절 가을에
저희 송언 합창단이 세 번째 발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7-3100

릴레이 수행일기 〈上〉



김광봉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원

세상은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그들이 직면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뇌와 갈등, 고달픔도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나에게 불교는 학창시절부터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이런 저런 경전을 뒤적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경전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혜와 고요한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 잘 몰라, 불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자주 바뀌고 혼란스러웠다. 한 대상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은 안정보다는 허둥대는 일상 그 자체였다.

일상의 삶은 늘 고뇌와 갈등으로 들끓었지만, 나는 그러한 망상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불교 경전을 학교 공부하듯이 하였지만, 문자 이면에 담긴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생각만 지닌 채 신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곡선원에서 접한 참선 공부를 통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삶이 나에게도 있음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로지 나에게만 이롭고 편안하도록 학습된 마음이 그것이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내 사고(思考)는 왜곡되고 단편적이어서, 당면한 상황과 일치될 수 없었던 것이다. 편의에 따라 계산된 생각은 상대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여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마음을 만들었으며, 당면한 상황이 내가 지닌 고정관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심과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나의 삶은 여기 저기에 걸리고 충돌하느라 평화가 깃들 수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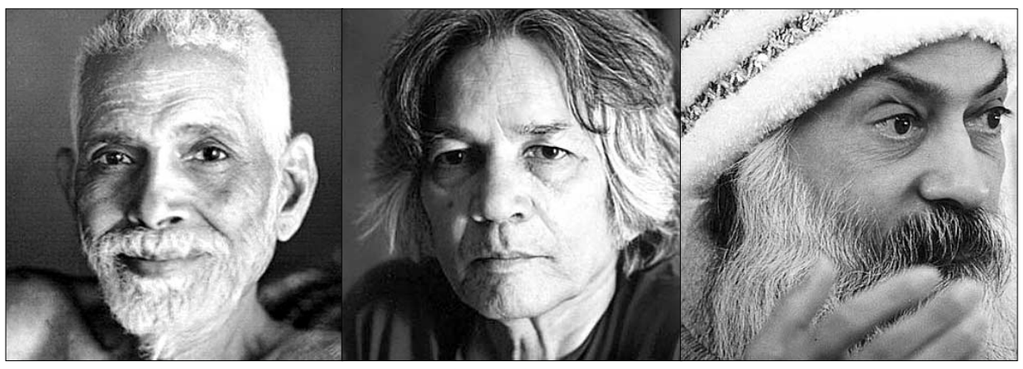
또 하나의 삶은 전자와는 정반대의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었다. 누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순수한 마음만 회복한다면, 내 앞에 다가서는 어떠한 대상과도 충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만상과 즉시 상통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쉬어지고, 이로 인해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갔다. 올바른 심신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맑게 할 때, 일상이 모두 합당한 생각과 행위가 되어 어디서나 자유롭고 안락한 삶, 즉 장애가 없는 일상을 살 수 있다는 뼈저린 성찰이었다.

대학 은사님을 통해 인연이 닿게 된 우곡선원에서의 참선 수행은 무명에 갇힌 눈먼 망아지가 새롭게 눈을 뜬 것과 다름없었다. 참 선지식이 인도하는 참선 공부를 한다면 부처님과 같은 무심한 마음을 회복하여 어디서나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계속)

문자 이면의 이치 모른채 신행 생활

禪공부 통해 다른 두개의 삶 있음 확인

무상한 마음 버리는 순간이 깨달음



◇마하르쉬 ◇크리슈나무르티 ◇라즈니쉬

깨달음을 말하는 명상의 대가들

지난 3~4월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주석하는 틱낫한 스님이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중국 임제종의 한 유파인 접현종(接現宗, Order of Interbeing)의 선사인 스님의 가르침은 '깨어있는 마음(mindfulness)'으로 집약된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매순간 현재(now), 여기(here)에 머무르는 마음을 의미한다. 바로 '지금 여기', 깨어있는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르친 스승은 틱낫한 스님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작고한 인도 태생의 오쇼 라즈니쉬(1931~1990), 지두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도 유사한 진리를 설파했다. 특히 라즈니쉬의 수많은 명상집은 한때 독서계를 풍미하기도 했다.

스스로 보리 다르마의 환생이라고 칭했던 오쇼는 강연 때마다 진부한 설법을 행하기보다는 웃음과 살아 있는 에너지로 많은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쇼가 고안한 많은 명상법들은 가부좌를 틀기 어려운 서양인들도 쉽게 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부터 하게 만들어, 더 쉽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사념 없이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오쇼 아쉬람에는 현재도 100여 가지의 심리 요법 프로그램과 세션 프로그램 등으로 먼저 몸과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깨달음을 위해서 최면, 치유법, 명상법,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오쇼는 말년에 '도(道)'와 '선(禪)'에 대해 강연하면서 불교 전통수행법인 위빠사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틱낫한 스님-깨어있는 마음 강조

오쇼-심·신 비우는 정화작업 선행

크리슈나무르티-스스로 자유찾는 결단

마하르쉬-모든 수행진아 탐구하는 방편

한편 크리슈나무르티가 평생 동안 행한 가르침의 알짜는 1929년에 '별의 교단'을 해체하면서 남긴 '진리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는 연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러분이 이르고자 하는 진리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종교나 교단을 통해 서도 진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진리란 무한하며 제약이 없고,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뼈저린 노력을 통해 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돕고, 저마다 가진 한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돕는 일만이 앞으로 제가 해나갈 일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다가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려는 결단과 끝없는 노력이라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체계화된 교리와 종교 행위-제도를 부정한 이유에 대해 크리슈나무르티는 "수천 년 동안 온갖 종교와 교리가 있어 왔지만 인간은 아직도 불행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불행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도 결국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오쇼, 크리슈나무르티와 유사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보다 급진적인 수행자로는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가 손꼽힌다. 그는 속세에서의 수행의 효용성, 깨어있는 마음 등에 대해서 틱낫한 스님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깨어있는 마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참 나(眞我)'를 찾으라고 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자신의 육체, 감각, 행위,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때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각성(awareness)이라고 했다.

여기서 '진아'는 단순한 '무아' 개념의 상대어가 아니라 유아와 무아, 비아와 비무아를 모두 넘어선 해탈 혹은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고를 소멸할 것인가. 마하르쉬에 따르면 에고를 소멸하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하는 탐구를 통해서 이 '나'라는 생각, 즉 에고의 근원을 추적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이러한 명상 대가들의 가르침이 갖는 장점은 단순 명료함에 있다. 진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의 무상한 마음을 버리면 곧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세파에 찌든 보통사람도 출가자나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매력을 더한다.

그러나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가르침이 팔정도와 육바라밀 등 전통적인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도의 견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열권 법사의 지적은 이런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붓다 이전 인도의 브라만, 자이나교, 우파니샤드 등의 요가 수행자들도 주객이 하나가 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말했습니다. 이것을 붓다께서는 '무의식이 엷어져 공(空)으로 착각한 무기공(無記空)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오온의 극히 미세한 생멸의 흐름이 남아있는데도 이 상태를 꿰뚫어보지 못해 범아일여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지요. 오온에서 무상, 고, 무아를 100%로 볼 때 탐, 진, 치가 완전히 제거된 생사해탈이 실현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명상아카데미 이사장 혜봉법사

"일상속에서 끊임없이 관찰하라"

'사람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호응

'밝은세상 명상아카데미' 이사장인 혜봉 법사가 최근 펴낸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불광)이 쉽고 간편한 명상법으로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 '관법 명상', '진언 명상', '절 명상', '염불 명상', '화두 명상' 등 다섯가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는 혜봉(사진) 법사의 명상법들은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명상법을 소개한다.

■ 걷기 명상=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걷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자각한다. 자신이 끄달리고 있는 경계가 있으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걷기에 집중한다. 오직 걷는 것만 남을 때 참 자기를 만날 수 있다. 보고 듣고 닿이는 모든 사물과 느낌이 궁극적으로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면서 걷는다면 더욱 편안하고 조화로운 일상을 얻을 수 있다.

■ 달리기 명상=달리기전,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모두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 오직 달리고자 하는 마음만 남을 때 시작한다. 달리면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한다. 오직 발바닥에 마음을 두되,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부위에 마음을 두며 달리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발바닥에 마음을 둔다. 달리고 있는 운동장 내지, 주변 사물과 하나가 되어 달린다.

■ 청소 명상=청소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정돈과 흐트러짐에 대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는다. 먼지를 털 때는 내 마음의 먼지를 터는 마음으로 한다. 이 명상의 핵심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데 있다. 일상의 청소가 삶 자체임을 깨닫게 한다.

■ 산행 명상=산을 오르기에 앞서, 산에 대한 좋고 싫은 마음들을 살펴서 버린다. 겸허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되, 오른다는 마음마저 내려놓는다. 나무, 새, 계곡의 물 등 모든 자연현상이 주는 느낌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걸음을 옮긴다. 정상에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산들을 파도처럼 바라보거나, 텅빈 허공을 바라보는 명상을 한다. 나아가, 자기 자신이 산과 대지가 되는 상태를 명상하고, 자신이 텅빈 허공 자체가 되는 명상을 한다.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노년의 열정으로 황금빛 희망 클릭

바라밀현장

자발적으로 모인 '은빛 봉사대'
보조요원 넘어서 강의 나설정도
선생, 제자 연령 비슷 마음도 척척

"이러한 글 작성방법을 HTML이라고 하는데, '마우스로 찍으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방식의 문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어떤 곳을 마우스로 누르면 바로 페이지가 열리지요? 그런 페이지들이 모두 이 HTML로 만든 것이죠."

10월 28일 서울 삼천사가 운영하는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컴돌이 봉사대'를 찾았다. 17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컴퓨터 강좌 도우미'가 바로 이들. 복지관 컴퓨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또래 어르신들의 컴퓨터 교육을 보조하고자 나선 봉사대다. 2000년 제 2기 가을 강좌를 수료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니 컴퓨터 도우미 경력도 어느덧 3년이 다 돼간다.

"처음에는 당연히 컴맹이었지요. 남아도는 시간에 산 오르는 것이 지겹던 터에 우연히 복지관의 '컴퓨터 무료교육' 광고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컴돌이 봉사단장 김윤식(75) 할아버지. 칠순을 넘겨 만지게 된 컴퓨터에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깨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글 프로그램을 배우는 3개월 기본과정을 떼고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본과정'에 이어 '인터넷 과정'과 '홈페이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그는 '보조요원'을 넘어서 직접 강의에 나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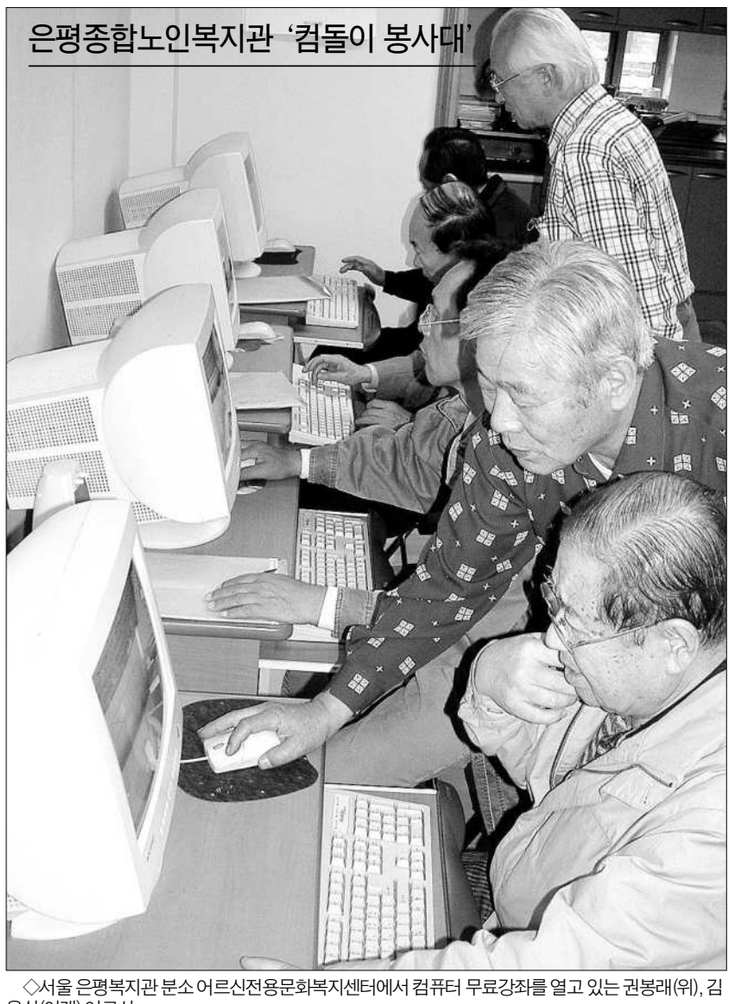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연령대가 고만고만하다보니 한마디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막히는 부분도 비슷하고 재미있어 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그래서 양쪽 모두 즐기면서 배우고 있죠."

은평복지관 분소 어르신전용문화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번 꼴로 '한글 중·고급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권봉래(70) 할아버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문화센터를 지키는 전천후 도우미가 됐다. 한번의 강의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난관에 봉착해 찾아오는 '제자 어르신'들을 위해 늘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가 펼치는 일상의 봉사 때문일까. 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격의없이 드나드는 사랑방 풍경을 자아낸다. 전직 외교관에서부터 미장이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수강생들은 다양하지만, 이런저런 훈훈한 미담에 어르신들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그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서도 '컴퓨터'란 화두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아 그 마음은 젊기까지 하다.

"얼마 전 60세 노인이 등록신청을 하러와 대뜸 '이 나이에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뭔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음이고 또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컴돌이 봉사대뿐만 아니라 복지관 연극반과 민화반 등의 강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응현(70) 할머니는 노년의 열정 하나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분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의 활발한 봉사활동에서 오롯이 배어난다. 그런 이들이 하나둘 모인 봉사단이기에 다짐 또한 옹골차다.



은평종합노인복지관 '컴돌이 봉사대'

◇서울 은평복지관 분소 어르신전용문화복지센터에서 컴퓨터 무료강좌를 열고 있는 권봉래(위), 김윤식(아래) 어르신.

"컴맹이었던 노인들이 이 정도 가르치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는 칭찬은 원치 않습니다. 그 어느 문화회관보다 잘,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컴돌이 봉사단이 되려고 합니다." (02)385-1351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윤규희 씨.

"佛書보내기 생활화 하세요"

'삶의 자양분' 전하려 시작
학생들 눈높이 고려 도서 선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는 깨달음을 향한 방편이라는 의미에서 보시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친다. 이 같은 보시를 소리없이 실천하고 있는 불자가 있다. 윤규희(58) 씨가 그 주인공. 윤 씨는 6개월 전부터 불서전문 책방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시간 날 때마다 불교서적을 구입, 매달 3곳의 중·고등학교에 불서를 보시하며 꾸준한 선행을 베풀고 있다.

"불교를 하나도 모를 때는 불서의 가치도 몰랐었죠. 그런데 막상 불교공부를 시작해 보니 불서읽기가 삶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지요."

윤 씨는 10년 동안 각종 불교서적들을 탐독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겨갔다. 체계적인 학습과정은 밟지 못했지만 그렇게 키운 안목으로 양질의 불서도 많이 접하게 됐다. 그러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 불서만한 지침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불서 기증을 시작했다. 그렇게 전달된 책들은 속초고등학교의 '불교반', 속초여고 및 현북중학교의 도서관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보내는 책의 종류는 일정치 않지만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책은 많지만 막상 읽고 싶은 책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까닭에 윤 씨는 만화로 된 불서를 자주 고르게 된다. 독서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 눈높이를 고려해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개설서나 법어집도 함께 보내 불서읽기 환경 마련에도 애쓰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목표한 바가 있어 언제나 즐거운 윤 씨. 그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 내세우기 부끄럽지만 다른 불자들도 불서보내기·읽기를 생활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브렌다 쇼샤나 박사(下)

無心에 이르는 메시지 전달

화두 간결하게 풀어 심리치료에 접목
일상사와 함께하는 실용적 수행 강조

"선(禪) 수행은 특이하거나 어렵지 않다. 놀랍게도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다.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단지 경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명상의 시간(Zen Miracle)' 중에서)

미국의 유명 심리 치료사이자 선 마스터인 브렌다 쇼샤나(Brenda Shoshanna) 박사는 가족, 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선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선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청소, 요리, 식사, 취침, 걷기, 웃음 등 일상 속의 수행은 좌선 만큼이나 중요한 수행의 소재들이었다.



◇브렌다 쇼샤나 박사

그의 스승인 조앤 선사가 "발이 숙명적으로 땅을 밟아야 하듯 수행을 계속하면 깨어있는 알이 이어지게 된다"는 가르침대로 브렌다 박사는 "순간순간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지침은 이렇다. "말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도록 하라. 지금 서있는 곳에 대해 생각하고,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집중하라.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이렇게 하라."

대표적인 선어록인 <무문관> <벽암록> 등의 난해한 화두를 현대적인 언어로 간결하게 풀이하며 도시인들의 심적 고통을 풀어주는 브렌다 박사의 선 심리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간순간을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등 간단한 메시지들은 단순하면서도 무심(無心)에 이르는 강력한 암시를 준다.

"지금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집중하되 아무 것도 하지말라. 다시 생각하고, 거듭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모든 불필요한 행동과 생각, 계획도 세우지 말라. 해변을 걸으며(마음 편한 것이면 어디라도 좋다) 그 순간을 즐기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전혀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라." ('명상의 시간' 중에서)

선(禪)은 본래부터 일상사를 떠난 것이 아니지만, 현대의 미국인인 브렌다 박사에게 있어 선은 더욱 '실용적'이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수행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것을 처리할 뛰어난 방법으로 사용된다. 수행의 핵심은 집을 청소하는 것, 과감하게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용감하게 떨어내는 것과 같다.

뉴욕심리학협회, 바나드대학, 존 F. 케네디 의료센터, 에이멜피대학 등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25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고 심리치료사로 활동해 온 브렌다 박사는 선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과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에 접근하는 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녀는, 우리가 매일 받는 '일상의 선물과 기적'을 깨닫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안팎의 장애물(번뇌망상)을 이해하고 없앰으로써 친구를 적으로, 즐거움을 고통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효과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좌선을 통한 근본적인 힘과 불성(佛性)에 대한 자각을 통해 우울증, 적개심, 혼란 등 온갖 망상은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생각들은 선에 대한 간략한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선은 깨달음을 통해 기적을 보며,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수행이다."

김재경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최면아카데미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적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편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읍할 따름 입니다.
한국최면아카데미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체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속인들과 빙의령에게 이야기하듯 진정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줄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최면아카데미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합장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최 면 이 론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실기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삭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실기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실기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영가천도 실기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증세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치유력향상기법	영성감응과 최면치유암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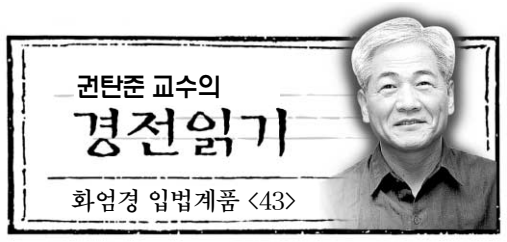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부설 전생·빙의 연구소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1월 21, 28일, 12월 5, 12일
매주 금요일, 총 4회, 30시간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사자빈신비구니의 법문

분별없이 지혜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
서원에 의한 삼매가 중생 교화의 중심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으로 가서 수나(輸那)라고 하는 나라의 가릉가(訶陵迦) 숲의 성(城)에 이르러 사자빈신비구니(獅子頻申比丘尼)를 찾아 보았다. 그 비구니가 승광왕(勝光王)이 보시한 일광(日光)동산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동산에 가서 두루 살펴 보았다.

그 동산에는 가지 가지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하고, 냇물과 샘과 못에는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한량없는 보배나무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고 나무 밑에는 사자좌가 놓여 있었다. 그 동산의 여러가지 훌륭한 풍광과 아름다운 장엄은 마치 하늘나라의 궁전과 같았다.

이 때 선재동자는 사자빈신비구니가 모든 보배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납납 사자좌에 모인 대중도 같지 않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사자빈신비구니는 그들의 욕망과 이해함이 서로 다른 차별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고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이 비구니가 (1) 넓은 눈으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본다[普眼捨得]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2) 일체의 불법을 설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3) 법계의 여러가지 차별을 밝힌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4) 모든 장애의 바퀴를 없앤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5) 모든 중생에게 착한 마음을 내게 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6) 훌륭한 장엄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7) 장애가 없는 진실을 안에 갈무리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8) 법계의 모든 영역[법계 만다라, 法界圓滿]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9) 마음의 보배 곳집[心藏]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10) 두루 널리 기쁨을 출생시키는 곳집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등의 열 가지 반야바라밀문을 머리로 삼아 수없는 백만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사자빈신비구니의 이러한 경계를 보고 또 부사의한 법문을 듣고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는데,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삼세(三世)의 모든 법의 장엄을 두루 나타나게 한다. 나는 이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왕(三昧王)을 얻었고, 이 삼매로 인하여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시방 모든 세계의 도솔천궁에 있는 일생보처보살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납납 보살의 앞에서 불가설세계의 티끌 수 몸을 나타내고 납납 몸으로 불가설세계의 티끌수 공양을 하였다.

어떤 중생이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았으며, 어떤 중생이든 나에게 오면 나는 반야바라밀다를 말하여 주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지혜눈으로 보는 까닭이다.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여래를 뵈어도 여래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몸[法身]에 대해서 통달한 까닭이다.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까닭이다.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이다."

사자빈신비구니가 설하고 있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 법문은 반야의 지혜와 커다란 원[大願]에 의한 삼매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비구니가 일체 세계의 다양한 중생들의 욕망과 이해력이 제각기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각기 알맞은 법을 설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구니가 일체의 분별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야의 입장을 근본으로 하여 열 가지 반야바라밀을 으뜸으로 삼는 셀 수도 없는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수한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체지(一切智)를 성취하는 일이 된다. 반야의 지혜 광명은 일심(一心)의 순간에 모든 법의 장엄을 두루 나타나게 하는 여러가지의 삼매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을 공양한다고 하는 것도 반야의 지혜에 근거를 두고 지극한 원(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한 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여러 가지의 삼매인 것이다. 사자빈신비구니가 시방세계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장애가 없이 적극적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은 반야의 지혜와 여래를 고양하려는 대원(大願)에 의한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⑯

견성성불(見性成佛)-4

무명에만 의지한 삶이 문제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생은 이미 부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무명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양면적이라 할까, 모순이라 할까, 역설적이라 할까, 그런 아리송한 존재이다.

'역(逆)의 합'이라는 말이 있다. 라틴어 'coincidentia oppositorum'을 번역한 말인데, 고대 문헌에 이미 등장하니 매우 오래된 개념이다. 반대되는 양극(兩極)이 한 데 모였음을 가리킨다. 한 데 모였다고 해서, 양극이 합쳐서 뭔가 중간의 것이 생성되고 양극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서 보라색이 만들어지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없어지는, 그런 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어느 한 극이 없으면 다른 쪽 극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늘 양극이 쌍으로 함께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극이 늘 상대를 동반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남자라는 개념과 여자라는 개념은 반대되는 양극을 가리키는데, 그 둘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지 따로 떼어놓으면 어느 쪽도 성립할 수 없으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상징, 종교적 세계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 역의 합을 거론한다. 성(聖)과 속(俗)이라든가 조물주(造物主)와 피조물(被造物) 등 대척(對蹠)되는 양극이 함께 함으로써 종교라는 현상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한 역의 동반 내지 역의 합이 종교의 사상과 신행에 주요한 모티브로 작동한다. 각(覺)과 불각(不覺), 부처(깨달은 이)와 중생(못 깨달은 이)도 그러한 양극의 관계이다. 그리고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하는 얘기나, 불각인 듯해도 실상은 모두 본래 깨쳐있다고 하는 본각 개념은 그 양극의 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부처라는 쪽은 내버려둔 채 무명만 발동시키고 무명에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데 중생의 문제가 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무명이라 하면 '밝지 못하다' '보지 못한다'는 뜻이니, 인생과 사물의 진상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알아야 할 인생과 사물의 진상이 뭐냐? 불교 교리에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이 되는 것은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이다. 무상이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하며 생겨났다 없어지곤 한다는 뜻이고, 무아란 그러므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아(我)라고 할 만한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혹자는 "나는 무아니 무상이니 하는 얘기는 숱하게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르니 하는 말이지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여기에서 무아와 무상의 이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그 이치를 온몸으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는 뜻이지, 머리로 아느냐 아니냐는 정도를 문제삼는 게 아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요"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았으니 일단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도 속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한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으로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엄두가 안 나고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그러니 "바로 당신이 그대로 부처님이요"라고 일러주면 속으로는 "앞으로 성불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안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견(見), 즉 '보라'고 한 것이다. 견성(見性),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정체를 온전하게 확인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불(成佛)이란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확인할 뿐이라는 뜻이다.

■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 종교학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9>

우산을 든 인간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하여 고통을 피해 안락함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동물들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솔직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많아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의 부처님 말씀을 배우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은 신심이 좋아 여러 법회에도 잘 참석하시면서 그 누가 보아도 칭찬이 자자한 분들 중에도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남 보기에 칭찬받을 만큼 열심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였기에 주위의 힘들어하는 타인에게 부처님 말씀으로 좋은 조언도 하면서 스스로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산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정작 자신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변해서 힘든 문제가 닥치면 어찌할 줄 모르거나 매우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으로는 고통 속에 지내는 경우도 본다.

이것은 결국 많은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치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진심으로 부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자기화가 되지 못한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은 내게는 아무 도움 되지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화가 되지 못한 채 겉모양만 불제자라면 여전히 남의 장단에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불제자로서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한 구절의 뜻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무릇 상이라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허망한 것이기에 상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다른 경전 읽을 것도 없다.

그렇기에 누가 물으면 부처님 법이 좋다면서 정말 그럴싸하게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도, 정작 가족의 행복이나 주위에 대한 배려 없이 도(道)를 구한다며 유명 법회나 참선 모임 등을 찾아다니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부류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그저 금강경 사구게 중의 한구절만이라도 자기화하기 위하여 기도, 염불, 혹은 참선 등으로 부단히 노력하지는 않고 밖으로만 구하니 어찌 평생 헛고생만 하지 않을 손가.

진리는 자기화 못하면 지식으로만 존재
우산을 놓고 온몸으로 '법의 비'를 맞으라

그러한 이들은 종종 가랑비에 서서히 옷 적시기 위해 다닌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한다. 그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기화를 위한 노력 없이 여러 법회나 모임에 억겁을 다닌다 해도 결코 옷은 적셔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 내리는 곳을 찾아다닌다 해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자기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우산을 내려놓는 격이니 우산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단 한방울의 빗물로도 그대는 완전히 젖을 것이다.

그대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디서 비가 많이 내리느냐 안내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법계가 아무런 대가없이 내리는 유정, 무정의 법우(法雨)로 그대 몸이 그대로 젖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그대의 우산을 내려놓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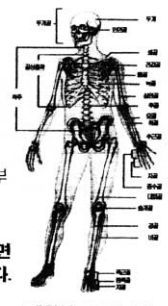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3-8813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 호남지사(전남 · 광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3화)

"믿음에 대하여…"

〈출전 : 법구비유경 제1;독신품;4-580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선 · 악의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의 뉴스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비자금'이라고 할 정도로 온통 비자금 이야기들이다. 어느 정당이 어느 대기업한테서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한창이더니 드디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소식까지 들린다. 이 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선재는 참 할 말이 많다. 일전에는 법원에서 금융권에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해서 선재를 웃겼다. 결국 법원의 집행에 따라 집안의 물건들을 경매 처분하느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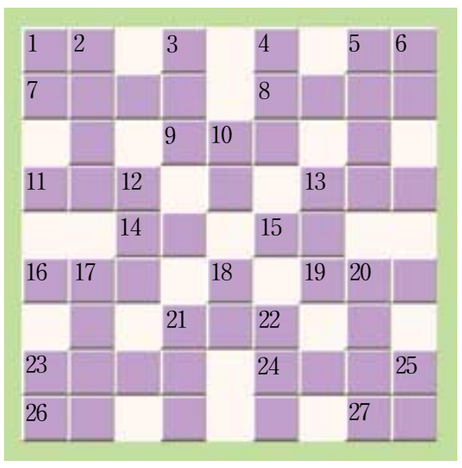
하지만 그보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의 실랑이는 그에 대한 추징금 2,204억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은 대통령 자리를 광주를 희생으로 삼아 강제로 앉았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니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든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어이없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물건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미십계법>의 말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선재는 생각한다. 그러나 "시주한 물건이나 대중의 것, 나라의 것, 개인 소유물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지 말라.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을 안 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와 같은 경전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 속도 아니며,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선악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가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선재는 믿는다. 꼬리가 잡힌 100억원은 이제 과보의 시작이다. 나라를 훔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선재도 세상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불 보살의 큰 자비 5. 기발하고 뛰어난 지혜 7. 여래의 본원력으로 주어지는 신심 8. 일정한 기간동안 좌선 정진을 하는 것 9.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 3명과 3업을 원만히 갖추었다는 뜻 11. 교법대로 계행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 13. 큰 실수 14. 크고 높은 덕 15. 숨겨서 소중히 간직함 16. 현상계를 차별적으로 봄 19.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대 21. 방생을 하는 연못 23. 한데에 무대를 마련한 극장 24. 불 보살은 모든 중생과 한 몸으로 여겨 대자비심을 일으킨다 26. 무엇을 하는데 알맞은 곳 27. 경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석하는 것.

〈445호 「교리퍼즐」 정답〉

대	사		운		불		국	부
화	생	방	전		국	태	민	안
	자		대	선	사		투	
돌	부	처		심		검	표	원
		삼	계		대	륜		
사	하	촌		지		법	구	경
	화		전	계	사		품	
대	중	설	법		십	이	연	기
인	생		계		세		대	성

세로 1. 한 없이 넓고 큰 서원 2.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 3. 중국 선종의 3대조 승찬 스님이 선의 목적과 이치 등을 4글자 146구로 정리한 책 4. 부처님의 가계는 무슨 종족? 5. 이미 정해진 사실 6. 지각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지면이 일정기간동안 진동하는현상 10. 수행과 그에 따른 결과 12. 자성을 본다 13. 대장경을 보관하는 전각 17.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듯한 별세계 18. 과거 생 20. 아득히 넓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21. 방장이 기거하는 방 22.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다는 학설 23. 곡식 등을 한데에 쌓아 둠 25. 빗돌.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 양초 (색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장인정신을 담아 손으로 정성껏 제작한 수공예양초입니다.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광고협찬 : 불교용품점
문의 전화 및 취급점 상담 | 서울 02)734-1383 이화불교사(조계사 옆) | 대구 053)354-7880 만평불교사

휴대용 다구(茶具) 탄생!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도구

(株)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代)
부신지사 051)558-4634

취급점 모집

육 법 등 (六法燈)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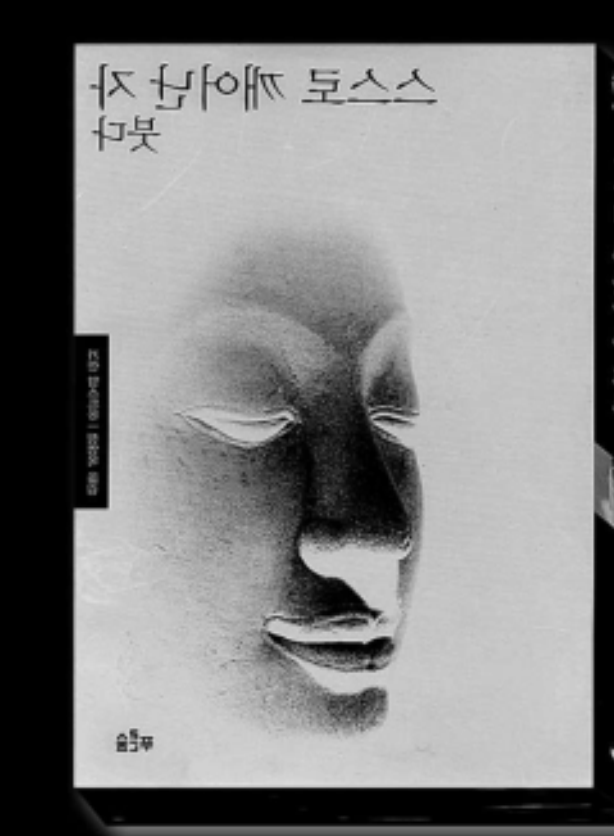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사무적 잣대로 쓴 부처님 생애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지음
정영목 옮김
푸른숲 / 1만2천원



'축의 시대' 부처님 출현이 갖는 의미 철학
빨리어경전 참고 저술…곳곳에 낯선 용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를 [illegible] 빨리어 경전에 전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접근해 들어갔다.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던 기원전 6~5세기의 인도 사회와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하고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의 삶을 추적해 나가는 순서로 쓰여졌다.

하지만 지은이의 목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온전히 복원하는데 있지 않았다. 그보다 이 책을 통해 붓다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지은이는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독특한 시대로 꼽히는 '축의 시대(axial era, 기원전 800~200년)'를 배경으로 붓다의 출현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 있다.

'축의 시대'란 명칭은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1883~1969)가 제안한 것으로 [illegible] 읽고 있다. 만약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따랐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훌륭한 곳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출간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기를 읽어 본 독자들이라면, 산스크리트가 아닌 빨리어로 표기된 '담마(다르마)', '닙바나(니르바나)' 등이나 '출가'를 '떠남'으로, '가야 하다'를 '피난처를 구하다'로, '무량심(無量心)'을 '가없는 마음'이라고 풀어 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서양인 연구자의 눈으로 본, 즉 현대 서구인에게 비춰진 붓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잠자는 동안 수행한다

'마음의 초점 맞추기' 등 구체적 방법 제시

'잠과 꿈의 명상'

텐진 완걀 린포체 지음
홍성규 옮김
정신세계사 / 9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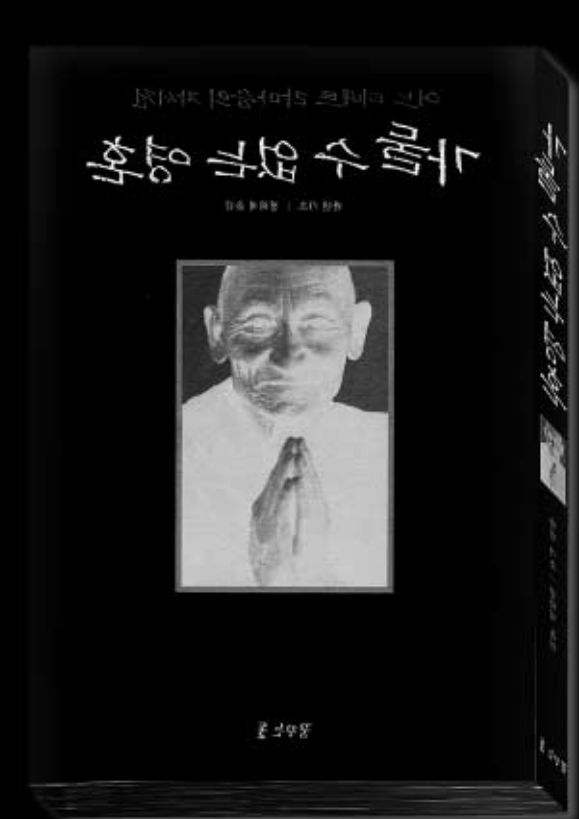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낸다. <잠과 꿈의 명상>은 바로 그 잠자는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만약 우리가 잠 속에서도 수행을 이어갈 수 없다면,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깨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묻는 지은이는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게 하는 것이 '잠과 꿈 명상'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아침에 일어나 생활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꿈꾸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모두 자신들이 만든 환상이고 꿈일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지은이는 '고요하게 머무르기'와 '집착과 혐오를 없애기',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밤낮으로 계속되는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한다.

지은이 텐진 완걀 린포체는 불교와 티베트 전통 가르침인 뵌교의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1991년부터 미국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펴고 있다.

나에게 감옥은 寺院
족쇄·수갑은 경전





'가둘 수 없는 영혼'

팔덴 갸초 지음
정희재 옮김
꿈꾸는 돌 / 9천9백원

티베트 탄압 온몸으로 저항…30년간 옥고
92년 석방…세계 각국 돌며 독립지원 호소

1943년 10살의 나이로 출가한 티베트 아이 노틈. 팔덴 갸초(사진)라는 법명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했던 그에게 가장 먼저 닥친 시련은, 중국의 티베트 침공에 반대했던 스승을 '인도 정부의 스파이'로 고발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협박이었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은 대가로 30여 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가둘 수 없는 영혼>은 티베트 최장기수이자 고통 받는 티베트의 현실을 유엔에서 증언한 최초의 티베트인인 팔덴 갸초의 입을 통해 티베트 현대사의 비극을 전하고 있다.

중국당국에 체포된 그는 고문과 강제노역, 굶주림, 사상교육에 시달려야만 했다. 감옥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다. 발에는 족쇄가,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전기봉을 입에 넣고 고문하는 바람에 이는 모두 빠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형에 처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고, 수감된 동료들의 비리를 고발하라는 압력은 물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부정하라고 강요당했다. 그 과정에서 감옥 안에서의 처형과 자살은 계속됐다. 처음, 티베트 봉기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7년을 선고받았던 형기는 탈옥 시도와 종교 행위를 했다는 모함, 감옥 안에서의 시위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티베트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며 불교를 버리는 것이라는 신념에서였다. 중국 공산당은 팔덴 갸초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사상과 영혼까지는 결코 가둘 수 없었다. 이미 그에게는 감옥이 사원이었고, 족쇄와 수갑이 경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61살이 된 1992년 마침내 석방된 그는 곧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로 건너가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전했다. 이후 영국과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며 티베트의 독립을 호소했으며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유엔에서 중국의 티베트 탄압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다람살라에 머물며 티베트 독립을 위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

"티베트의 어린 소년소녀들은 지금도 '티베트 자유'를 외치고 있다.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여수령 기자

자각·각타의 길 제시

'원효 철학 에세이'

신오현 지음
민음사 / 2만원

[illegible]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정 스님	지영사
2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4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5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8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9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도서 안내: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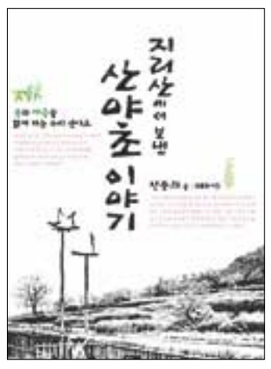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승복, 법복안내
해동승복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불교의식(범음·범패)
제27기 학인모집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053)955-7725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유코음향연구소
www.yukosound.com

당뇨
당치 발란스 (糖治)
080-558-6633



“산야초 茶로 자연의 생기를”

‘…산야초 이야기’ 펴낸 전문희 씨



“차를 마셔서 당장 무슨 병이 낫고 몸이 즉각 어떻게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과욕입니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건강을 생활화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요. 쉽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차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냈어요.”

전문희(41 · 사진 오른쪽)씨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산천에서 자라는 사계절 야생식물로 만든 차와 식이요법을 소개했다. 책 소개를 위해 멀리 지리산 피아골 농평마을에서 달려온 전씨를 10월 27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이 차를 마시는 일이지요. 특히 자연의 생기를 그대로 담은 산야초차를 마신다면 수분 뿐만 아니라 엽록소를 통한 비타민과 미네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패션모델, 통기타 가수, 인테리어 사장 등 제법 성공한 사업가로서 생활하던 전씨가 약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여 년 전. 어머니가 임파선암 말기 선고를 받자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내려갔다. 그는 고향 산야에서 직접 체취한 각종 산야초로 자연치료법과 한방요법을 병행,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어머니를 3년이상 더 살게 했다. 바로 산야초 덕분이었다.

이런 귀중한 경험이 전씨가 지리산에 살면서 산야초 차 보급운동을 하게 만들었다. 백초차, 칡꽃차, 쑥차, 감잎차, 연잎차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초 20여 종으로 차를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건강을 위한 산야초 모임’도 이끌고 있다.

백초차 등 구전돼온 20여종 복원

과정 · 식이요법 등 수필형식 소개

특히 이 책에는 저자가 산중스님들로부터 구전돼 오던 우리나라 전통의 산야초차를 복원, 현대화하고 일반화하기 까지의 과정이 수필식으로 잔잔하게 소개돼 있다.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식용식물은 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오래 마시다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래 제자리를 찾은 듯 깨끗해 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찔레꽃의 경우 그 속에는 더위를 식히고 위장을 보호하며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찔레꽃은 피기 시작할 즈음 따서 찌고 말리기를 세 번 거듭해 차를 만든다. 토끼풀도 차 재료가 된다. 그늘진 곳에서 말렸다가 달여 마시면 폐결핵과 천식, 감기, 황달, 이뇨, 해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냉이는 그 뿌리를 말렸다가 겨울철에 달여 마시면 감기예방에 좋다.

이외에도 전씨는 자양강장과 당뇨 등 온갖 질병의 예방 치료에 좋은 뽕잎차, 핏속의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는 칡꽃차, 세균성 이질에 특효인 질경이차 등 갖가지 산야초 차를 소개했다. 또 약리작용이 뛰어난 꿀풀, 닭의장풀, 질경이 등의 효능과 가을의 산야초차인 대추차, 국화차, 구절초차 등의 제조 방법도 알려 준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심리적인 안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리산에 살면서 터득한 지혜이지요”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장구 · 해금 인도에서 전래됐다



‘실크로드, 길위의 노래’

전인평 지음

소나무 / 1만8천원

실크로드란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을 이어온 동서 교통로이다. 이 길을 통해 동양의 비단이 유럽으로 들어갔고, 페르시아의 유리그릇이 동쪽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 위에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며 각자의 문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그 속에는 음악도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는 사막길과 중국에서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바닷길 양쪽을 따라가며 전인평 중앙대 국악대학 교수는 동 · 서 세계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통해 오갔던 문물, 특히 음악을 새롭게 발견했다. 장구와 해금이 멀리 인도에서 전해졌고 비파가 이란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대 인도 문헌에서 우리 음악인 ‘영산회상’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장단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 음악을 세계적 지평에서 넓게 보는 눈을 뜰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동안 실크로드를 오가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들과 그들의 음악을 기록한 현장 보고서다.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를 비롯해 인도의 비나, 몽골의 마두금 등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음악, 악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나라의 문화, 예술, 역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보따리도 넉넉하게 풀어 놓는다. 즉 음악을 통해 실크로드 문화를 엿보는 기행서인 셈이다. 그러나 단지 민속학적인 소개에 머물지만은 않는다. 타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자화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던지기도 한다.

실크로드 문화 속의 음악 · 악기 등 조명

저자는 이 책에서 남인도 현악기인 ‘비나’를 타는 선생과 제자의 모습을 보고 소통의 전율을 느끼고, 영국 밴드 비틀스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도 현악기 시타르 연주를 들으며 자유를 맛본다. 특히 어떤 음악에서든 진지함은 기교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중간 중간 삽입된 컬러 사진과 깔끔하게 편집된 책의 구성은 독자들에게 세계 음악과 문화, 더 나아가서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정신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가령 몽골에서는 찰현악기(활로 마찰시켜 소리내는 현악기)가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든지, 동물의 울음소리나 새소리, 물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음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저자는 ‘음악’ 하면 으레 자기네 전통음악을 가리키는 인도와 일찌감치 서양 음악에 안방을 내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다른 나라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더욱 절감한다는 대목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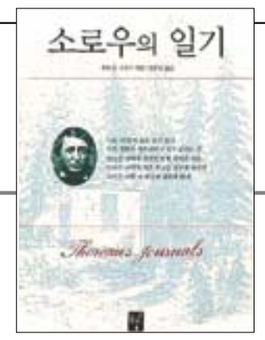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소로우의 일기’

헨리 D 소로우 지음 / 윤규상 옮김

도솔 / 9천9백원



자연 친화적인 삶 신선한 감동

19세기의 자연주의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유산 중에 가장 값진 것은 그가 손수 만든 상자 안에 가지런히 담긴 39권의 노트이다.

그 노트에는 다름아닌 일기가 적혀 있었다. 이 <소로우의 일기>는 1906년 보스턴의 출판사가 14권으로 출간했는데, 이 책은 그 가운데 일부를 수정없이 그대로 뽑아 엮은 것이다.

소로우가 24년에 걸쳐 쓴 2백만 단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일기에는 그의 특징이 포괄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소로우는 어떤 장르의 글보다도 일기쓰기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소로우의 일기>는 주로 자기 주변의 일을 자신에게 말하는 완벽한 독백체로 서술되어 그의 진실한 내면생활이 잘 드러나 있다. 더불어 한 걸음씩 그의 정신이 지나간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다.

혹적인 대지의 영혼이 어떻게 쪼개어진 형태로든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야생동물과 인디언과 함께 점점 훼손되어가는 숲을 들여다보며 깊게 한숨 쉰다. 그 한숨소리는 방금 베어낸 거목의 우듬지에 있던 둥지를 찾아 배회하는 어미새의 안타까운 날갯소리와도 같으며, 모피상과 사냥꾼들에게 부모 형제를 빼앗긴 비버가 커다란 빈집에 홀로 남아 하릴없이 흔드는 체머리와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비록 그는 19세기를 살다간 인물이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가 남긴 문화적, 사상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21세기적인 환경의식을 지녔던 사람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무소유>의 저자인 법정 스님도 소로우의 팬중에 하나다. 자신의 수필에서 소로우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모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미국

광활한 야생지대 생활 노트 39편에 남겨

소로우는 1817년 7월 12일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었으며 아름다운 콩코드에서 태어난 것을 무엇보다 큰 행운으로 여겼다. 그래서 일까 대학 시절을 빼고는 평생 동안 콩코드의 숲 속에서 살았다.

소로우가 살았던 환경에 오늘을 비추어보는 것은 우울하지만, 소로우가 안내하는 숲길로 따라들어가는 것은 즐겁다. 콩코드의 광활한 야생 지대, 바람에 물결치는 자작나무 숲, 표범과 개구리와 나누는 열두 시간의 대화, 달빛을 안고 넘실대는 강물, 우연히 눈길을 마주친 야생동물의 투명한 눈망울….

성큼성큼 숲 속으로 사라지는 소로우를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뒤를 쫓다보면 금새 소로우의 흔적은 없어지고 광활한 콩코드의 대지만 펼쳐진다.

길을 잃든, 길을 찾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소로우는 가능한 주관적 영탄을 배제한 채 카메라처럼 풍경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려 애쓴다. 풍경을 보지 못하고 소로우의 목소리만 쫓는다면 길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곧 저 ‘매사추세츠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를 방문해 소로우의 체취를 맡고 감회를 털어놓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바로 소로우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땅과 하늘에 있는 경이로운 모든 사물들과 친숙해지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남들이 궁핍이라고 여기는 것을 거꾸로 인생에 유리한 이점으로 바꾸어놓은 현명한 방법도 알게 되었다.

또 불필요한 것을 철저히 배제한채 무소유와 무욕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철저히 성찰했다.

한 달 동안 노동을 해서 나머지 열한 달 동안 살아갈 양식을 마련했다. 그렇게 마련된 열한 달 동안 그는 작가로서, 사상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완벽해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하루에 적어도 4시간 동안 세상사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언덕과 들판으로 산책하지 않으면, 내 건강과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소로우의 자연친화적인 삶이 이 가을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김주흥 / 원주공고 교사

이 책은 <월든>으로 널리 알려진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생전에 쓴 방대한 일기중 일부를 간추려 수정없이 그대로 옮겨쓴 책이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차량용

가정용

사용처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것입니다.

제조원 산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자비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가 아닌 철학이라 말하기도 한다. 혹자는 불교를 철학과 같은 종교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 것인가? 아니면 철학적 요소가 강한 종교라 보아야 하는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지만 우선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이란 논리를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명제나 논제에 대한 증명을 논리라는 도구로 해결한다.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것, 논리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철학이라 말할 수 없다. 반면에 종교는 논리 보다는 실천을 중시한다. 여기서 실천이란 용어는 종교적 영성 수련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불교를 철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불교를 철학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논리적인 요소도 있으며, 그러한 초논리를 이용하여 사회적 실천과 종교적 덕성의 함양을 유도한다.

불교라는 종교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실천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자비라는 용어이다. 자비의 실천을 통해 불교가 추구하는 사회 건설을 획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불교의 자비는 조건을 따지지 말라고 전제한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초기 경전 중의 하나인 <숫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이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연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짧거나 길거나,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났거나 장차 태어나려는 것이거나,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여, 다 행복하여라(145-146송). 어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을 지키듯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갈고 닦아라(148송). 위이거나 아래이거나 모든 생명에게 방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의를 품지 말고, 선행을 갈고 닦아라(149송).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는 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쌓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니라(150송)."

조건이 없다는 것은 기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란 감정의 동물인 만큼 매사를 감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무조건이란 것은 감정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실생활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힘든 만큼 기쁨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삶인 만큼 세속적인 희생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자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 경전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땅은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땅은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럽다'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땅과 같이 해야 하리라.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증일아함경>제38)

"중생은 사랑하는 생각을 따라/ 사랑의 마음 속에 갇혀버리나니/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므로/ 괴로움을 갖가지로 준비하느니라. 만일 사랑을 바르게 알면/ 거기에 애착은 생기지 않으리니/ 사랑에는 나와 남이 없거늘/ 남이란 말을 어찌 하랴. 사랑에서 낫고 못남을 보면/ 한없는 다툼이 생기나니/ 보고 매달려 애착하지 않으면/ 위와 아래가 없어지느니라."(<잡아함경>제38)

<증일아함경>에서는 대지처럼 일체의 중생을 포용하는 자비를 역설하고 있다. 무한한 연기의 세계를 관찰한다면 배척할 대상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아니 대지처럼 생명체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오 · 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자비의 실천은 그러한 사랑이다. 이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 말한다.

<잡아함경>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닫힐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선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에로스라 표현한다. 감정에 충실하며, 너와 나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쁨 보다는 번뇌를 야기하는 것이다.

종교적 실천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

好惡불문 조건없이 사랑하는 마음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중생과 부처에 둘아닌 불성

佛性은 모두가 갖춘 천진한 성품

말과 의식 끊어진 곳에서 드러나

지상 백고좌

초발심(初發心)에 일체 모든 공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불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생은 법신(法身)이 드러나지 못해 원만한 행을 보이지 못할 뿐입니다. 초발심은 얼마나 근원적으로, 깊이 발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이전에 인격적으로 그릇을 갖추는 발심에 일생의 공부가 판가름 납니다. 소승과 대승은 이미 발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발심이 견고하고 깊어야만 구경(究竟)에 불과(佛果)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기까지 이 마음을 쉬지 않겠다'는 약속이 초발심입니다.

첫 발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부처라는 절대 확신을 갖는 여하에 따라 수행의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중생의 오랜 습은 본래마음을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지견(知見)과 알음알이가 붙어있는 한 불심을 드러낼 순 없습니다. 불심이 연기독로(緣起獨露)되어야만 본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사고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한 본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상(我相)을 여읜 아공(我空)을 얻은 후, 마음 밖의 경계인 법(法)마저 여의어서 법공(法空)이 되어야만 공부를 마친 겁니다. 능(能)과 소(所)를 몰록 잊고 나와 남이 함께 없어지고, 없어진 것 마저 없어진 구공(俱空)이 되어야만 중도실상(中道實相)이 드러납니다. 생명의 본래모습, 불지견(佛知見)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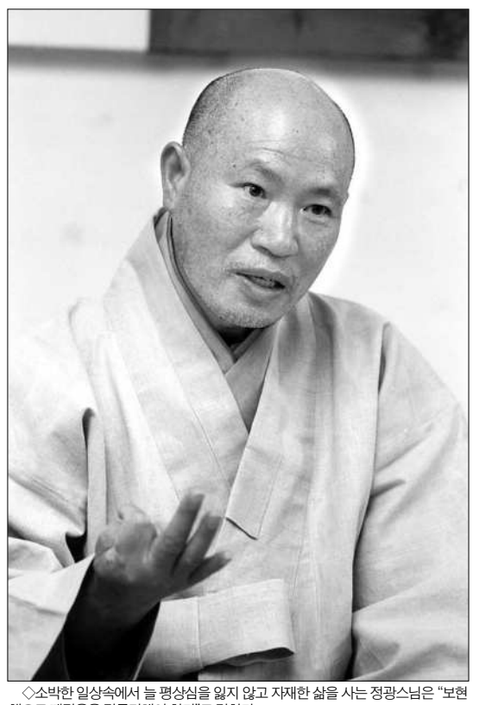
화두를 타파하더라도 근기에는 차별이 있어 깊이 들어가지 못해 구경각(究竟覺)에 계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해갈(解渴)에 만족하거나, 알음알이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해오(解悟)에 머물고 맙니다. 증오(證悟)했더라도 견성했다는 지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근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일상생활로 연결됩니다. 늘 깨달음의 연속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속에서 깨달음을 구현하셨는데, 그 분께서 깨닫지 않는 시공(時空)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佛)이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言語道斷 心行處滅)' 곳 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만족스럽게 이를 쓰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과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과 의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설법을 듣는다면 법문을 듣는 중에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임(保任)'이란 말은 깨달음 자체는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살행이니, 선이니 그러한 생각들이 늘 이어져 가도록 마음으로써 '보호임지(保護任持)'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와 행위가 늘 일치하는 삶입니다. 조금도 각(覺)과 상위하지 않아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어 언제나 화두가 현전하는 경지인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과 행위에서 놓치지 말고 지니도록 깊고 원만해야만 보임이 가능합니다.

보임이후에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평상심(平常心)'이란 말은 잘 알고 써야 합니다. 한량없이 변하고 있는 중생의 객진번뇌가 아닌, 상주불변하는 마음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평상심을 원만히 지닌 분들이 인격자입니다. 지견이 굳은 열사나 의사 같은 훌륭한 분들도 평상심을 가진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심을 수지한다는 것은 진여심(眞如心)을 늘 지니는 것으로 자성원만 청정심, 즉 늘 생멸없는 부처님의 본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변치 않는 이 마음을 믿고 이해하여 생활속에 쓴다면 일체고(一切苦)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심시불(自心是佛), 즉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내어야 합니다. 불 · 조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자등명(自燈明)한 불성을 계발해야 합니다.

불교의 삼매는 한 곳에 마음을 몰두해서 삼매를 이루는 외도의 삼매와는 다릅니다. 일체의 집착을 여읜 중도삼매(中道三昧)입니다. 중도는 이상에도 걸림이 없고 현실에도 걸림이 없는 '이사무애 사사무애(理事無碍 事事無碍)'의 경지가 돼야만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마음, 말과 사고가 깊은 일심속에 타성일편이 돼야 합니다. 불, 조사, 중생 모두 한마음으로 일체가 포용돼야 합니다.



◇소박한 일상속에서 늘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재한 삶을 사는 정광스님은 "보현행으로 깨달음을 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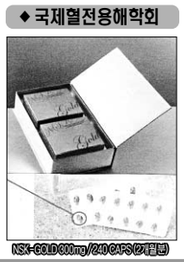
중도는 진공(眞空)과 묘유(妙有),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定)과 혜(慧), 지(止)와 관(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과 혜는 둘이 아니어서 정 가운데 혜가 드러나고, 혜 가운데 정이 들어있어 원래 나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성(惺惺: 깨어있음)과 적적(寂寂: 고요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세계의 성성함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이를 통해 망상을 제거함으로써 적적하게 경계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성과 적적이 상부상조해야만 병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변견(邊見: 죽으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斷見과 죽더라도 영원불

평상심은 부처님 본래마음 유지하는 것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SGLD 900mg/240CAPS (2개월분)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無一 우학스님
완벽한 참선법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만남!
禪觀雙修 (선관쌍수)
글·그림·사진 無一 우학스님
현재 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 회주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금강경 핵심강의, 길손여행, 달사대사 등 다수가 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buddhabook@hanmail.net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소 원 성 취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수능시험 합격기원 패션출시
전국지사 대 리 점 모 집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함 ◀
www.bu juk shop.com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부산 · 경남총판 051)441-1670

초발심에 모든 공능 갖춰져

정 광 스님

(봉암사 태고선원장)

발심 견고하고 깊어야만 불과증득 가능 명심하길

기자가 본 정광 스님

조계종 종립선원답게 봄, 가을 반결제까지 한 철도 쉬지 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봉암사 태고선원. '객이 주인처럼, 주인이 객처럼 사는 곳'인 봉암사의 원융살림을 이끌고 있는 정광스님은 봉암사의 터줏대감이지만 전혀 그런 상(相)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결제 철이면 환갑이 넘은 세수(61)로 20~30 대의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하며 솔선수범하는 구참 수좌의 표본이다.

1942년 11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스님은 61년 쌍계사에서 대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지낸 후 20여년전부터 봉암사에 주석하며 용맹정진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선을 좋아했다는 정광스님은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출가를 결심, 금생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리라는 원을 세웠다. 해병대 제대이후 3년동안 잠 안자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임제록>의 활발발한 무위

하루 14시간 정진-구참수좌의 표본

구산선문 연구… 한국禪 독창성 알려

진인(無位眞人)의 경계에 대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확연히 그 경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0년전 스님은 〈지증대사비명소고〉(경서원)를 펴내던 당시, 해이해진 선풍과 흐트러진 종지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봉암사에 현존하는 지증대사탑비, 정진대사탑비를 중심으로 한 구산선문 연구를 통해 한국 선의 독창성을 널리 알렸다.



◇기자와 함께 봉암사 동암으로 오르는 정광스님.

멸하다는 常見에 치우친 견해)과 중도마저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중도를 뛰어넘고 변견 속에서 중도를 드러내야만 남과 같이 고락을 같이하며 감화를 줄 수 있는 보현행(普賢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도란 어디있느냐. 윤회 속에서 고행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못난이와 깨달은 자는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중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 · 보살은 불법을 현실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중생심도 불심도 다 항복받아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깨달음 끝에 보현행의 수승함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수행과정에서 보현행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에 탐착되어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승에 머물러 원만한 불과를 증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에 어둡지 않은 채 이류중행(異類中行 : 중생과 함께 생활하며 교화에 힘쓰는 일)하여 무궁토록 개, 소, 말이 되어 보살행을 실천하더라도 조금도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중생과 이류중행하는 제일가는 보현행을 실천하는 문수, 보현보살은 그래서 본존(本尊)의 스승입니다. 돼지 중에 보현보살이 있다거나, 날품팔이 지게꾼이 도인이었다는 고사는 중생이 다 부처임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일체의 차별을 벗어나 타성일편이 되면 말과 글, 행위가 선(禪)에 일치합니다. 교와 선, 율, 이런 것도 분별이 안됩니다. 염불과 독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마음은 일체를 다 수용하지만, 나타난 모양에 따라가면 등차와 분별, 시비가 일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체 성인의 말씀과 팔만장경의 도리로는 미칠 수 없었기에, 새로운 한마디로 드러낸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는 주관과 객관, 능과 소를 뛰어넘어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관법입니다. 관하는 사람도 관하는 법도 뛰어넘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화두법이 처음엔 어려워도 위빠사나처럼 전세계에 알려지면 갈 수록 이해와 찬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져서 논리적인 것에는 환멸을 느낍니다. 인간의 사고와 설명으로는 본래면목을 드러낼 수 없기에, 말로 미칠 수 없는 무심처(無心處)를 화두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엔 관법만으로도 원만한 수행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변해 사람들의 지혜가 높아지고 신심이 약해지다 보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새로 정립한 것이 화두선입니다.

화두의 근원이 되는 '이뭣고'라는 것은 남악회양 선사가 육조스님을 찾아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는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남악회양 선사 처럼 경론에 밝은 고승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는데, 꽉 막혀서 8년간을 고생하며 깊이 궁구한 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뭣고'를 드는 데는 출 · 재가의 구별이 없습니다. 화두 들려고 따로 시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뭣고'를 드는 순간, 전후가 재단되어 과거와 미래는 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나'라는 중심점마저 끊어버리면 태허공(太虛空)처럼 텅 비워져 일체가 돈절(頓切)됩니다. 당장 화두일념에 들면 본래마음으로 돌아가 자기 본래모습과 대좌합니다. '불생불멸하는 참된 성품, 나의 진성이 무엇인고' 하고 늘 잠깐이라도 화두를 들면 수행 공덕이 있음은 물론 거친 현실을 극복하는데도 남모르게 이익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나 불행 등에도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는 일상 속에서 화두를 챙김으로써 저절로 대응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불생불멸하는 텅빈 마음에서 나오는 화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몰록 잊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객관화 될 때 거기에서 비상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불성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쓰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추측하며 현재에 머물지 않는 무주법(無住法)을 알아야 합니다. 바깥의 상인 물상(物相), 마음의 상인 심상(心相)이 둘다 공적하고, 공적하다는 그것마저 없이 일체상에 무관하게 보현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살아 움직이는 의심돼야 참다운 화두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도법 스님

바람이 차다. 바람이 찬 것 보다 세상이 더욱 차다. 따뜻한 둥지를 찾아 걸음을 옮기고 싶다. 실상사를 바라보면 따뜻함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국 불교의 생명의 소리가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도법 스님은 작고 왜소하다. 그러나 스님의 가슴에는 삼계 모든 중생의 절망과 비애와 희망이 다 들어 있다. 그는 아파한다. 한국 불교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과 물질문명에 대해서. 그의 사고와 행보는 그 아픔에 의해 추동된다. 그래서 그의 행보에서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아, 진실! 그것은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그려오던 것이었던가.

도법 스님은 지금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자기화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발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부처님이 중생에 대한 끊임없



그림 · 문병성

는 연민으로 출가했듯이 스님은 지리산을 떠도는 영가들에 대한 하염없는 연민으로 3년의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극복 없이 한반도에 평화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또렷이 알고 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여전히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 이념으로 갈리고 세대로 나뉘고 지역으로 갈라져 끝없는 분열의 시간 속에 있다. 모두들 대안 없는 삶에 매달려 너와 나를 적대시 하며 투쟁의 예봉을 꺾지 않고 있다. 정의도 선도 없는 다툼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 하기만 하다.

도법 스님은 우리들의 의식과 존재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한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 삶에 고통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세계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결여 때문이라고 한다. 존재와 전체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과 대립이 해소된 날들이 우리의 미래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의 기도는 스님의 말대로 존재와 전체의 올바른 관계의 실천이다. 세계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며 자신의 모습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동체대비의 인식을 스님에게서는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님의 기도는 이 세계를 향한 나눔이며 너와 나라는 대립이 끊어진 무심의 실천인 것이다.

한 수행자가 진실을 담보해 일생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끊임없이 발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저녁 어둠이 내리듯 세상이 혼탁해 가듯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법 스님에게서는 오염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의 곁에서는 거짓의 자취 또한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아파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으로 내게는 기억되고 있다. 외롭지만 쉬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은 스님에게 구세대비(救世大悲)의 원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은 작은 몸집으로 서서 기도한다. 지리산의 상처 받은 영가와 생명평화를 위하여. 마침내 천일기도의 회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스님의 기도가 스님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리라는 것을 안다. 스님의 기도에 반향이 있든 없든 스님은 일생을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 매 순간 발심하는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지리산 영가 위해 1천일 기도중

소탈 · 진지…함께 이해하고 고뇌

어쩌면 한번 출가 했다고 출가의 의미가 완성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매순간 출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발심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마침내 '출가'를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출가 수행자라 할 것이다. 도법 스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출가 수행자이다. 끊임없이 발심하는 수행자, 그리하여 가슴에 끊임없이 연민이 고이는 수행자이기에 그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구세대비의 원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스님은 소탈하고 진지하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이해하고자 하고 사랑이 있기에 스님은 한께 고뇌하자고 한다. 욕심도 야망도 그에게는 없다. 다만 길에 대한 꺼지지 않는 사랑과 염려만이 있을 뿐 이다. 11월 15일 스님은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평화결사를 시작한다.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 하나 놓고자 했던 스님의 회향식에 나도 가서 작은 불 하나 들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스님의 큰 원력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종단과 사회에는 많다는 소식을.

성전(惺全) 스님은 태안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월간 〈해인〉과 〈선우도량〉 편집장, 서울 옥천암 주지를 지냈다. 현재 서산 부석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월간 〈해인〉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우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로카드도 오리지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8일(토) ~ 9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너지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요법가의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어튠먼트는 우리의 온몸을 단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1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OOA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봉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합장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흙을 빚으며 흙과 함께 살리라.'

40년 이상 흙과 더불어 질박(質朴)한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찾아온 도예가 이종수(68)씨의 개인전이 11월 16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백자의 순수함을 담은 '잔설의 여운', 흙과 불의 만남을 조형화한 옹기나 토기류 작품들을 선보이는 '마음의 향' 등 두 가지 주제 아래 4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왼쪽부터 '잔설의 여운'(1996년), 각각 1985년과 2001년에 제작한 '마음의 향'.

'흙·물·불'로 빚은 멋과 맛

이종수 도예전 16일까지 가나아트센터서

'마음의 향' 주제로 작품 40여점 전시

당당하면서 중도적 겸손…볼수록 정감

특히 신작 뿐 아니라 그의 40년 도자 인생 속에서 마치 친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곱게 간직해 온 희고 반짝이는 달 항아리에서부터 거칠고 투박한 항아리, 여러 다완(茶碗)과 주병(酒甁) 등 다양한 그릇들을 꺼내놓는다.

흙과 물, 불이 가지는 자연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 도기(陶器)의 자연적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씨의 도자기들은 은근하면서도 꾸준한 우리 그릇의 맛과 멋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호평뒤에는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다. 이씨는 흙을 만지는 첫 단계부터 유약을 바르고 장작으로 불을 지펴 도자기를 골라내는 최후의 순간까지 철저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도자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은 구수하며 오래 볼 수록 정이 묻어나는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한 전래 토기나 옹기의 형태, 그리고 기름진 논바닥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재질감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그의 그릇들을 쭉 둘러보면 뽐냄도 초라함도 없고 당당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중도적인 겸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79년 돌연 이화여대 교수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충남 금산으로 내려간 그는 작업장을 짓고 20여년간 그릇 만들기 삼매경에 빠졌다. 이제는 바람이나 별만 보아도 불을 때야 할 시기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그는, "도자기 만드는 일은 작가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하고 혼을 바치는 구도의 역정과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고행의 순간을 거쳐 그의 손에서 빚어진 도자기들을 보고 조각가 최종태씨가 "이종수 그릇의 미학은 충분히 의도했지만 그 의도가 보이지 않는 허수(虛數)의 아름다움이다. 은은한 자연미가 돋보여 안 만든 것 같은 아름다움이 나온다"라는 극찬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2)720-102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통문양 이렇게 예쁠줄이야…"

치악문화제 단청문양 체험행사 인기



◇사진 왼쪽부터 김성수(학성초등 3년), 김초롱(우산 초등 2년), 이화진(학성초등 3) 등이 단청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 전통문양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혜인 스님과 단청화공 김윤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하나씩 그려나가다보니 절에서 봤던 화려한 연꽃문양을 직접 만들 수 있어 기쁘고 신기했습니다."

10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봉천내 주변 공원에서 열린 '제 22회 치악문화제' 행사 현장에서 단청문양 체험 전시회에 참석한 이경선(43 · 원주시 일산동) 주부는 처음해보는 단청 문양체험에 마냥 좋아했다.

특히 이번 단청 체험은 치악문화제 행사 개최 이후 처음이라서 인지 원주지역 주민들이 행사기간동안 5백여명 이상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혜인 스님(문막 지장정사 주지)은 "단청문화는 꼭 불교문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실생활에도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다"며 "꽃병과 밥주걱, 빨래방망이 등 나무 재료의 생활용품에 응용된 단청을 그리면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스님은 "이번 행사가 끝나더라도 지장정사내에 있는 성곡 아카데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청 강의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www.danchungnara.com, (033)732-0538

원주=김주일기자



◇월북작가 함세덕의 희곡을 각색한 영화 '동승'.

영화 '동승', 이란 아태영화제서

최우수작품상·촬영상 수상

영화 '동승'(감독 주경중)이 10월 23일 폐막한 제48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에서 그랑프리에 해당하는 최우수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했다.

영화제에 참석하고 이란에서 29일 귀국한 주경중 감독은 "종교는 다르지만 전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인 어머니를 소재로 해 좋은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란 쉬라즈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동승'과 '국화꽃 향기' 등 한국영화 2편을 포함해 11개국 23편이 출품됐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 아동영화 부문, 칸 시네필의 경쟁부문인 칸 주니어스, 파리영화제 경쟁부문, 싱가포르 영화제 비경쟁부문 등에 초청되기도 했다.

한상희 기자

이승엽선수 수상 프로야구 특별공로패

사경전문가 김경호씨, 한달걸려 제작



◇사경전문가 김경호씨가 제작한 공로패. 한국야구위원회는 홈런 신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에게 이 패를 전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월 23일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린 서울 잠실구장에서 한 시즌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56개)을 달성한 삼성의 이승엽 선수에게 특별공로패를 수여했다.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천년간 보존이 가능한 문화재급으로 제작된 이 공로패는 금과 은을 정제한 뒤 붓으로 글씨를 쓰고 문양을 새겨넣은 작품. 고려사경(高麗寫經)을 500년만에 재현한 김경호씨(한국사경연구회장)가 이번 공로패를 1개월여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제작해 화제다.

세번씩 정제된 순금과 순은, 사슴에서 채취한 녹교, 오동나무, 비단 등 국내 최상의 재료들에 한국전통사경의 기법으로 만든 지름 28cm의 팔각형 공로패 싯가는 2천만원 정도다.

바탕색은 고대 페르시아 왕의 색이라는 자주빛이다. 또 글씨는 천하의 중심이자 불멸을 상징하는 금, 테두리의 문양은 고귀함과 축복을 의미하는 은과 잡귀를 비롯한 삿된것을 물리치는 경면주사도 함께 사용됐다.

김주일기자



◇'친구' 자켓앨범

4년만에 새앨범 '친구' 발표

불자가수 김흥국씨

절절한 노래…포교효과 거뒀으면

"이번 앨범이 성공해 포교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수' 김흥국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80년대 후반 '호랑나비'로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 가수 본업보다 라디오 DJ, 오락프로그램 고정 패널, 월드컵 응원 등에서 활약했던 김흥국 씨가 오랜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99년 '무정'을 발표한 이후 정규앨범으로는 4년 만이다. 타이틀 곡 '친구'는 70년대 고고리듬의 곡으로, 복고풍 컨셉이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었습니다. 제 노래지만 심금을 울리는 절절한 노래에요. 그동안 트로트에만 치중돼 있던 성인가요에도 신선한 시도가 될 겁니다."

이번 앨범에는 '잊어버리세요' '믿어주오' '꽃바람불면' '황혼의 바닷가' '정아' '바람부는 날엔 종로로 나가자' '초원' 등 18곡이 실려 있다.

또 그동안 김씨의 트레이드 마크곡이었던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등도 수록돼 있다. 김씨는 이번 앨범에 대해 "지난 28일 있었던 모 방송국 가요쇼 녹화장에서 방청객 주부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대박'을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핸드폰 컬러링을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개경게'로 해 놓을 만큼 돈독한 신심과 신행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그는 불자가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포교활동, 봉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한상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05 불교강좌
08:00 법고와 죽비
10:05 BBS 신행상담실
15:00 뉴스
17:10 무명을 밝히고
21:30 BBS 초대석
22:05 영화음악실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5일 12:50 불교TV 스페셜, 오가피
6일 09:20 밥상에 도가 있다
7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8일 09:10 조선불교탄압사-부처 통곡하다
9일 13:30 성운대사 불교강좌
10일 09:20 건강하게 삽시다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법고와 죽비(11월 9일, 08:00~08:25)=불교계 여론 형성의 창구 역할을 하는 법고와 죽비. 9일 방송에서는 불교계의 한 주간 주요 이슈를 현장기자를 통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불교텔레비전**: ▷부처 통곡하다(11월 8일, 09:10~10:00)=조선시대에 성리학 유생들에 의해 탄압받았던 불교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날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개국(태조1년), 1412(태종12)~1425년(세종7년)대의 불교탄압 상소문의 내용을 방송한다.



도롱뇽과 인간이 함께 꿈꾸는 세상
우리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하고 사라져 가는 많은 생명들의 손을 잡아 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대의 물질문명은 환경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에 대한 미덕마저 함께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자연의 방문자로 이 땅에 온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인간이 아닌 뭇 생명들의 눈으로 개발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도롱뇽 소송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의 아름다운 연대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지구 가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담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후원계좌번호 : 부산은행 140-12-013476-7
(예금주 : 손정현)
■문의전화 : 051)623-9220 051)628-0902
■가입방법 : www.cheonsung.com에서 도롱뇽의 친구들 가입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도롱뇽의 친구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유기농제품, 알고 사면 몸에 좋아요

재배 토양 성분으로 결정
미네랄 성분 다량 함유
각종 생필품에 접목 각광
선택시 인증마크 체크

신세대 주부 조해인(29) 씨는 요즘 생활비 지출이 부쩍 늘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몸에 좋다는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그는 야채나 과일 등 농산물에서부터 화장품이나 장난감, 의류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유기농(Organic)' 딱지가 붙은 제품은 무조건 골라놓고 본다. 그러나 조 씨 남편 홍석정(31) 씨는 아내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유기농이 뭔데 이렇게 비싸? 건강에 확실히 좋긴 한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남편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유기농 상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주부들이 유기농산물 판매 매장에서 유기농 야채를 고르고 있다.

유기농은 흙이 결정

흔히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이 모두 '유기농산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유기농산물 여부는 재배 토양의 성분으로 결정짓는다. 국립농산물 검사소는 '무농약 조건'에 '유기물 함량이 3%이상인 흙에서 한 가지 작물을 3년 이상 재배한 것'에 한해서만 유기농 품질을 인증한다. 24년 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유기농법 대가' 김영원 씨는 "흙 1g에는 1억 마리에 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을 살리는 것이 유기농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들 미생물의 영양분이 바로 유기물. 단순히 농약을 끊은 흙이 아닌, 퇴비 등의 유기질 비료로 3년을 지낸 흙이라면 미생물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유기농 제품 봇물

칼슘, 철, 아연, 크롬, 마그네슘, 셀레늄 등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영양소들은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법. 유기물의 함량이 높은 유기농산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유기농산물 이용 시 일반 농산물에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들을 보충할 수 있다.

건강에 민감한 요즘 이같은 영양소들을 담은 유기농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정원 '유기농 케첩', 풀무원 '유기농 콩두부', 샘표 '유기농 자연콩 간장' 등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유기농 케첩은 출시 3개월 만에 13억 5000만원 어치가 팔렸고 유기농 이유식은 전체 이유식 시장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음식에만 유기농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다. '아베다', '프레쉬' 등의 화장품 브랜드도 유기농 원료에 주목하기 시작해 유기농 재배된 알로에나 유기농 장미 추출물 등을 제품에 함유시키고 있다. 또한 유기농 의류와 속옷에 유기농 면이 주목받는 것은 물론, 장난감까지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나무를 사용할 정도로 '유기농 응용'은 그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제대로 고르기

무농약 · 저농약 농산물도 유기농산물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유기농산물로 둔갑, 고가로 팔리는 실정이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기농산물은 대체적으로 모양이 예쁘지 않고 껍질이나 줄기, 그리고 잎 또한 두껍고 거칠다. 냄새 역시 천연의 향이 강한 편. 주관적 판단이 어렵다면 국립농산물 검사소가 승인한 인증마크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유기농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점과 쇼핑몰 등이 늘어나면서 구입처 선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유기농법을 이어온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유기물들이 자연의 밑거름이 되고 또 인간에게 돌아오며 연기적 순환을 거듭하듯, 생산자와 소비자 역시 상생과 순환의 관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 유기농다운 발상이 아닐까.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유기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만날 수 있는 곳
한살림(www.hansalim.or.kr),흙살림(www.heuk.or.kr),
한국유기농업협회(www.organic.or.kr)
△유기농산물 전문 쇼핑몰
올가(www.orga.co.kr, 080-596-0086), 유기농세상(www.62w.com),
유기농하우스(www.uginong.com)
△유기농 전문 음식점
미켓오- 서울 청담동, 유기농 퓨전 레스토랑, 02-548-5090
한쿡- 서울 대치동, 한식 전문, 02-555-8103
델리 반- 서울 청담동, 샐러드와 샌드위치 전문, 02-511-9519

클릭! 불교문화상품

호신불



지정 문화재 조각기능사가 조각한 국내 유일의 호신불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전단향목으로 만들었다. 아미타여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등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8종류의 호신불감은 손에 쥐기도 좋고 끈을 연결해 목에 걸 수도 있다. (5.5*4.5, 8만원)(4*2.5, 6만원) 011-775-9609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다시 생각해 보는 천도재

영가에 바른 선택 위한 천도재 돼야

어머니의 49재를 지내면서 느낀 부인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3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군요. 오늘은 49재에 부치는 부인의 두 번째 제안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원과 능력이 다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을 통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스님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포교 쪽이 적성이 맞는 스님은 포교를 통해, 학문 쪽이 적성이 맞는 스님은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고 해설하심으로 해서 부처님과 불교에 기여하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적성이 맞는 스님은 기도를 통해, 참선이 적성에 맞는 스님은 참선을 통해 불교에 기여하려 하실 겁니다. 천도재 역시 그런 능력과 서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도 천도재 의식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 스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가를 천도해 주는 의식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키우시려 서원하고 계신 스님이요. 그런 스님들에겐 영가 천도가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가 천도를 서원으로 세우고 계신 스님이라면 의식 하나하나에 지극한 정성을 쏟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의식을 집전하신다면 천도를 받고 있는 영가는 물론 의식에 참석한 가족들도 다 감동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천도재 의식 아닙니까?

법력으로 영가를 천도 해 줄 수 있으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간절함이나 지극한 정성으로 영가를 천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하기 때문에 절에서는 아무 스님에게나 천도재 의식을 맡기시지 말고 영가 천도에 관심과 서원을 세우고 계신 스님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만약 자신의 절에 그런 스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천도재 의식을 맡지 마셔야죠. 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라던가 절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치뤄지면 영가는 물론 천도재를 의뢰한 가족이나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까지도 함께 업을 짓게 될 테니까요.

하기 때문에 절에서는 영가천도에 서원을 세우고 계신 스님에게 천도재 의식을 집전하도록 전문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도 영가 천도만 전문으로 집전하는 절을 따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한 서원으로 천도재 의식을 치르는 것은 영가나 그 가족 뿐 아니라 스님이나 절 더 나아가서는 불교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될 테니까요."

3회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인의 제안을 요약하면 두 가집니다. 하나는 천도재 법문만은 영가를 위해서, 영가가 윤회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천도재 의식만큼은 간절함과 지극함으로 집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가천도에 서원을 세우고 계신 스님이 집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절이 집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절이 없다면 영가 천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절을 따로 세워서 영가천도에 서원을 세우고 계신 스님이 그 절을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가를 위한 것이 되고, 영가를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고 싶은 가족을 위한 것이 되고, 천도재를 집전하는 스님들을 위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천도재 의식에 참석해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인의 제안에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천도재 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를 위한 것이라 해서 관행적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과사가 따로 없다고는 하지만 죽음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충격이고 두려움입니다. 특히 윤회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생을 선택해야 하는 영가에게는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영가에게 지혜를 증득시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천도재 의식입니다. 하기 때문에 천도재 법문은 당연히 영가에 맞춰져야 하고, 영가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가를 위해서 큰 스님들이 하신 법문을 모아 영가 법문집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같은 책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化緣 (02)704-3577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음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머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가장 쉽고 단순하며 단 한번으로 누구나 순간 알아차리고 실천되어지는 수행비전의 비법이 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참선의 기본교육

참선을 氣차게 잘하려면!
- 첫째 : 제일먼저 가슴챠크라(중단전) 명치를 풀고 단전혈을 뚫어 명치, 배꼽주변에 단단하게 맺힌곳을 풀어주어 들숨시 신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도인법이고
- 둘째 :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지는 자세법 10가지를 마스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수승화강, 두한족열이 확인되고 절대로 상기되지 않은 자세법이고
- 셋째 : 가신의 본래 호흡을 찾아 부처님 호흡법대로 장출식 단전호흡이 되어지는 신비로운 지동단전호흡법이고
- 넷째 : 행주좌와 일여를 제일 빨리 일체의 무리없이 극복하려면 수식관, 위빠싸나, 화두선보다 염불禪이고
- 다섯째 : 어묵동정,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를 극복하려면 화두禪이 최상승의 길입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반 오후 1시 ~ 3시
직장인반 7시 30분 ~ 9시 30분
※ 수련비용 : 입회비 1만원 월회비 3만원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 0035 (팩스)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출구 앞 50M 이망스 가구 4층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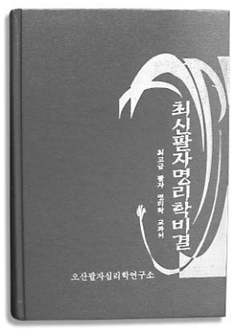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여러분도 빠른 시일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에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애매한 사주의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비결 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비결 수록
- 육친분석 및 대 · 세운 해석 통변술 수록
- 국내에 전혀 알려진바 없는 각종 중요 비결들 수록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용지 620쪽
♠ 가 격 : 스님, 법사님들에게는 우대가격 적용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함.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송금하신후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자세한 서적소개에 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 참조.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 수강생도 수시 모집 함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831-0055(대표)
FAX 02) 831-0058 H · P 011-208-0051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5화 붓다의 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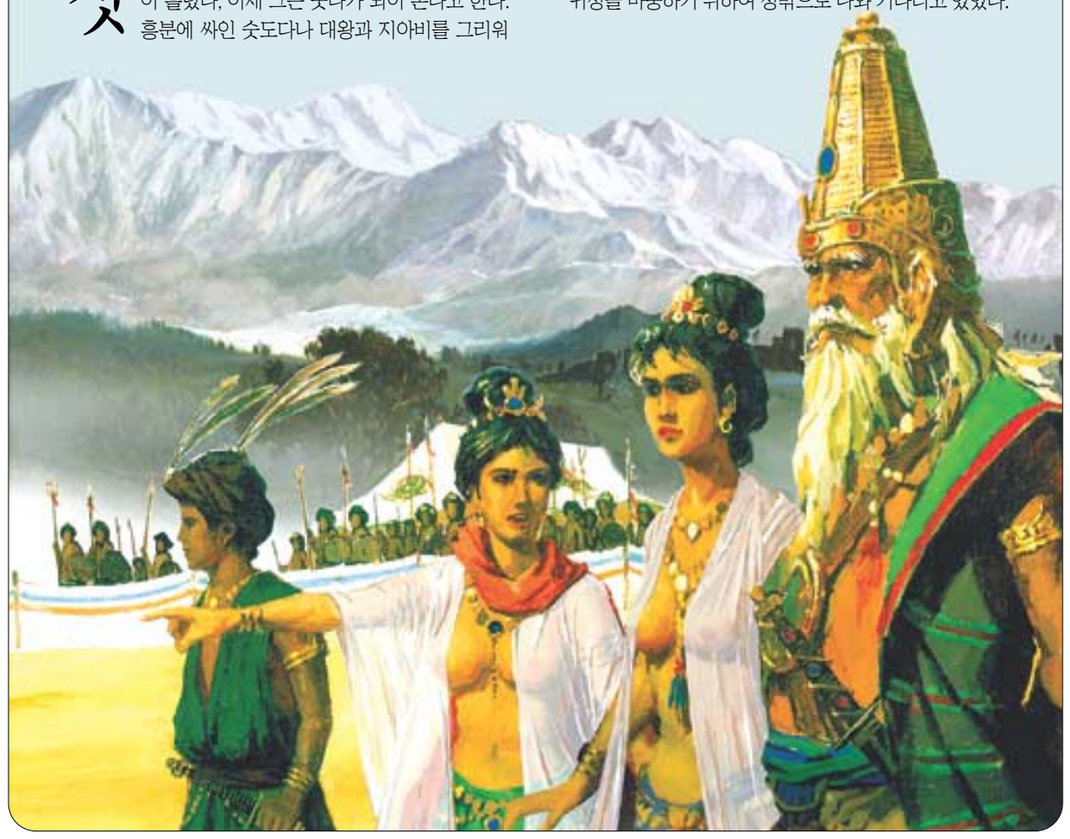


기원정사로부터 동북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붓다의 고향이며 샤카족(Sakya) 수도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tce, 迦毘羅城)가 있다. 붓다가 가까운 기원정사에까지 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숫도다나(Subbhadana)왕은 붓다에게 우다하인(優陀夷)대신을 특사로 긴급히 파견하여 붓다의 귀성을 요청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젠 기원정사도 안정되었으니 카필라바스투의 샤카식구들을 한 번 찾아가 뵈올 생각이었지. 마침 잘 되었다. 부왕마마의 초청이 아니더라도 나는 샤카족들에게 법륜을 굴려야 할 의무가 있노라. 일부 비구들은 이곳에 남아 수행을 계속하고 다른 비구들은 나와 함께 카필라바스투로 가서 아직까지 불법에 관하여 무지한 샤카족들을 깨우쳐 주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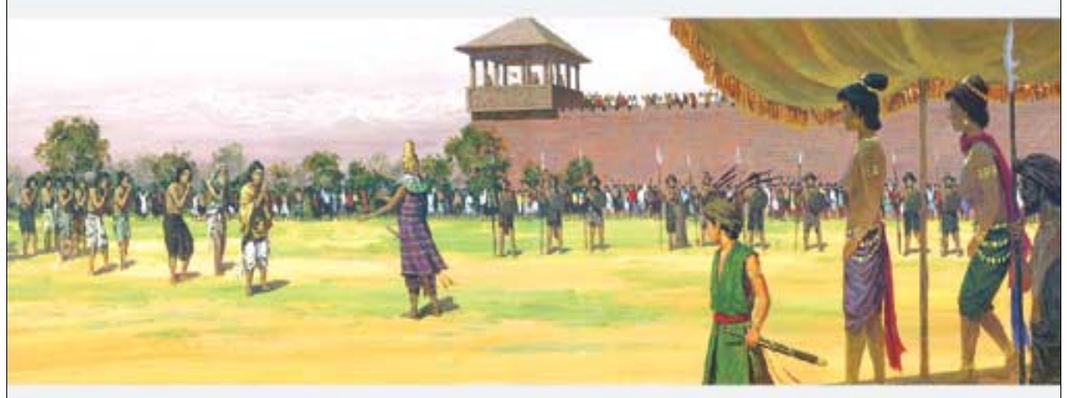


싯다르타 왕자가 집을 떠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그는 붓다가 되어 온다고 한다. 흥분에 싸인 숫도다나 대왕과 지아비를 그리워하던 야소다라 부인 그리고 성안의 모든 사람들은 붓다의 귀성을 마중하기 위하여 성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세상 최초의 대왕이신 마하삼마다(Mahasudarsana)의 피를 받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天孫) 샤카(Sakya)족의 태자로 태어났음에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떠나 버렸던 사람,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어 샤카족을 천하제일의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예언되었던 사람, 그러나 왕위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렸으며 민족의 기대마저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랬던 사람 싯다르타(Siddhartha)태자가 지금은 성중성(聖中聖) 붓다(Holy Buddha)가 되어 카필라바스투(Kapilavasttce)로 돌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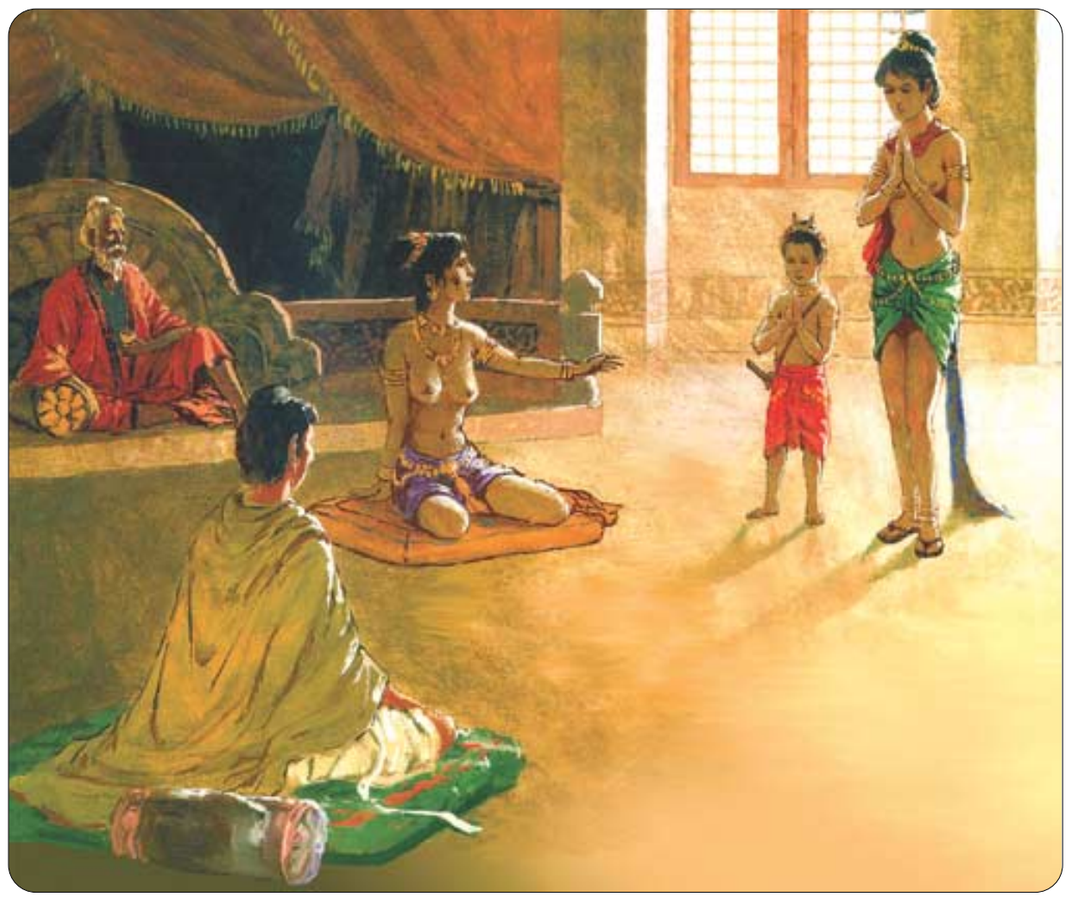
"비록 민족의 숙원인 전륜성왕(Cakra-Varti-raja)은 아니더라도 세상이 열린 이래 아무도 성취한 바가 없는 정각(正覺)을 이루어 붓다가 되었다니 과연 우리 샤캬족의 위대함을 천하에 떨치신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우리 카필라바스투의 안전도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야. 제 아무리 포악한 강대국의 왕이라도 이제는 모두 붓다의 발아래 무릎을 꿇는 신세이니 어찌 감히 성중성(聖中聖) 붓다의 조국 땅을 침범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어서 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태자여! 내 죽기 전에 태자를 한번 다시 보기를 소원하였더니 오늘에서야 그 소원을 풀게 되었도다. 어서 오라, 태자야! 그동안 몰골이 야위어 옛 모습이 없구나. 집을 떠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기에, 옛날 그 건강했던 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도 심려치 마옵소서. 아버님, 어머님, 이 소자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정각을 이루어 붓다가 되었나이다. 그동안 두 분의 모습이 퍽이나 늙어 보이시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숫도다나왕과 새어머니 마하파자파티의 손에 이끌리어 궁성으로 들어간 붓다 앞에 그의 아내인 야소다라(Yasodhara) 제 1태자비가 이젠 10살의 귀염둥이 라홀라(Rahula)왕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10년 세월, 눈물로 그토록 기다렸던 출가한 남편을 바라보는 야소다라는 원망의 눈빛으로 그녀의 마음을 남편에게 전했다. 철없는 아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위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어린 맑은 눈동자로 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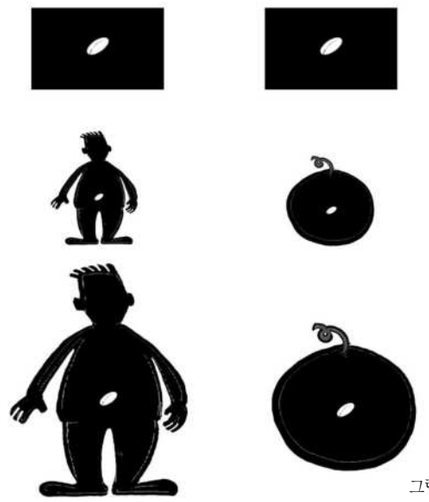
"야소다라 참으로 오랜 만이오. 지금도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구려. 라홀라를 키우느라 참으로 수고 하였소."

"이제는 붓다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셨으니 이제는 성으로 되돌아 와 주시렵니까?

10년 동안 쌓인 원망으로 남편을 맞으며 한순간, 속 좁은 여인의 투정을 보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남자답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지금도 나를 남편으로 섬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출가한 몸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몸이로다. 지금은 그 옛날의 태자가 아니고 6년의 고행 끝에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나를 남편이나 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이 넓다면 이 우주를 단번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어


그림 · 최주현

남겨진 자식들 걱정돼요

문 스님, 저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막내아이는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제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차마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내야 아이들이 엄마 없는 자식이라서 그렇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지금 이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요 모습을 똑같이 가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해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우린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가 되는 거지, 죽으면 벌써 이 몸뚱이가 없어서 부딪칠 게 없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습니다.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고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 몸을 벗고 죽은 사람들은 한계가 딱 지워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가고 옴이 없이 가도, 죽었으면 훨훨 날아다닌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와대 못 들어가죠. 또 경우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떠한 남의 모르는 집은 못 들어가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를 살아나가는데 철저하게 모든 상식이라든가 계율이 있듯이 그런 그 차원 그릇의 계율이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길을 지나가다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자리에서 치여 죽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몸이라도, 집이라도 오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유자재 못하니까. 살아서 우리가 자유자재권을 가져야지 죽으면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 못한다 이겁니다. 공부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다시 또 그 길을 걸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그러니 살아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아 놓고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한 30년 전도 됩니다. 근데 그때에 어느 산골인데 그래도 웬만하게 살았습니다. 초가집이라도 농사를 잘 짓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아 놓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상당히 쇠약해져 가지고 아주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어요. 이미 아주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그 애들을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애 없는 집에다가 다 맡겼습니다. 사실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고 그 사실 얘기를 다 하고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오면서 쪽편지 쓴 거를 하나씩 애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인생은 이 세상에 나와서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면 남이니라. 너희들하고 나하고 인연이 돼서 같이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고, 지금 새엄마 새아버지와 너희가 또 한 데 한 가정으로 모였으니 말 잘 듣고 잘 해라. 앞서의 같이 모였던 인연을 명심하라고 해 놓고, 엄마 소리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인연이라고만 해 놓고 그걸 한 장씩 다 주고서 정직하게 살라고 해 놓고 그 부인은 죽을 때를 바라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앉아서 그저 기도하기를 '내 마음의 부처시여! 당신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니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몸을 받게 하지 마시고 저런 불쌍한, 나하고 모였던 어린애들을 위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소서.' 인연에 따라서 만났던 그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몸이 부서지니 다시금 몸을 받게 하지 마시고 몸을 받게 한다면 한 사람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몸을 받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저 애들을 위해서 보살펴 주도록 이렇게 일을 자기한테 달라고 마음의 부처님한테 고하고서는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 애들이 다른 집에 가 가지곤, 그저 웬만한 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가고, 어린애 못 낳는 집만 준 겁니다. 하여튼 못 낳는 집에만 줬는데 그 애들 간 집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잘되니깐 공부도 잘 시키고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잘되고 그러니까 그 애로 인해서 그 부모들은 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얘기거리가 나온 겁니다. 야! 그 엄마가 애들을 자식이 없는 집으로 다 데려다 주고선 모두에게 쪽지를 돌려주고 물에 들어갔는데 그집 애들을 그 엄마가 돌보는지 잘된다 이겁니다. 그 집만 잘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서 사는 집이 잘되니까 그 친척들도 모두 잘되는 거라. 이것이 그 한 점의 마음, 그 애들을 다 기르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헌신짝같이 버리면서도 자기 마음은 그렇게 걔네들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가 돌보겠다고 빌었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안으로 자기 자성 부처한테 다짐다짐하고 생명을 버릴만큼 그렇게 애원했기 때문에 모든 계부처님의 한마음으로서 소원을 풀어 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그게 누굽니까? 미래의 그 애들이 바로 그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낳아 놓고, 씨를 뿌려 놓고 거두지 못하고 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과거의 그 애들이 그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과거며 아니, 자기 미래며 부모들은 자기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는 항상 울더라도 주장자를 잡고 울고 또 괴로워도 그걸 붙잡고, 좋아도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죽으나 사나 그거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절대 착과 욕심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놓으면 우리 살림살이는 어떡합니까 이러겠죠. 살림살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공부하는 과정이며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래나요? 안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육신과 더불어 모두가 사랑인 겁니다.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고 연줄 연줄이 그냥 가설이 돼서 집 안에도 불이 환하게 들어오니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어떤 방에는 안 들어오고 어떤 방에는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부자연합니까. 또 집 안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봅시다. "아이구! 캄캄해. 어딨어? 어딨어?" 하고 온통 난리가 나고 할 일을 못하고 이렇듯이 우리 살림살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하루만 불이 안 들어와서 캄캄하고 물이 안 나와 못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지혜라고 하고 마음의 밝음은 물리라고 합시다. 물리가 터지지 않고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여러분의 각자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게 바로 주인공이자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모두 살아나가는 일체를 거기에다 맡겨 놓고 착이 없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림 · 최주현

왜 없는 문이라고 하는지…

문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행의 방편은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문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만 알고 그 도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경전을 옆으로 꿰고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이래도 그건 학설이요, 이론이니 참으로 부처님 제자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어떻게 실천궁행의 법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편집하는 데에 가섭 존자가 아난을 들어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보고 듣는 것은 총명하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 기억하지만, 경전을 편집하는 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거기에는 자격이 없다." 한 거죠. 부처님께서는 무의 법과 유의 법을 같이 설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가 깨치지 않았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글자 하나를 쓰면 잘못 돌아가니까요. 이게 50% 50% 맞먹어서 같이 들어가면서 들려야 하는데 현상계 50%만 가지고 결정을 하려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 깨치지 못한 시기니까 그저 "부처님한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금란가사를 받고도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라는 얘기지요. 분별을 놓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습도 떼지 않고, 모두 걸리지 않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게 뭘까?' 하고선 천년만년 있어 봐야 자기를 모르고서 어떻게 남의 뱃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속을 알아야 그것이 서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무전통신! 심안으로 천체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열쇠구멍으로도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왜 열쇠구멍이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문이 많아서 전체가 문이라면, 열쇠구멍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겁니다. 네? 또 전체가 문이 없어요. 그런데 열쇠구멍이 문에 해당하느냐 이거죠. 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관문이요, 화두요, 공안이다 이겁니다. 공안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불자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 문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문을 찾아 들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있는 거나 그렇지, 물질이 아닌 이상에는 문을 찾을 게 어딨으며 문을 찾아 나올 게 어딨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문 찾아 들고 문 찾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뱃장 속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체 만중생의 속을 어떻게 알며, 일체제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풀이하고, 들고 나는 게 고정되게 요건 요게 옳고, 조건 조게 옳고, 대승 소승 가리고, 요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그 분별심도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어서 열쇠구멍도 없고, 또 일체가 문이 돼서 열쇠구멍이 무슨 아랑곳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섭도 없고 아난도 없고 열쇠구멍도 없다 이겁니다. 물질이 있는 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내가 우주 전체를 싸고 하나의 주장자가 완벽하게 섰다면, 저 요술쟁이들이 왜 이렇게 여기다 끼고 접시 돌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시공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공을 돌리듯이 돌리는 판국에 그 문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공부 못해요! 문이 없는 데를 그냥 덥썩 뛰어드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게 그냥 정통문이에요. 문을 따로 어떻게 찾아요? 문이 많은 데. 문이 하도 많기 때문에 '무(無)!' 했다 이겁니다. 또 문만 많은 건가요? 화두도 그렇게 많은 거지요, 닥치는 대로 화두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하며,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러고 있나 하는 거를 지켜보는 그 자체가 참선인 것입니다. 조사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와선이다 하는 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여하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바로 나 자신의 주인에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그러하지마는 이 세상에는 마음들이 모두 내놓으라면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모두가 문을 찾아서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만리 먼 것입니다. 천칠백 공안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천당 지옥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부처님 법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말로 다 하리까?

본래 사방이 터져서 문이 없고 전체가 문이어서 문이 없어

그래서 문을 찾아서 드는 사람들은 정말 참자기의 그 보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찾아서 들고 문을 찾아서 나고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본래 사방이 터져서 문이 없는 것을 문이 있다 하고 문이 많은 것을 문이 없다 하고 이러는 이치는 무엇인가? 사방이 터져서 문이 하나도 없는데도 문이 있다 하고 전체 문인데도 문이 없다 하는 이치는 무엇인가? 내 집의 보배를 간수하고 내 집 보배를 찾을 줄 알고, 내 집 보배를 닦을 줄 알고 빛을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남의 집 보배를 아무리 탐내 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로 찾아요? 따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있으니까 주인이 되고 네가 있으니까 바로 공이다 이런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몰락 놔버려라! 네가 하는 거조차 놔버려라 이러는 게 뭐냐 하면 본래는 내가 빈 공에서 왔기 때문에, 온 것도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공이다.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가 넣을 거는 또 어딨으며 뺄 거는 어딨느냐. 그러니 하는 것이 전부 공했는데 공에다 또 넣으라니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마는, 모두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면서 여여하게 살면서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빈 껍데기로만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공법에 대해서

문 스님의 법문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평등공법, 원융회통법, 불수레공법과 같은 공법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한 공부 단계가 저와는 차원이 너무나 먼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자세히 일러 주시면 공부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믿고 다 맡겨야 하고, 그다음에 맡겨서 밝게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견성했다'고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 공부하기는 글렀죠. 그리고 미해지죠. 세 번째는 둘이 아닌 걸 알았으면, 고다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개구리가 도와 달라고 그랬을 때는 개구리가 되어 한마음이 돼서 응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달라 하든 또는 못생긴 사람이 달라 하든 잘생긴 사람이 달라 하든 부자가 달라 하든, 새가 달라 하든 곤충이 달라 하든 짐승이 달라 하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대로 자기가 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돼 주려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적어져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건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뭐가 됐을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 소 이런 짐승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요, 사람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라는 얘깁니다. 했던 말 되합니다. 잘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오면 '주인이 있으니 거기다가 맡겨서 실천을, 실험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할 수밖엔 없으니 거기다 맡기세요.' 이렇게 하지, 기도를 하라 뭐 정성을 들여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성불이며 열반이며,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앞뒤가 없는 불바퀴를 넘어 참으로 영원한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얻는다

☞30면으로 계속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여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29면에서 계속

면 바로 평등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다음에는 칠보활궁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다음에는 팔수레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발이니 평손이니 평눈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종합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인이 바로 부처자 바로 신이죠. 그냥 보통 자기를 불러도 '자신(自神)' 이러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있는데 왜 타신을 믿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타신도 들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내 집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지.'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생산처인 줄 알고, 일체가 평등공법임을 알고 칠보활궁공법을 알고 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사무사유(四無四有) 팔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한마음이 돼서 저 나무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십이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법신으로서 모두가 화해서 응해 주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시고 곤충 하나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신다 이거예요. 응해 주신다는 뜻은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 이거지요. 찰나에 한마음으로 들어 주시고, 찰나에 한마음이 너 나로 분리돼서 또 한 찰나에 나시고, 이게 달라 하면 이게 달라는 대로, 저게 달라 하면 저게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라고 이름할 게 없는 것이 바로 부처예요. 내가 어떤 것이 되어서 한마음이 돼 줄 때에 나라고 하고 내가 해 주었다고 하며 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라는 것은 이름 없는 것이 부처이고 그 이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법성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대나무 방구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구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그 방구털을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네놈이 이끌어 줄 거고 네놈이 다 할 거고, 이 몸도 네 시자니까, 네 종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왈칵 그냥 다 놔 버리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굴려 놓는 자체가 팔수레공법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분이 다 지어 놓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그냥 살아가는 거 같지만 지금 살아나가는 게 끌려가고 매달려 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들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럴 때 한생각에 다 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바다로 비유해 보죠. 바다에 몇 양동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두드러집니까? 두드러지지 않죠? 또 몇 양동이를 퍼낸다고 줍니까? 안 줍죠? 고거와 같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으니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바로 평등공법, 활궁공법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솔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중력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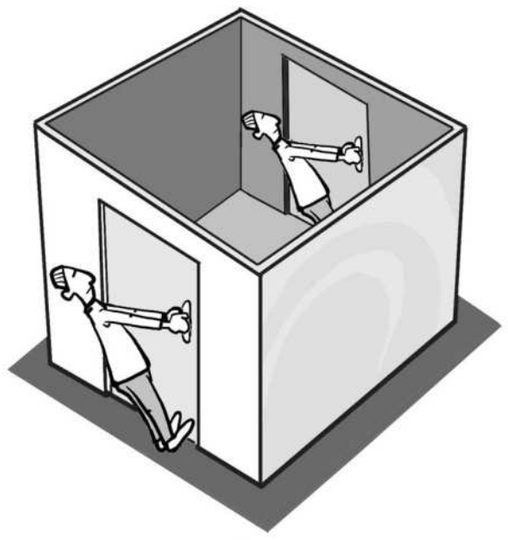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또 생각을 잘해서 발전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홀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차원대로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낮고 높고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 높고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 높습니다. 고거 두 마디만 해도 아시겠지요?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대로 높고요. 왜? 이거 하는 사람에게 저거 하라면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면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낮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대 성인들도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람은 한 찰나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놈은 누구고 그놈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놈은 누구고 자다가 일어나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놈은 누구고 생시에 이렇게 다니는 놈은 누구냐?' 이 모두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옹졸했을 뿐이지, 생각이 넓다면 이 우주를 그냥 단번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단박에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참 멋진….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위로는 평등공법이 되고 아래로는 칠활궁공법이 되고, 셋째번에는 팔수레공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들고 나면서 다양하게 자재할 때 비로소 '자재할 것도 없다. 자재한 것도 없다. 나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한 예도 없다. 나는 말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그게 나오죠. 그러니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나 감당하기 어렵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그거나 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도 네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놓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놈은 누구고 감당하기 쉬운 놈은 누구냐?' 하곤 그냥 거기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샘터에서 샘물이 꼬약꼬약 나올 때에 샘물 맛을 알겠죠.

가는 거 잡을 필요 없고 오는 대로 그냥 중심에 놔라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려면

문 불교에서는 보시행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홍서원에 '중생무변서원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없이 많은 중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시행을 해야만 보시바라밀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그래서 '무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변! 이 마음을 말입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또 나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구요. 남에게 뭐를 줘도 내가 그걸 받으려고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 잘되면 나한테 꼭 잘해야 돼.' 하고 주는, 말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합니다. 형제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러면 보시가 아닙니다. 뒤를 보지 않는 보시, 무엇을 바라지 않는 보시,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여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걸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니고 전체 한마음으로서 모두가 같이 천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의 살림살이인데 내가 특별나게 '내가 줬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러고 한다면 보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고서 '이거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를 보답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거는 정한 이치로,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참 잘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착한 마음이죠. 그러나 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줬다, 내가 했다, 너는 내가 줬으니까 반드시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게 보시입니다.

그리고 마음 보시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 보시보다도 마음 보시가 중요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다리가 성치 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느라고 무엇을 끌고 다닌다거나 또는 성치 않은 사람이 그릇을 놓고 좀 달라고 한다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한다거나, 또 몸은 성해도 그냥 가정이 엉망이 되고 편찮은 사람이 많고 이래서 쩔쩔매는 사람, 부모가 없이 그냥 사는 애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뒷생각 앞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나도 수억겁을 거쳐 올 때에 병신도 됐었을 거고 못나기도 했었을 거고 또는 모자라기도 했었을 거고 장님도 됐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겪어 나온, 과거에 그렇게 겪어 나온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바로 내 모습처럼 생각하고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보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즉 보시입니다.

시주하는 것도 나한테 갖다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갖다 주는 거라면, 내가 받았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갖다 줬다고 하지 않는 시주라면 이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근본, 바로 불바퀴의 에너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주를 할 것 같으면, 만 원을 했다면 십만 원 내지 몇 곱쟁이가 불어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주가 아니고 개별적인 스님의 고깃덩어리 위해서 어떠한 착을 가지고 이렇게 시주를 했다면, 그리고 또 자기가 했다는 거를 생각하고 했을 때는 아무리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 주었도 할지라도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알려면

문 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께서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닦으실 때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셨느니라."라고 나오는데, 오온의 공함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 만약에 지구가 요만하다면, 우린 그 속에서 전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떠서 내가 이리로 가 보겠다, 저리로 가 보겠다 해 봐도 그 통 안이란 말입니다. 별 수 없어요. 그 통 안에서 이리 가서 궁둥이를 돌려 앉고 저리 가서 궁둥이를 돌려 앉아도 이것을 팡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저 여기를 가도 내 자리 저기를 가도 내 자리, 이 자리도 그 자리 그 자리도 이 자리 그렇지요.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의식들이 만약에 나가고 싶어 한다, 이리로 옮기고 싶다 저리로 옮기고 싶다 싸움들을 한다. 이 속에서 그런다 하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저거 해도 바깥으로는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갈 수 없는 데로, 나가면 죽으니깐 죽는 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도 죽지 않을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벌써 이것부터 알아야 된단 얘깁니다. 나부터 내가 나하고 상봉이 돼서 생명들도 다 의식들도 보림을 해야 된단 얘기지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과거에 살던 의식들이 나를,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내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복을 받아라. 안과 밖을 조복을 받아라. 조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상행식' 이렇게 하는 것도 수상행식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데 합치면 공식이고 원식이에요. 그래서 주인공하면 수상행식이 그냥 원식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 모두 한데 합쳐서 조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별다른 것도 아닌데, 감수성 상상력 또는 그거를 하다 보면은 행이 스스로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 되면 그 의식이 그냥 그것이 한데 합쳐버려서, 의식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한데 합쳐서 원식이 돼 버리지요. 원식 하면은 벌써 수상행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그냥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뜻이 다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만물이 다 몽땅 다 이렇게 와도 내 그릇이 좁쌀 알갱이만하더라도 일체 만물이 다 거기 한 군데 좁쌀 알갱이 속에 다, 자리가 적지 않고, 우주 전체가 그 좁쌀 알갱이만한 방이라고 하더라도 다 거기 채워지고, 크면 큰 대로 채워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작고 크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티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마음인데, 그렇게 왕창 마음이라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조건 맡겨 놓을 수 있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사람이 이런 원리를 알아서 스스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마음 속으로 항상 아픔을 나와 같이 생명을 나와 같이 모습을 내 자식같이, 자비를 내 부모같이 이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거니까 벌써 한 치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거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락, 지금 이 말도 몰락 부숴 버리는 겁니다. 몰락 부숴 버리는 게 아니라 몰락 녹여 버리는 거예요. 끊어 버리는 게 아니라 녹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한다면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것이 항상 컴퓨터처럼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도리를 모르면 요다음에도 역시 또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연방 끄달리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 버릴 때 딴 데다 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 내기 이전 자리 그 자기한테다, 자기 주처, 근본 주처에다가 놔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바깥에다 놔 버리면 벌써 그것은 허탈해집니다. 이거는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으아!" 하고 나왔을 때 벌써 하늘과 땅은 깨어져서 짜개져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온 자기 근본처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근본처는 한마음이에요. 내가 생각내기 이전은 전부 한마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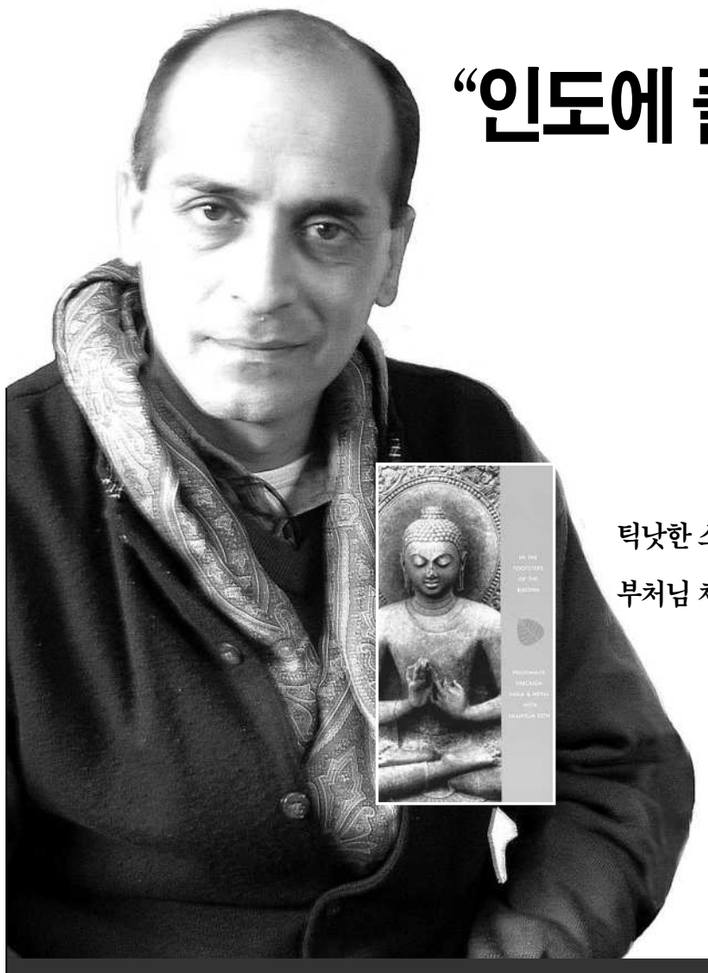
기쁘든 언덕을 넘듯 그 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인도에 플럼 빌리지 세웁니다”



틱낫한 스님 제자 샨텀 세스 법사 방한
부처님 체취 느끼며 ‘가르침’ 살필 터

“인도 플럼 빌리지 건립으로 세계 불자들의 인도불교에 대한 관심어린 발길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제자이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자문위원인 샨텀 세스(Shantum Seth) 법사가 지난 10월 22일 방한, 플럼빌리지 인도 지부 건립 계획을 밝혔다.

세스 법사는 한국방문 직후 베트남을 거쳐 인도로 돌아가 ‘플럼 빌리지 인도 지부’의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델리 인근과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 지역의 부지를 매입했다. 세스 법사가 마을 개방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면 내년 10월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된다.

이번이 첫 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그는 “동북아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 방문 전 일본과 중국 등을 둘러봤다”며 “남방불교와 갈래만 다를 뿐 다같은 불교임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스로를 플럼 빌리지의 ‘맏형’이라고 일컫는 그는 전통 베트남 불교 수행법의 법사로, 틱낫한 스님과 함께 수행하며 플럼 빌리지의 홍보와 출판 관련 일을 맡고 있다. 또 1991년부터 UNDP에서 저개발 국가 16개국의 환경문제 개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문 분야는 석가모니 부처님 유적답사. 1988년, 틱낫한 스님이 인도 출신인 그에게 부처님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권유했고 이것이 ‘부처님의 삶’과의 첫 인연이 됐다. 이후 현재까지 그가 계획한 성지순례 코스는 플럼 빌리지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교육으로 활용돼 오며, ‘부처님의 발자취(Buddha Path, www.buddhapath.com, 사진은 브로셔)’라는 정식명칭을 가진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세스 법사는 성지순례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좇는 것은 수행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찾아가며 ‘고타마 싯다르타’가 수행을 통해 고뇌와 번뇌를 어떻게 이겨내 부처가 됐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1986년 숭산 스님으로부터 선 수행을 배우기도 했다는 그는 한국불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일상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부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틱낫한 스님의 제자들

1세대 참여활동 통해 가르침 전파
조안 해리팩스 등 불교환경운동 대표

틱낫한 스님에게는 수백 명의 출·재가 제자들이 있다. 하지만 틱낫한 스님이 참여불교의 기수로 세계 곳곳에 알려지기 이전에는 정식출가자 보다는 소수의 재가불자들이 다수였다.

1980년대 후반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1세대 제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세스 법사처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불법과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조안 해리팩스(Joan Jiko Halifax)와 저널리스트인 애너벨 레이티가 그 대표적인 인물. 또 베트남계 토(Tho)와 스위스계 리지(Lisi)씨는 현재 미국에서 장애아 보호 활동을 하고, 빌 멘자(Bill Menza) 법사는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하고 있다. 칼(Karl)과 헬가(Helga) 씨는 독일에서 명상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인과 머레이(Jane and Murray) 씨는 영국에서 수의사로서 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전쟁 피해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후원을 비롯해 출판, 심리치료, 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예일대, 불교학 교수 증원 결정

미국의 명문사학 예일대가 불교학 교수를 증원하기로 했다고 예일 데일리 뉴스가 10월 22일 보도했다.

예일대의 이같은 결정은 세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 불교도 인구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 3년 전 이 대학에서 35년 동안 불교학을 담당해온 스탠리 교수(Stanely Weinstein)의 정년퇴임 이후 새 교수 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예일대 종교학부는 그동안 개신교, 유대교, 카톨릭 등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나 아시아권 종교인 불교, 힌두교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이 미비했다.

중국, 무신론 선전공세 강화

중국 중앙정부가 관영 언론들에 대해 정통 공산주의 세뇌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0월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관영 방송사들은 마르크시즘의 원리와 실제는 물론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이론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도난당한 네팔 유물 고국으로

네팔이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400년된 보물급 유물인 부처님 용안 탈(사진)을 10월 24일 돌려받았다.

청동과 구리로 만들어진 이 탈은 카트만두 인근의 한 지역에서 예불 의식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이다.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으로 인해 엄중히 경비됐던 이 탈은 그러나 2년 전 쯤 불상과 함께 도난 당했다. 그리고 최근 독일인이 오스트리아 유물박물관에 20만 달러에 내놓아 발견하게 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네팔 불교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난 됐던 유물의 진품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타 스테판 바스틀(Jutta Stefan-Bastl) 오스트리아 주재 네팔 대사에게 건네줬다.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⑤ UCLA 한국학·불교학 연구소



◇로버트 버즈웰 박사

불교와 한국학 강의 듣는 학생 2000여명
버즈웰 박사 설립 연구진, 프로그램 자랑
최근 주 정부의 지원비 삭감 위기 봉착

재학생의 10% 이상이 한국계, 미국 내 한국학 박사학위 등록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한국을 비롯한 다민족, 다인종의 학생수가 미국 내 대학 중 가장 많기로 손꼽히는 곳인 만큼 그와 연계된 문화, 민족 연구소가 발달돼 있다.

UCLA에서 매년 불교관련 수업을 포함한 한국학 강의를 듣는 학생은 2000여명에 달한다. 한국학과에서는 ‘한국불교’, ‘한국불교 경전 입문’, ‘한국불교 경전 연구’ 등의 수업을 1~2학기에 걸쳐 개설하고 있다. 또 한국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한국어 수업 역시 기초 교양과목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UCLA의 한국학 연구소와 불교학 연구소와 연계한 강의들이다.

UCLA 불교학 연구소(Center for Buddhist Studie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CLA의 한국학 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는 1994년 로버트 버즈웰(Robert Buswell)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박사는 한국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법명 혜명)를 받고 5년 동안 참선수행을 할 만큼 한국불교와 인연이 깊다. 원효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그는 한국학, 특히 한국 불교학의 권위자로 꼽히며 UCLA를 서구사회에서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 키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학자다.

버즈웰 박사가 7년 동안 한국학 연구소장을 역임한 뒤 2001년 8월 설립한 불교학 연구소는 미국 내 불교학 분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훌륭한 연구진과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늘어나는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인 불교문화를 먼저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연구목적을 밝히고 있다.

불교학 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 비교학, 한국, 일본, 중국학 분야에서도 연구성과에 있어 우위를 나타내는 UCLA 불교학 연구소는 매년 불교학자들을 초청해 워크숍, 강연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교 수행 체험, 현장 답사, 불교 지도자와의 대화 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최근 UCLA의 한국학 연구소는 주 정부의 예산문제로 인해 초청 강연, 학술대회, 연구 활동 등에 쓰이던 지원비 2만 5천 달러가 삭감돼 어려움에 처해있다. 장학금과 조교자리도 줄어, 학생들 또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왕성한 연구 활동을 보여 왔던 UCLA 한국학 연구소의 위기로 인해 한국 불교학 연구의 장 또한 위축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현대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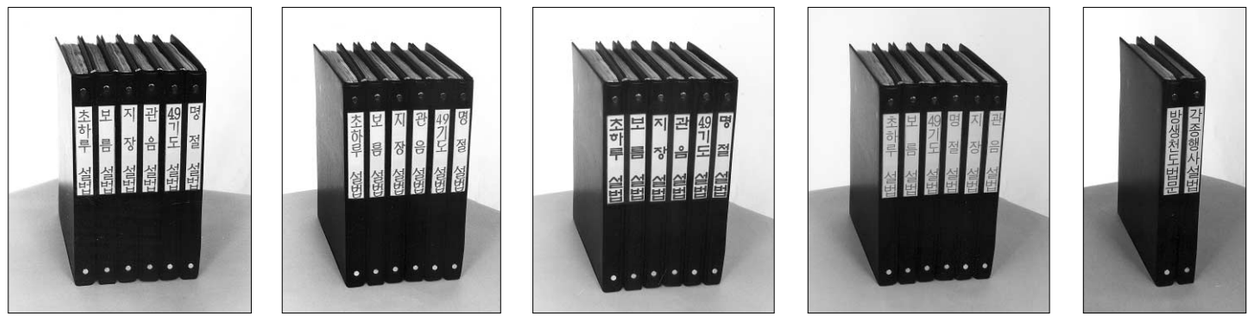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백중 49일 기도,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방생, 영가천도, 일요법회 수련 법회,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법문, 가족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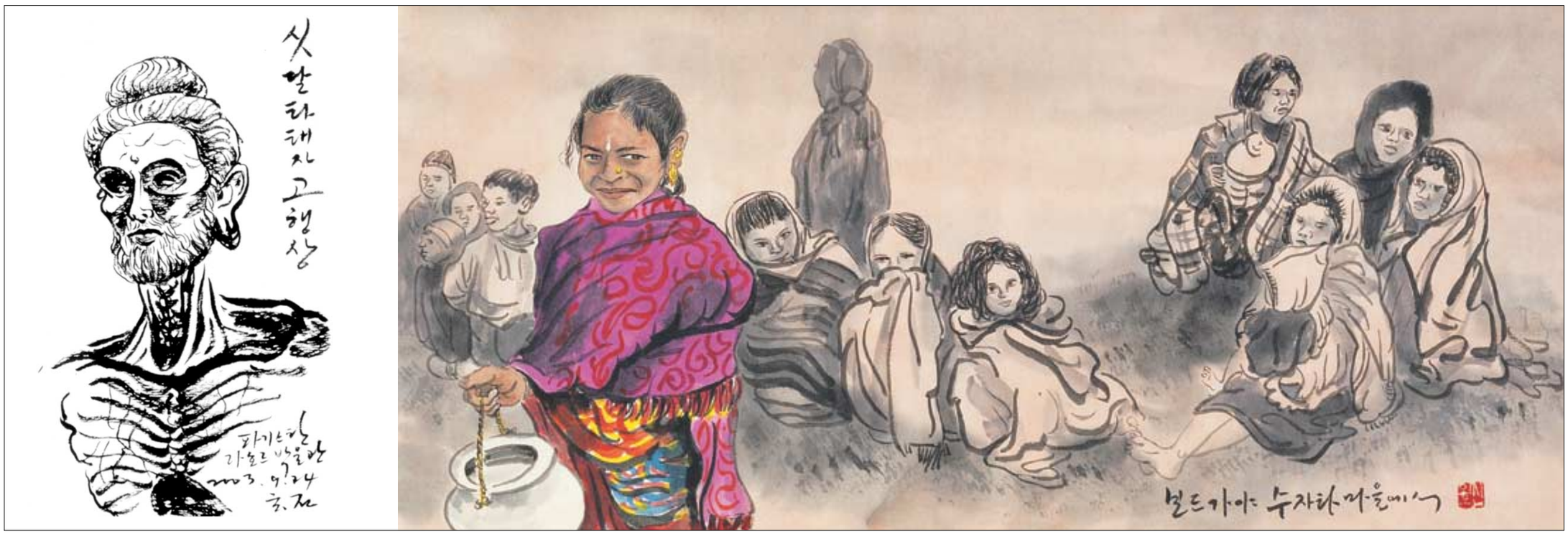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음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 대 설 법 연 구 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싯다르타 태자 고행상(왼쪽), 수자타 마을에서(90×40cm).

인도그림기행 23

고독한 수행자의 간절한 서원 깃든 곳

그림·글 이호신

님이시여, 이제 꽃을 받으소서

(고행림과 수자타 사원에서)

"내 지금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무상(無上)의 큰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몸이 다 마르고 부서지더라도 결단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방광대장엄경>

지난달 파키스탄 간다라기행(9.23~9.29)을 강행한 나는 수많은 불상과 간다라 불교 유산에 새롭게 심취했다. 그 한주의 여정이 마치 전생여행인양 아련하고도 꿈만 같다. 간다라는 또 다른 불교의 고향이요, 인류 최고, 최대 불상의 보고(寶庫)이었음에랴.

나는 그 중 단 하나의 불상 친견에 마음이 들떠 길을 떠났으니 바로 라호르 박물관의 '싯다르타 태자 고행상(苦行像)'이다.

냉방이 되지 않은 박물관에서 뻘뻘 땀을 흘리며 고행상을 향해 붓을 들어야 했던 나그네의 마음에는 끝없는 참회와 외경(畏敬)이 솟구쳤다. 그토록 그리운 님은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으니.

싯다르타 태자의 6년 고행을 그린 작품으로 서기 2세기에 제작되어 간다라의 시르카에서 출토된 고행상은 누구든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에 젖어들게 한다. 찬탄이 아닌 외경으로 전율케하는 고행상은 실제 붓다가 되기 위한 수행의 총체적 이미지요, 고행의 상징적 표상으로 일찍이 인류의 유산속에 나투었다.

오랜 단식으로 움푹 파인 배와 앙상한 갈비뼈, 그 가슴 위로 드러난 핏줄과 목뼈의 참혹함. 해골처럼 움푹 들어간 눈망울 속에서도 번득이는 예지의 눈빛. 가죽만 남은 뺨과 덥수룩한 수염은 결코 왕자였던 싯다르타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그러나 초인적인 수도를 통해 대오(大悟)를 다지려는 듯 굳은 의지로 결가부좌한 모습은 모두를 숨죽이고 숙연케한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나,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가부좌를 튼 싯다르타의 모습이 저와 같을까. 해석은 달라도 진리의 길은 하나다.

지난 시간 보드가야 대탑이 빛을 발하던 장엄에서 발길을 돌려 나이란자나 강을 건너니 고행림이라 부르는 숲 속 사원으로 길이 이어지는데 새까만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손을 내민다. 유독 한국인에게 아이들이 끈질기게 따라붙는다며 제발 동정하지 말아달라고 가이드 라전싱은 인상을 찌푸린다. 까닭인즉 구걸하는 자국인 때문에 그의 자존심이 상한 탓이다.

고행림으로 불리는 거대한 보리수 숲속 사원은 늙은 수행자들로 가득한데 모두 초췌한 모습이라 일행들의 동정을 샀다. 나그네는 그 숲속에서 도판으로 보았던 '싯다르타 태자 고행상'을 떠올렸다. 이곳 어디에선가 나무 그늘 아래서 강기슭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향해 용맹정진하는 그분의 뒷모습이 그리워진 것이다.

그때 그 시절, 님의 숨결은 나날이 야위어 가고 생명의 불길이 꺼져갈 무렵 선정에 잠긴 싯다르타의 눈앞에 천녀(天女)들이 나타나 노래를 불렀다.

"리라(악기)의 선을 너무 팽팽히 당기지 말라. 선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그 선은 끊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 그렇다고 선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말라. 너무 느슨하면 노래 소리는 울려나지 않으려니."

이 천녀의 노래에 감읍한 싯다르타는 단식을 중단하고 나이란자나강에 이르러 우르빌라 지방 성주의 딸 수자타(Sujata)로부터 유미죽(꿀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식)을 공양 받아 회생하게 된다.

"아! 진리의 사도여, 구원의 사문이시여, 이제 저희의 꽃을 받으소서."



◇보드가야 고행림에서(45×30cm).

고행상, 2세기에 제작 시르카에서 출토
움푹 파인 뼈 드러난 핏줄 전율마져 느껴
물통든 여인에 자비의 수자타 떠올라

내가 찾는 수자타는 수행에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거두어 주면서도 감격해 마지않는 여인. 님의 뜻과 의지를 간파한 보살의 손길이자 자비의 화신으로 그려진다.

그 자비의 화신을 어디에서 새롭게 만날까. 수자타사원으로 불리는 우루벨라마을을 찾아가자 조그만 사원엔 고행상을 닮은 불상 앞에 두 여인이 공양을 올리고 흰소 한 마리가 앉아있다. 두 여인은 이른바 수자타 자매라는 설로 전해지고 흰소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살펴진다.

마을 풍광은 옹기종기 짚단으로 쌓아놓은 아름다운 농촌 전경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데 여기까지 쫄곧 따라오는 아이들을 나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 들녘에는 아이를 안은 아낙과 소년소녀들이 진을 치듯 둘러앉았는데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며 '불가촉천민'이란 소외계층을 떠올렸다.

저 슬픈 가난을 어찌하랴. 저 쓸쓸한 어린 추억을 어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으랴. 매달리는 그들을 뿌리치고 돌아서 가야만 하는 모진사람의 인연이여.

그 갈등의 틈바구니 속을 간신히 빠져 나오는데 제법 옷을 잘 차려입고 물통을 든 처녀와 우연히 마주쳤다. 순간 사경에 이른 싯다르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수자타 여인이 떠오르는게 아닌가. 그리하여 마치 그녀의 물통에서 저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 지혜와 자비의 유미죽이 끊임없이 솟아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마저도.

어느 듯 고행림을 되돌아보자 저 멀리 숲 속에 한 수행자가 고독을 벗삼아 앉아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분은 분명 라호르 박물관에서 만난 고행상의 모습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실 것만 같다. 그리고 그 분은 침묵속에서 여전히 간절한 서원(誓願)에 차 있을 것이다.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하더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다함 없으리.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마하몰이 불자님의 건강을 위해 엄선한 건강식 특가판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주문전화 : 02)732-1520

한방약차

● 녹용대보탕 : 판매가 350,000 원
기가 허하고 쇠약한 일체 허손에 크게 보한다. 산후 허약함과 가슴이 두근거림, 시력감퇴에 좋다. 특히 정력부족에 아주 좋다.
▶ 성분 : 녹용, 육종용, 인삼...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도원차 : 판매가 200,000 원
폐기를 돋구어 오래된 기침을 멎게 하고 산수를 좋게하여 피로를 멎게한다.
▶ 성분 : 인삼, 숙지황, 산수유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숙지황 : 현삼과에 속한 생지황(生地黃)의 뿌리를 깨끗이 씻어 껍질 을 베껴 내어 음건(陰乾)한 후, 이것을 막걸리를 뿌려가며 시루에 찌 고 다시 음건하고 찌는 것을 아홉 번씩 하는 것을 구증구포(九蒸九曝) 한 것이라 한다. 생지황을 그냥 말린 건 지황도 약재로 사용한다. 이 숙지황의 성분은 심(心), 간(肝), 신(腎)에 들어가 작용한다.

● 수양차 : 판매가 200,000 원
전신이 무력하고 땀이 많고 양기가 빠져나간것을 수렴하여 양기가 돌아오게 한다.
▶ 성분 : 인삼, 숙지황, 황기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황기 : 강장 · 지한(止汗) · 이뇨(利尿) · 소종(消腫) 등의 효능이 있어 신체허약 · 피로권태 · 기혈허탈(氣血虛脫) · 탈항(脫肛) · 자궁탈 · 내장하수 · 식은땀 · 말초신경 등에 처방한다.

● 아가리쿠스버섯차 : 판매가 160,000 원
면역력 증강, 항암작용에 뛰어나다.
▶ 성분 : 아가리쿠스, 숙지황, 작약, 대추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아가리쿠스 : 우리말로는 "신령버섯" "흰들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이 버섯은 자루의 색이 희고, 향이 좋으며,모양은 양송이와 흡사하고 무늬모양이 다소 특이하고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있으며, 암이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



● 동충하초차 : 판매가 160,000 원
동충하초는 신기능을 좋게하는 보양식품이다. 정력을 좋게하여 유정(遺精)과 폐음(肺陰)이 부족함을 메운다.
▶ 성분 : 동충하초, 인삼, 황기, 숙지황, 당귀, 천궁, 맥운동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신기차 : 판매가 160,000 원
다리가 무력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운데 좋다
▶ 성분 : 인삼, 숙지황, 산약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흑로차 : 판매가 150,000 원 당뇨특효
▶ 성분 : 산수유, 숙지황...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 수연차 : 판매가 160,000 원
당뇨, 비만, 고혈압 특히 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극심한 피로, 정력증강, 소화장애에 좋다.
▶ 성분 : 동충하초, 차전자, 복령 ▶ 용량 : 포장판매 60봉기준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홍삼제품 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무설탕 홍삼캔디를 증정합니다.


홍삼진액(40포)
▶ 판 매 가 : 89,000 원
▶ 홍삼진액(KOREAN RED INSAM TONIC)
▶ 제품의특징
본제품은 대한민국 특산품 고려홍삼의 제조 품질 기준에 적합한 우량 원료 수삼만을 엄선하여 금산인삼농협이 직접 가공한 홍삼만을 저온에서 장시간 추출 농축하여 소비자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만든 더욱 진한 홍삼 음료입니다.
▶ 원료명 및 함량
5년근 홍삼근 99.01%(국산)(홍삼20%, 홍미삼80%), 자몽종자 추출물 0.99%
▶ 포장단위
- 100g × 20포 × 2박스


홍삼액(60포)
▶ 판 매 가 : 120,000 원
▶ 홍삼액(KOREAN RED INSAM TONIC)
▶ 제품의특징
본제품은 대한민국 특산품 고려홍삼의 제조 품질 기준에 적합한 우량 원료 수삼만을 엄선하여 금산인삼농협이 직접 가공한 주원료로 하여 품질유지를 위하여 저온에서 장시간 추출 농축하여 소비자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만든 홍삼음료입니다.
▶ 원료명 및 함량
홍삼71.58%(국산)(홍삼70%, 홍미삼30%),대추13.42%(국산),생강8.95%(국산), 이소말토올리고당, 자몽종자 추출물
▶ 포장단위
- 80g × 30포 × 2박스


홍삼액(120g,240g)
▶ 판 매 가 : 70,000원 140,000 원
▶ 홍삼의 유효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홍삼원액으로 건강 증진에 좋은제품 입니다.
▶ 구성
120g/병, 240g/병
▶ 사용방법
1회 1g정도를 동봉한 스푼을 사용하여 한 컵의 냉수 또는 온수에 타서 잘 저어 음용하며, 꿀이나 감미료를 첨가하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 보관방법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
- 24개월(2년)


봉밀홍삼절편(10갑)
▶ 판 매 가 : 47,000 원
▶ 봉밀홍삼절편 (KOREAN HONEY SLICED INSAM)
▶ 제품의특징
본제품은 정년근 수삼을 썰어서 증숙건조 후 저온으로 장시간 당침하여 건조시킨 인삼 고유의 맛과 향취를 음미할 수 있는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음주시 안주로도 좋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 원료명 및 함량
홍삼(4년근이상)100%(국산), 봉밀50%, 고과당50%
▶ 포장단위
- 200g(20g × 10갑)

기타홍삼 제품
홍삼정제 W30,000원 무설탕홍삼캔디 W10,000원 홍삼초코렛 W12,000원
홍삼양갱 W12,000원 홍삼유가 W16,000원 홍삼젤리 W14,000원